

국립국어원 2010-03-29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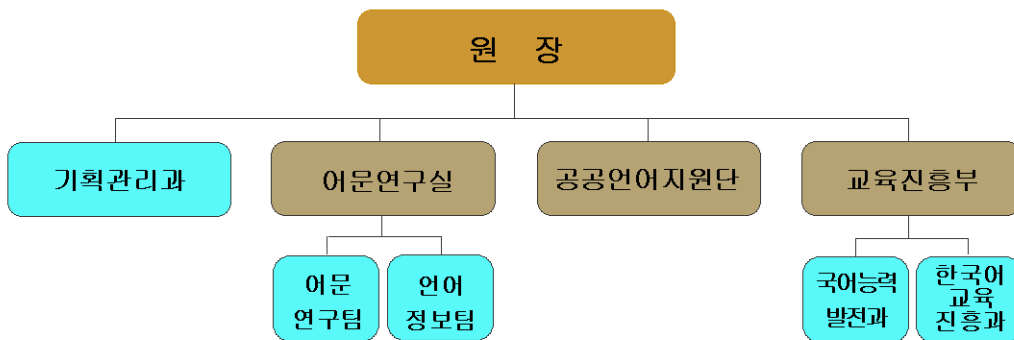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 장	기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문 연구실	◆ 어문연구팀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언어정보화팀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 지원단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육 진흥부	◆ 국어능력발전과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진흥과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약 2,700명에 이르러, 9년간 약 1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SBS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2009. 11.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2009. 12.	원내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개최

국어문화학교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과 정 연 도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2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1	3,164	316	27,804
합 계	208	20,068	2,040	171,631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합니다.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새터민 발음 교육’ 등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차례

제 1 부 :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의 이론	3
2. 한글 맞춤법의 실제	25
3. 띄어쓰기	41
4. 구별해야 할 말	57
5. 표준어 규정	67
6. 표준 발음법	85
7. 외래어 표기법	107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23

제 2 부 :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135
2. 문장 바로 쓰기	171
3. 학교 생활문 쓰기	191
4. 청소년과의 대화법	207
5. 협력적 의사소통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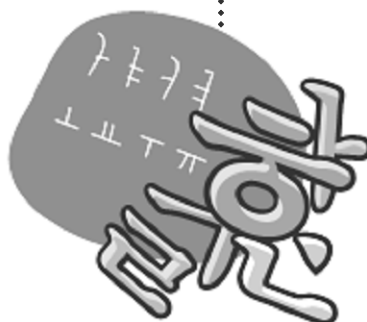




제 1 부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의 이론 | 3
2. 한글 맞춤법의 실제 | 25
3. 띄어쓰기 | 41
4. 구별해야 할 말 | 57
5. 표준어 규정 | 67
6. 표준 발음법 | 85
7. 외래어 표기법 | 107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23





한글 맞춤법의 이론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¹를 소리대로 적되², 어법에 맞도록³ 함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항)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 (2)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꼰만/꼰만’, ‘꽃도/꼰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 (3)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단어가 ‘꽃/꽃/꼰/꼰’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되어 언어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독서의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① 꼬치, 꼬츨, 꼬또, 꼰만 / 감쌌, 감쌌, 감또, 감만 / 떠기, 떠글, 띄또, 떼만

②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떡이, 떡을, 떡도, 떡만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어떤 한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



려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 예컨대 [깨끄시 사용해라]에서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끗하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그시 누르다]에서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지그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와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게 된다. 한편,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의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2. 한글 맞춤법 익히기

2.1. 같아/*갈애(한글 맞춤법 제15항)

“좋은 것 같아.”의 ‘같아’를 [*가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간 ‘같-’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가태]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같아’로 적고 [가타]로 발음해야 한다. ‘같아, 같아요, 같았어, 같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참고] 바라/*바래

2.2. 거친/*거칠은(한글 맞춤법 제18항)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날으는, *눅슬은’이 아니라 ‘거친, 나는, 눅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놀으는, *갈으는’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참고] 낫설다(→ 낫선), 내걸다(→ 내전), 절다(→ 전)

-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하늘을 {날/*날을} 것 같은 기분
- ㄴ. {거친/*거칠은} 피부, 피부가 {거치니/*거칠으니} 로션을 발라라.

4 바른 국어 생활

- ㄷ. 옥외에 {내건/*내걸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거니/*내걸으니}
 ㄹ. {녹슨/*녹슬은} 철포, 철포가 {녹스니/*녹슬으니}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속이 물크러져 상하다)이고 이 말의 ‘ㄹ’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은 국수’, ‘홍수로 불은 강물’의 ‘불은’은 기본형이 ‘붙다’(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이므로 ‘*분 국수’가 될 수 없다. 이는 ㄷ불규칙 용언인 ‘듣다, 신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붙다’는 ‘붙고, 붙지, 붙게, 붙으면, 붙어서, 붙었다, 붙은, 붙을,’과 같이 활용한다.

2.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 소문이 금세 퍼졌다.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 밤새 비가 내렸나 봐.

2.4. 깨끗이/*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ㄱ. ‘이’로 적는 경우
 ①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느직이, 두둑이
 ②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③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 ④ 부사 뒤: 꼼꼼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
- ⑤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ㄴ. ‘히’로 적는 경우

- ①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뚝뚝히 ……
- ②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
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
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2.5. 나무꾼/*나뭇꾼/*나뭇꾼(한글 맞춤법 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낚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 ‘빚깎’, ‘성깎’ 등도 ‘*땃깎’, ‘*빚깎’, ‘*성깎’ 등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단 ‘젓깎’은 ‘*젓깎’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참고]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

2.6. 늘이다/늘리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바지를 {늘이다/늘리다}’의 경우는 옷감을 덧대어서 길게 하는 경우는 ‘늘리다’이지만 탄력성이 있는 바지를 당겨서 길게 한다는 뜻일 때는 ‘늘이다’가 된다. ‘수출량, 강의 시간’ 등은 ‘늘리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

2.7. 더욱이/*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를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그러나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는 구분하여 적는다.

2.8. 덮이다/*덮히다

동사 ‘덮다, 쪼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쪼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ㄴ’, ‘ㄷ’, ‘ㄹ’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참고] 먹히다, 막히다 / 굶히다, 읽히다 / 넓히다, 밝히다 /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2.9. 되라/돼라(한글 맞춤법 제35항)

‘되라’와 ‘돼라’의 차이는 전자는 ‘되- + -(으)라’이고 후자는 ‘되- + -어라’라는 점이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드는 경우 ‘돼’가 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 + -(으)라고] 말씀하셨다.”와 “성실한 사람이 돼라(되- + -어라).”와 같이 구분된다. 한편 ㄷ.과 같이 의고체의 명령형인 ‘-(으)라’가 연결되면 ‘되라’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돼(되어)’가 가능하다.

[참고] 피다, 피다, 뇌다, 되다, 뵈다(‘모이다’의 준말), 뵈다, 쇠다, 썩다, 죄다, 켜다

ㄱ. 되지 못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 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 해 먹다 / 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 / 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 할까 / 했어 / 했네

후보 가운데 누가 회장으로 선정되어도(선정돼도) 좋다. ※ 해도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 했군

공부 더 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 해라

ㄴ.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라고

ㄷ. 공부를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되- + -(으)라]. ※ 하라

ㄹ. 선생님, 내일 뵈어요/뵈요/*뵈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췌어요/췌요/*췌요?

2.10. 디뎠다/*뎠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뎠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뎠고, 뎠자, 뎠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뎠어, *뎠었다, *뎠으며, *뎠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더), 디디었다(디뎠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갖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 (디더)	디디니	디디며	디뎠
뎠다		뎠고	뎠지	뎠니?	*뎠어	*뎠으니	*뎠으며	*뎠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 (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 *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8 바른 국어 생활



기본형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2.11. -ㄴ 걸/*-ㄴ 겔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ㄴ까’, ‘-ㄴ쏘냐’, ‘-ㄴ꼬’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 ㄱ.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겔}.
- ㄴ. 내가 해 {줄게/*줄께}.
- ㄷ.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2.12. -(으)로서/-(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가 구분된다. ‘-(으)므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므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2.13. 마라/*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ㄷ.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2.14. 맞추다/맞히다/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췄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 보세요.”에는 ‘알아맞혀’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교하다’의 의미인 ‘맞추어(맞춰)’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2.15. 머릿기름/*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 ①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ㄱ, ㄷ, ㅂ, ㅅ, ㅈ]로 변할 때 (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 꺾병, 기댓값, 대폿값, 등곶길, 고깃국, 만둣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 보랏빛, 빨랫줄, 성곶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 횃집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콧날, 콧노래, 콧물, 콧마루, 뺨머리, 수돗물, 뒤텔마루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껏읻, 나뭇읻, 배껏읻, 읻읻, 예삿읻, 사삿읻
-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 곳간(庫間), 찻간(車間), 퇴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횃수(回數)
※ ‘기차간(汽車間, ← 기차 + 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 + 방)’은
위 6개 한자어 외의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 ㄹ.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ㅅ’을 표기
하지 않음.
→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 ㄴ. 된소리,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뒷말 앞에서는 ‘ㅅ’을 표기하지 않음.
→ 쥐뿔, 뒤편이, 뒤흥, 뒤편, 위쪽, 위칸
- ㄴ.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 핑크빛, 피자집 등

2.16. 며칠/*몇일/*몇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몇 + 일’은 ‘몇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며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 예로 미루어 보면, ‘몇’ 다음에 ‘일(日)’이 오면 [며딜]로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ㄱ. 몇 월 → [며월], 몇 인 → [며딘], 몇 억 → [며덕], 몇 원 → [며원]
ㄴ. 몇 향 → ([면향]) → [며탕], 몇 해 → ([면해]) → [며태],
 몇 호 → ([면호]) → [며토]
ㄷ. 몇 날 → ([면날]) → [면날], 몇 년 → ([면년]) → [면년],



몇 묶음 → ([멸무꿈]) → [면무꿈]

ㄹ. 몇 일(日) → *[머딜]

‘몇’ 다음에 명사가 오면 끝소리의 ‘츠’은 중화되어 ‘ㄷ’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몇 + 월’은 [머칠]이 아니라 [머뭇]이 되고, ‘몇 + 억’은 [머척]이 아니라 [머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옷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뒤],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몇 + 일’의 구성은 [머딜]로 소리가 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딜]이라고 하지 않고 [머칠]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몇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머칠]은 현대 국어에서 그 어원(원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머칠’이라고 적게 되는 것이다.¹⁾

‘머칠’은 또 다시 ‘날’과 결합하여 ‘머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 (“아버님 제사가 5월 머칠날이지?”). 일부에서는 ‘몇 일’과 ‘머칠’을 의미를 구분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이든지 ‘머칠’이라고 써야 한다.

ㄱ.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x) → 오늘이 몇 월 머칠이지?(○)

ㄴ. 머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ㄷ. 머칠만 시간을 주세요.(○)

2.17. 문득/문뜩(한글 맞춤법 제5항)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ㄴ.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1) 사실 ‘머칠’은 중세 국어에서 이미 현대 국어와 같이 두 가지 의미(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2. 몇 날)로 모두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 ‘머칠’에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다.

ㄱ. 오늘이 머칠고 《朴通事諺解(1677년) 중:53》

ㄴ. 머츠를 설워 허리러노 《翻譯朴通事(1517년) 상:75》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는다. 하지만 ‘문득’은 [문뜩],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참고] 깜박/깜빡, 꿈작/꿈작, 끈덕끈덕/끈덕끈덕, 방긋/방긋, 번득/번득, 번듯/번듯, 번적/번적, 생긋/생긋, 싱긋/싱긋, 흘긋/흘긋, 흘깃/흘깃

2.18. -박이/-배기/-빼기(한글 맞춤법 제54항)

접미사	의미	단어 형성의 예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 짐승,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접미사	덧니박이, 점박이, 외눈박이, 토박이, 불박이, 오이소박이, 차돌박이, 장승박이
-배기	1. 그 나이를 먹은 아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2. 어떤 것이 꼭 차 있음.	알배기, 나이배기
	3.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궁짜배기, 진짜배기, 대짜배기
-빼기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예외) 뚝배기, 언덕배기

2.19. 백분율/*백분률(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어 ‘률,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올 때는 ‘열, 율’로 적는다. 그 외의 경우와 외래어 다음에는 ‘률, 률’로 적는다.

한자	사용 환경	음	보기
率 律 栗 慄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률	악률(樂律), 출석률(出席率), 굴절률(屈折率), 음률(音律), 결합률(結合率), 법률(法律), 성공률(成功率), 생률(生栗), 영률(Young率: 고체 탄성률의 하나)
	모음, ㄴ 받침 다음	율	규율(規律), 분해율, 비율(比率), 실패율, 참가율, 백분율, 불문율(不文律), 선율(旋律), 전율(戰慄), 평균율(平均律)



列 例 劣 烈 裂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2.20. 부딪치다/부딪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전거에 부딪쳤다.’는 상호 작용으로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의미로, ‘자전거에 부딪혔다.’는 피동적으로 자전거에 충돌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부딪치다’는 ‘마주’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 ㄱ.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ㄴ.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마주 부딪쳤다.
- ㄷ.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마주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딪혔다’로 써야 한다.

2.21. 붙이다/부치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 ㄱ. 붙이다: 반창고를 붙이다 / 불을 붙이다 / 흥정을 붙이다 / 감시원을 붙이다 / 주석을 붙이다 / 번호를 붙이다 // 따귀를 올려붙이다 // 소매를 걷어붙이다 //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ㄴ.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극비에 부치다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기운이 부치다
// 논밭을 부치다 // 부침개를 부치다 // 부채를 부치다

2.22. 사귀어/*사겨/*사귀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귀’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뀐’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겼니? / 짝이 또 *바졌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참고] 지저귀어, 바뀌어, 나뉘어, 야위어, 비취어, 활귀어

2.23. 시원찮다/*시원찮다(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찮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잖’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으로 적는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2.24. 벌에 쏘였다/췌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ㄱ, ㅋ, ㆁ,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ㄱ, ㅋ, ㆁ, ㄷ, ㅌ’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혀 ‘쏘이다 ~ 췌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피다, 뉘다, 띄다, 뵈다, 씌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 | | |
|-----------------|---------------------------------|
| ㄱ. (쏘- + -이- →) | 쏘이다 ~ 췌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췌었다}. |
| ㄴ. (꼬- + -이- →) | 꼬이다 ~ 꺾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꺾었다}. |
| ㄷ. (눕- + -이- →) | 누이다 ~ 뉘다: 아이를 침대에 {누였다/뉘었다}. |
| ㄹ. (뜨- + -이- →) |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었다}. |
| ㅁ. (쓰- + -이- →) | 쓰이다 ~ 씌다: 글씨가 {쓰여/씌어} 있는 공책. |

다만, ‘고이다/꺾다’의 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만, ‘고인돌’은 쓸 수 있고 ‘권돌’은 쓸 수 없다.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기인한 것이다.

2.25. 아니꼬워/*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ㅂ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ㅍ’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곶-[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곶-’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 | | | | | | |
|---------|-------|-------|-------|--------|-------|
| ㄱ. 가깝다: | 가깝고 | 가깝지 | 가까워 | 가까우니 | 가까운 |
|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고 | 자랑스럽지 | 자랑스러워 | 자랑스러우니 | 자랑스러운 |
| ㄴ. 곶다: | 곶고 | 곶지 | 고와 | 고우니 | 고운 |
| 돕다: | 돕고 | 돕지 | 도와 | 도우니 | 도운 |

2.26. 아니요/아니오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 ㄱ. 아니(부사, 안): 밥을 아니(안) 먹다. / 아니(안) 슬프다.
- ㄴ. 아니(감탄사): 밥 먹었니? → 아니, 아직 못 먹었어. / 응,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 [아니요(아뇨)], 아직 못 먹었어요.
 / 예, 먹었어요.
- ㄷ. 아니다(형용사): 직원이 {아니야/아니오/아닙니다/아니었어}. /
 직원이 아닌 사람

ㄱ.의 ‘아니’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 ‘아니’는 줄어들어 ‘안’으로도 쓰인다. ㄴ.의 ‘아니’는 긍정·부정을 물어보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감탄사로 분류된다.(이 ‘아니’는 ‘안’으로 줄어들 수 없다.)

ㄷ.의 ‘아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체의 어미 ‘-야’, 하오체의 어미 ‘-오’, 합쇼체(하십시오체)의 어미 ‘-입니다’ 등의 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도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인다.(이 ‘아니다’ 역시 ‘안’으로 줄어들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ㄴ.의 ‘아니’(감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반대말로 쓰는 [아니요]라는 말은 감탄사 ‘아니’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에 ‘예/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니요’를 써야 한다. ‘아니요’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 ‘요’와 ‘오’의 구분 방법

국어의 특성상 조사(격조사, 보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말이 되지만(ㄴ. 참조) 용언에 결합하는 어미는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ㄷ. 참조). 한편, 보조사는 다른 조사와 겹칠 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도 두루 결합될 수 있다(ㄷ.~ㅅ. 참조).



- ㄱ. 나는 밥을 먹었어. / 철수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ㄴ. 나 밥 먹었어. / 철수 시골 다녀왔습니다. → (보)조사 생략
 ㄷ. 나는 밥을 {*먹/*먹었} / 철수 시골 {*다녀오/*다녀왔습니다} → 어미 생략
 ㄹ. 철수가요 어제는데요 학교에서도요 만화책을요 보았어요. → 조사 겹침 / 해요체
 ㅁ. 비행기가 {빨리도/빨리만/빨리는} 나는구나. → 부사 + 보조사
 ㅂ. 그런 소문을 {들어도/들어만/들어는} 보았어. → 동사 + 보조사
 ㅅ. 그는 친구를 {좋아도/좋아만/좋아는} 한다. → 형용사 + 보조사
 ㅇ. 이리로 왔으오. / 좋도록 하오. / 이 문을 여시오.
 ㅈ. 이리로 왔아요. / 좋도록 해요. / 이 문을 열어요.

그런데 ‘요’는 해요체의 보조사이고 ‘-오’는 하오체의 어미이므로, ‘요’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어미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차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그 ‘요/오’를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 ‘요’가 쓰인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어미 ‘-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ㅇ.에서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모두 비문이 되지만 ㅈ.에서는 ‘요’를 생략하더라도 해요체에서 해체로 존대의 등급은 낮아지지만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공책이다.”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내 책이요.”처럼 ‘이오’(서술격 조사 ‘이-’ + 하오체 어미 ‘-오’)를 쓴다(한글 맞춤법 제15항).

2.27. 아무튼/*아뭇튼(한글 맞춤법 제40항)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뭇-’에 어미 ‘-든’이 결합한 형태만 쓰이고 그 이외의 활용형은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참고]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하지만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2.28. 안/않-

“다시는 담배를 안/*않 피우겠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 /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ㄴ. 안 보이니? / 보이지 않니?

2.29. 안치다/않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앓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찹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는 뜻으로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와 같이 쓰인다. 반면 ‘앓히다’(‘앓다’의 사동형)는 ‘앓게 하다’의 뜻이므로 ‘아이를 자리에 앓히다’와 같이 쓰인다.

2.30. 어떡해/어떻게/*어떻해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력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력하나 저럭하나 혼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로 써야 한다.

[참고]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2.31. 웬지/*웬지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참고]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2.32. 이에요/이어요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에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네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에요’, ‘*아니여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에요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어요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수기예요]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이에요’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예요 → 영숙이예요’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이예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이에요 → 영희예요 영희 + 이어요 → 영희이어요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이에요 → 집이에요 집 + 이어요 → 집이어요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이에요 → 회사예요 회사 + 이어요 → 회사이어요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이)예요 → 아니예요(아녜요) 아니 + (이)어요 → 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예요/*아니여요’는 잘못.

2.33. 있음/*있슴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떡- + -(으)ㅁ’일 때는 ‘*떡슴’이 아니라 ‘떡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읍니다, 떡읍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서 유추하여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2.34. 자랑스러운/*자랑스런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서 온 ‘자랑스러운’과 ‘부끄러운’은 ‘*자랑스런’과 ‘*부끄스런’으로 줄지 않는다. 이는 ‘깁다, 늡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의 활용형인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가 ‘*긴, *눈, *준, *가깁, *무견, *쉬’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35. 치러/*치뤘 (한글 맞춤법 제18항)

‘(시험을) 치르다’는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뤘, *치뤘다’로, 심지어는 *칠렀다’처럼 쓰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궜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궜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ㄱ. 시험을 {치르/*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뤘다}.
- ㄴ.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궜/*담아}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굴/*담을} 필요가 없었다.
-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궜다/*담겼다}.
- ㄷ.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군}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궜라}.

2.36. 통틀어/*통털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털다’가 아니라 ‘통틀다’이다. ‘통틀다’는 현대국어에서 그 활용에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말로 주로 ‘통틀어(서), 통틀고, 통틀면’ 정도의 예만 보인다. 또한 활용형 ‘통틀어’는 현대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 ㄱ. 있는 돈을 통틀면 모두 5만 원쯤 됩니다.
부여와 공주를 통틀고 나서도 아직 3천에선 2백여 명이 모자랐다.
〈이청준, 춤추는 사제〉
- ㄴ. 이사하는 데 통틀어 2백만 원이 들어갔다.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릴 통틀어 경멸하는 소리는 삼가 쥐. 〈박완서, 도시의 흥년〉



2.37. 퍼레지다/*퍼레지다

‘ㅎ’ 발음을 가진 색채 형용사들은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 ‘-어/-아’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퍼렇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퍼렇- + -어 → 퍼레’, ‘퍼렇- + -으니 → 퍼러니’ 등으로 활용하고, ‘하얏다’는 ‘하얏- + -아 지다 → 하애지다’, ‘허엿다’는 ‘허엿- + -어 지다 → 허예지다’와 같이 활용한다.

기본형	-고	-지	-(으)ㄴ	-(으)니	-어/아	-었/았-	-(으)니?(의문)
까맣다	까맣고	까맣지	까만	까마니	까매(지다)	까맸다	까맣니/까마니?
꺼멩다	꺼멩고	꺼멩지	꺼먼	꺼머니	꺼메(지다)	꺼뻤다	꺼멩니/꺼머니?
빨갡다	빨갡고	빨갡지	빨간	빨가니	빨개(지다)	빨갸다	빨갡니/빨가니?
빨징다	빨징고	빨징지	빨긴	빨거니	빨게(지다)	빨졌다	빨징니/빨거니?
하얏다	하얏고	하얏지	하얀	하야니	하애(지다)	하앸다	하얏니/하야니?
허엿다	허엿고	허엿지	허연	허여니	허예(지다)	허엿다	허엿니/허여니?



한글 맞춤법의 실제

1. 두음 법칙

1.1. 난/란, 량/양

① 답난	답란	答欄
② 가십난	가십란	gossip欄
③ 어린이 난	어린이란	어린이 欄
④ 생산양	생산량	生産量
⑤ 알칼리 양	알칼리량	alkali 量
⑥ 기름 양	기름량	기름 量
⑦ 회계 연도	회계년도	
⑧ 생산 연도	생산년도	

☞ ‘난/란’, ‘량/양’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외래어인지로 구분된다.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일 때는 그대로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한자어	고유어나 외래어
난/란	독자란, 답란, 의견란	어머니 난, 어린이 난, 가십난
량/양	수입량, 수출량, 생산량	구름양, 벡터양, 스칼라양

1.2. 률/율

① 합격률	합격율	合格率
② 기준률	기준율	基準率
③ 감소률	감소율	減少率



☞ ‘ㄹ/을’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받침에 따라 구분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ㄴ’이면 ‘을’로 적고, ‘ㄴ’ 이외의 받침으로 끝나면 ‘ㄹ’로 적는다.

1.3. 기타

① 반립자	반입자	反粒子
② 소립자	소입자	素粒子
③ 몰럼치	몰염치	沒廉恥
④ 파렴치	파염치	破廉恥
⑤ 오뉴월	오유월	五六月
⑥ 삼십륙	삼십육	三十六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파생어)이나 합성어와 명사구에는 뒷말(제2 구성 요소)의 첫소리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예: 반입자, 몰염치, 역이용/ 연이울, 열역학, 해외여행/ 회계연도, 생산연도, 삼십육 등)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그대로 표기에 굳어진 것도 있다.

[생각할 문제]

· 성씨나 이름을 쓸 때도 두음 법칙에 따라야 하나요?

2. 사이시옷

2.1. ~국

① 김치국	김칫국 [--ㅅ]
② 고기국	고깃국 [--ㅅ]
③ 선지국	선짓국 [--ㅅ]
④ 북어국	북엇국 [--ㅅ]

⑤ 만두국 만두국 [--ㅈ]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2.2. ~말

① 혼자말	혼잣말 [혼잔말]	혼잣속, 혼잣소리
② 뒤말	뒷말 [뒤말]	뒷가지, 뒷감당
③ 시체말	시čet말 [시첸말]	시체병(유행병)
④ 머리말[머리말]	머릿말 [머린말]	머릿돌
⑤ 인사말[인사말]	인삿말 [인산말]	인사치레
⑥ 나라말[나라말]	나랏말 [나란말]	나랏돈, 나랏일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ㅁ’ 일 때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
잇몸[인몸], 빗물[빈물]

2.3. ~방

① 빨래방	빨랫방 [--ㅁ]	빨랫감
② 노래방	노랫방 [--ㅁ]	노랫말
③ 가게방	가꺄방 [--ㅁ]	
④ 구두방	구똥방 [--ㅁ]	
⑤ 공부방	공똥방 [--ㅁ]	공똥벌레
⑥ 전세방	전셋방 [--ㅁ]	전셋집, 셋방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백지장(白紙張), 기차간(汽車間)

☞ ‘한자어+한자어’ 구성이지만 사이시옷이 붙는 것이 있다.(6개)

곳간, 찻간, 뒗간, 셋방, 숫자, 횃수

2.4. 위/윗

- | | |
|------|----|
| ① 위면 | 윗면 |
| ② 위옷 | 윗옷 |
| ③ 위쪽 | 윗쪽 |
| ④ 위층 | 윗층 |

☞ 합성어에서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ㄱ, ㄷ, ㅃ, ㅆ)이거나 거센소리(ㅋ, ㅌ, ㅍ)이면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 위·아래의 구분이 있으면 ‘위-’나 ‘윗-’을 쓰고 위·아래의 구분이 없으면 ‘옷-’을 쓴다.

웃어른, 웃돈, 웃국¹⁾

2.5. 외래어

- | | |
|-------|-----------|
| ① 장미빛 | 장밋빛 [--뻔] |
| ② 핑크빛 | 핑크빛 [--뻔] |
| ③ 고기집 | 고깃집 [--쩍] |
| ④ 피자집 | 피자집 [--쩍] |

☞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2.6. 수학 용어

1) 웃국: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서 익힌 뒤에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



① 꼭지점	꼭짓점	
② 소수점(小數點)	소숫점	
③ 대표값	대표값	대표치
④ 절대값	절댓값	절대치
⑤ 최소값	최솟값	최소치
⑥ 최대값	최댓값	최대치
⑦ 근사값	근삿값	근사치
⑧ 고유값	고유값	고유근, 고유치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생각할 문제]

- ‘햇님’과 ‘해님’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 도로명 ‘개나리길’은 ‘개나릿길’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3. 활용

3.1. ‘날다’와 ‘거칠다’의 활용

- ① 나는 하늘을 {나는/날으는} 슈퍼맨이다.
- ② {거친/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 ③ {낯선/낯설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연은 보통 바람이 불 때 잘 {날/날음}.
- ⑤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몹시 {낯설/낯설음}.

☞ ‘ㄴ’ 받침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ㄴ’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예: -는, -느냐, -니, -니까, -네, -시다, -시니, -시고, -십시오, -지구



려, -소, -소서, -세 등)가 결합하면 어간의 ‘ㄹ’이 떨어진다.

날- + -는 ⇒ 나는

알- + -는 ⇒ 아는

거칠- + -(으)ㄴ ⇒ 거친

낮설- + -(으)ㄴ ⇒ 낮선

☞ 명사형 어미 ‘-ㅁ/음’은 결합하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받침이 없는 용언의 어간이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는 ‘-ㅁ’이 붙고 받침이 있는 어간에는 ‘-음’이 붙는다.

가- + -ㅁ ⇒ 감

예쁘- + -ㅁ ⇒ 예쁨

날- + -ㅁ ⇒ 낯

낮설- + -ㅁ ⇒ 낮센

먹- + -음 ⇒ 먹음

좋- + -음 ⇒ 좋음

3.2. ‘맞다’와 ‘알맞다’의 활용

① 내 육감은 잘 {맞는/맞은} 편이다.

② 그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않은} 것 같다.

③ 이 집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않은} 적이 없다.

④ 빈칸에 {알맞는/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⑤ 학생 신분에 알맞지 {않는/않은} 옷차림

⑥ 분위기에 {걸맞는/걸맞은} 옷차림

☞ ‘맞다’와 ‘알맞다, 걸맞다’는 품사가 달라서 활용하는 모습도 다르다. ‘맞다’는 동사이고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가 결합하면 ‘맞다’는 ‘맞는’이 되고 ‘알맞다, 걸맞다’는 ‘알맞은, 걸맞은’이 된다.

맞- + -는 ⇒ 맞는

가는 사람, 먹는 곳

알맞- + -은 ⇒ 알맞은

예쁜 사람, 좋은 곳

☞ ‘-지 않다’에서 보조 용언 ‘않다’의 품사는 앞에 오는 말의 품사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않는 옷

가지 않는 사람

3.3. ‘되다’의 활용

- | | |
|--------------------------------|------|
| ① {뒀으니까/뒀으니까} 그만 가자. | 했으니까 |
| ② 어서 의사가 {되라/돼라}. | 해라 |
| ③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라고/돼라고} 기도했다. | 하라고 |
| ④ 의사가 {되니까/돼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 하니까 |

☞ ‘되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되어’가 되고 ‘되어’가 줄면 ‘돼’가 된다.

되- + -어서 ⇒ 되어서/돼서 되- + -었- + -다 ⇒ 되었다/뒀다

☞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으)라고’이므로 ‘되어/돼’가 될 수 없다.

되- + -(으)라고 ⇒ 되라고 되- + -어라 ⇒ 되어라/돼라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문어체)로 ‘-(으)라’를 쓸 수도 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써라.(쓰- + -어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라.(쓰- + -(으)라)

3.4. 명령형 어미

- ① 어서 집에 {가라/가거라}.
- ②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가져가거라}.
- ③ 여기 좀 앉아 {있어라/있거라}.
- ④ 피곤할 텐데 어서 {자라/자거라}.
- ⑤ 떠들지 {말아라/마라}.

☞ 해라할 자리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는 ‘-아라/어라’이다. 다만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해라할 자리에 ‘-거라’가 쓰일 수 있다. 참



고로 ‘-너라’는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 ‘말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말아, 말아라’가 아닌 ‘마, 마라’가 된다.

제발 떠나지 마.(말- + -아) 제발 떠나지 마라.(말- + -아라)

☞ 다만 문어체 명령형 어미 ‘-(으)라’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하면 ‘말라’가 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말- + -(으)라)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말- + -(으)라고 하는)

3.5. 어미 ‘-아/어’

① 보라색 옷과 함께 빨았더니 흰옷이 {파랗졌다/파레졌다}.

②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퍼랗졌다/퍼레졌다}.

③ 아이가 친구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진다/빨게진다}.

④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빨게져서} 들어왔다.

⑤ 누가 {그래/그레}?

☞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ㅓ’면 ‘-아’ 계열의 어미가 붙고 어간의 모음이 ‘ㅑ’나 ‘ㅓ’가 아니면 ‘-어’ 계열의 어미가 붙는다. ‘파랗다’의 어간에 ‘-아’가 붙으면 ‘파래’가 되고, ‘퍼렇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퍼레’가 된다.

파랑- + -아 ⇒ 파래 퍼렇- + -어 ⇒ 퍼레

빨강- + -아 ⇒ 빨개 벌렁- + -어 ⇒ 벌게

다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래, 그래, 저래’가 된다.

[잠깐] 색채어에 붙는 접두사 ‘시-/잇-/새-/셋-’도 뒤에 오는 말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어두음 \ 모음	양성모음	음성 모음
원소리, 거센소리, ‘ㅎ’	새빨갳다, 새파랗다, 새하얗다	시뻘겋다, 시퍼렇다, 시허얇다
울림소리	셋노랑다, 셋말갳다	싯누렇다, 싯털갳다

4. 된소리 표기

4.1. 단어 내부

- | | | |
|--------|------|----|
| ① 깎두기 | 깎뚜기 | |
| ② 딱다구리 | 딱따구리 | 딱딱 |
| ③ 안쓰럽다 | 안쓰럽다 | |
| ④ 눈곱 | 눈꼽 | |
| ⑤ 눈살 | 눈쌀 | |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오빠, 아끼다, 기쁘다, 해쓱하다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살짝, 훨씬, 움짤, 몽땅, 번쩍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국수, 짝둑, 딱지, 낙지, 납작하다

☞ ‘눈곱’과 ‘눈살’은 [눈꼽, 눈쌀]로 소리 나므로 ‘눈꼽, 눈쌀’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곱’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곱, 눈살’로 적는다.

곱: 여드름에 앓은 딱지가 떨어져 곱이 흐른다.

살: 주름살, 이맛살

4.2. 어미

- ① 나 집에 {갈게/갈께}.
- ② 아까 집에 같이 {갈걸/갈겔}.
- ③ 시간이 {갈수록/갈쭝록} 일이 더 힘들다.
- ④ 우리, 집에 {갈가/갈까}?



⑤ 이 일을 {어찌할꼬/어찌할꼬}?

☞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ㄹ까?, -ㄹ꼬?, -ㄹ쏘냐?
그렇지 않은 경우	-ㄹ게, -ㄹ걸, -ㄹ시, -ㄹ지, -ㄹ지언정, -ㄹ지라도

4.3. 겹쳐 나는 소리

- | | |
|--------|------|
| ① 꽃꽃하다 | 꽃꽃하다 |
| ② 쓱쓱쓱 | 쓱쓱쓱 |
| ③ 쓱쓱하다 | 쓱쓱하다 |
| ④ 유유상종 | 유류상종 |

[생각할 문제]

· ‘낭랑하다, 녹록하다’를 보면 ‘누루이’로 쓸 것 같은데 왜 ‘누누이’로 적을까요?

5. 박이/배기/빼기

5.1. 박이/배기

- | | | |
|---------|-------|-------------------------------------|
| ① 두 살박이 | 두 살배기 | |
| ② 차돌박이 | 차돌배기 | |
| ③ 장승박이 | 장승배기 | 장승감으로 박아서 세워 두는 물건. 또는 그것이 세워져 있는 곳 |
| ④ 알박이 | 알배기 |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 |

☞ ‘박이’와 ‘배기’의 구분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박다’의 의미가 남아 있

는 것은 ‘-박이’를 쓰고 ‘박다’의 의미에서 떨어진 것은 ‘-배기’를 쓴다.

-박이	점박이, 금니박이, 텃니박이, 불박이, 장승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란 뜻.)
-배기	다섯 살배기(‘그 나이를 먹은 아이’란 뜻), 나이배기(‘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그런 물건’의 뜻)

5.2. 배기/빼기

- | | | |
|--------|------|------------------|
| ① 진짜배기 | 진짜빼기 | |
| ② 이마배기 | 이마빼기 | |
| ③ 육자배기 | 육자빼기 | |
| ④ 악착배기 | 악착빼기 | |
| ⑤ 뚝배기 | 뚝빼기 | |
| ⑥ 곱배기 | 곱빼기 | 곱: 네 곱, 다섯 곱의 고통 |

☞ ‘배기’와 ‘빼기’의 구분은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배기]로 소리 나는 것은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다만 ‘뚝배기’처럼 한 형태소(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내부에서 ‘ㄱ, ㅂ’ 받침 뒤에 쓰인 ‘ㅂ’이 된소리로 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빼기’로 적지 않고 ‘배기’로 적는다.

~배기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	주정배기(=주정뱅이), 혀짚배기(=혀짜래기)
	한 형태소 내부,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뚝배기, 학배기(잠자리의 애벌레)
~빼기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1. ‘그런 특성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2.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곱빼기, 밥빼기(동생이 생긴 뒤에 샘내느라고 밥을 많이 먹는 아이), 억척빼기, 코빼기,

[생각할 문제]

- 서울 상도동에 있는 지명 ‘장승배기’는 ‘장승박이’와 다른 것일까요?



6. -이/히

- ① 깨끗이[깨끗이] 깨끗히[깨끗히→깨끗치]
- ② 깊숙이[깊숙이] 깊숙히[깊숙히]
- ③ 솔직이[솔직히] 솔직히[솔직히]

☞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발음이다.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 사전을 확인해 봐야 한다.

- 1) ‘ㅅ’ 받침 뒤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 2)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이나 ‘ㅂ’ 불규칙 용언 뒤
같이, 굳이, 깊이, 많이, 실없이, 가벼이, 기꺼이, 너그러이, 즐거이, 새로이
- 3) 부사 또는 일부 어근 뒤
더욱이, 오뚝이, 우뚝이, 일찍이, 허죽이, 깊숙이
(대조: 딱히, 극히, 급히, 솔직히)
- 4) 첩어 또는 준첩어 명사 뒤
간간이, 나날이, 곰곰이, 번번이, 곳곳이, 째째이, 철철이

7. 이에요/이어요

- ① 학생이에요 학생이어요
- ② 친구예요 친구어요
- ③ 김진석이에요 김진석이어요
- ④ 김진수예요 김진수어요
- ⑤ 영숙이에요 영숙이어요
- ⑥ 아니에요(아녜요) 아니어요(아녀요)



☞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 ‘이다’에 ‘-예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가 되고, 받침 없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학생이에요’처럼 쓸 수 없고 ‘학생이에요’나 ‘학생이어요’로 써야 맞다.

☞ 사람 이름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이어요’가 붙고 (예: 김진석이에요, 김진석이어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 여요’가 붙는다 (예: 김진수예요, 김진수여요). ⑤의 ‘영숙이에요, 영숙이어요’는 ‘영숙이’ [-이: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예) 갑돌이, 갑순이])에 ‘예요, 여요’가 붙은 것이다.

☞ ‘아니다’의 어간에 ‘-예요, -어요’가 붙으면 ‘아니예요, 아니어요’가 되며 이들은 ‘아녜요, 아녀요’로 줄 수 있다.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8.1. -던/든

- ① 예전에 {먹던/먹든} 음식
- ② 내일 {가던지/가든지} 해라.
- ③ 철수가 {뛰라던가/뛰라든가}?

☞ ‘-던’과 ‘-든’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의미가 다른 말이다.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든’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던’이 들어 있는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등도 모두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8.2. 그리고 나서

- ①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차를 마셨다.



②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그리고는} 차를 마셨다.

☞ ‘-고 나서’는 ‘가고 나서, 먹고 나서’처럼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 동사 ‘그러다’의 어간에 ‘-고 나서’가 붙은 말이므로 ‘그리고 나서’로 쓰는 것이 맞다.

☞ ‘-고는’도 ‘먹고는, 쉬고는, 말하고는’처럼 ‘-고’ 앞에 동사의 어간이 온다. 그러므로 ‘그리고는’이 맞다.

8.3. 하므로/함으로

①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공부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② 그는 신문 배달을 {하므로/함으로(써)} 자신의 학비를 마련한다.

☞ ‘하므로’는 ‘하다’의 어간에 이유·원인의 연결 어미 ‘-(으)므로’가 붙은 말이고,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수단·방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은 말이다.

8.4. 떼다/떠다/띄다

① 선거가 끝나면 벽보를 {떼기로/띄기로} 했다.

② 미소를 {띤/띄} 얼굴

③ 멀리서도 눈에 {띤다/띄다}.

☞ ‘떼다, 떠다, 띄다’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뜻이 다르다.

떼다	벽보를 떼다, 한글을 떼다, 젓을 떼다, 눈을 떼다, 입을 떼다
떠다	허리띠를 떠다, 임무를 떠다, 미소를 띄다, 홍조를 띄다
띄다	① 눈에 띄다(뜨이다). ② 두 줄을 띄다(띄우다)

◆ 정 답 ◆

1. 두음 법칙

- 1.1. ①답란 ②가십난 ③어린이 난 ④생산량 ⑤알칼리 양 ⑥기름 양 ⑦회계 연도
⑧생산 연도
- 1.2. ①합격률 ②기준율 ③감소율
- 1.3. ①반입자 ②소립자 ③물염치 ④파렴치 ⑤오뉴월 ⑥삼십육

2. 사이시옷

- 2.1. ①김칫국 ②고깃국 ③선짓국 ④북엇국 ⑤만듯국
- 2.2. ①혼잣말 ②뒋말 ③시쳇말 ④머리말 ⑤인사말 ⑥나라말
- 2.3. ①빨래방 ②노래방 ③가켓방 ④구둣방 ⑤공부방 ⑥전세방
- 2.4. ①윗면 ②윗옷 ③위쪽 ④위층
- 2.5. ①장밋빛 ②핑크빛 ③고깃집 ④피자집
- 2.6. ①꼭짓점 ②소수점 ③대푯값 ④절댓값 ⑤최솟값 ⑥최댓값 ⑦근삿값 ⑧고웁값

3. 활용

- 3.1. ①나는 ②거친 ③낮선 ④넓 ⑤낮췄
- 3.2. ①맞는 ②얕는 ③얕은 ④알맞은 ⑤얕은 ⑥결맞은
- 3.3. ①됐으니까 ②돼라 ③되라고 ④되니까
- 3.4. ①가라/가거라 ②가져가라/가져가거라 ③있어라 ④자라 ⑤마라
- 3.5. ①파래졌다 ②퍼레졌다 ③빨개진다 ④빨게져서 ⑤그래

4. 된소리 표기

- 4.1. ①깍두기 ②딱따구리 ③안쓰럽다 ④눈곱 ⑤눈살
- 4.2. ①갈게 ②갈걸 ③갈수록 ④갈까 ⑤어찌할꼬
- 4.3. ①끗끗하다 ②쓱쓱하다 ③쑤쑤하다 ④유유상종

5. 박이/빼기/빼기

- 5.1. ①두 살배기 ②차돌박이 ③장승박이 ④알배기
- 5.2. ①진짜배기 ②이마빼기 ③육자배기 ④악착빼기 ⑤뚝배기 ⑥곰빼기

6. -이/히



①깨끗이 ②깊숙이 ③솔직히

7. 이에요/이에요

①학생이에요/학생이에요 ②친구예요/친구예요 ③김진석이에요/김진석이에요
④김진수예요/김진수예요 ⑤영숙이에요/영숙이에요 ⑥아니예요/아니어요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 8.1. ①먹던 ②가든지 ③뭘라던가
8.2. ①그리고 나서 ②그리고는
8.3. ①공부하므로 ②함으로(써)
8.4. ①떼기로 ②뎌 ③뵈다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원리

띄어쓰기 원리는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¹⁾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자립성과 의존성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1)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1) 띄어쓰기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을 만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다. 국어사전 찾기를 불편해한다면 컴퓨터의 한글 문서 편집기에 들어 있는 문서 교정 기능을 이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문서 편집기는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아 놓아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2)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3) ㄱ. 무얼 보니? 하늘
 ㄴ. 어딜 가니? 바다

(3)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 (4)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4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4ㄴ)의 ‘-습니다’는 ‘먹-’에, (4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을 띄어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 (5) ㄱ. 서울에서처럼만
 ㄴ. 좋-습니다그러

(5ㄱ)의 ‘에서’, ‘처럼’, ‘만’과 (5ㄴ)의 ‘-습니다’, ‘그러’는 모두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만 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가 바로 그것이다.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말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6)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 (6) 먹을 것(밥)이 없다.

국어에서 의존적인 요소로는 ‘어미, 조사,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에는 의존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띄어쓰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7) ㄱ. 개-
 ㄴ. -었-
 ㄷ. -는구나

위의 ‘개-’는 ‘개살구’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었-’은 ‘먹었다’와 같이, ‘-는구나’는 ‘먹는구나’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띄어쓰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립적인 요소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 (8) ㄱ.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ㄴ. 철수는 말로는 언제나 큰소리만 친다.

(8ㄱ)의 ‘큰 소리’와 (8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것이지만 ‘큰소리’는 소리가 큰 것과는 관계없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9) ㄱ. 철수가 시험에 안 났어.

ㄴ. 그래서 모두 철수가 안돼 보인다고 했구나.

(9ㄱ)의 ‘안 되다’는 ‘되지 않다’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9ㄴ)의 ‘안되다’는 ‘안쓰럽다’의 의미다. ‘안’과 ‘되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안되다’는 띄어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긴 ‘안되다’는 붙여 쓴다.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10)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11) ㄱ.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돌아(서)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12) 서류를 찢어V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3)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V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4) ㄱ.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 간다.

ㄴ.*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서 간다.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14ㄴ)처럼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 (15) ㄱ. 뜻을 이룬다. → 뜻이 이루어진다.
 ㄴ.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한다.

‘뜻이 이루어진다’나 ‘꽃을 예뻐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뜻이 이루어진다’와 ‘꽃을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3. 조사의 띄어쓰기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룬다. 그렇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 | |
|----------------|----------|
| (16) 겹침: 집에서처럼 | 학교에서만이라도 |
| 여기서부터입니다 | 너마저도 |
| 어미: 나가면서까지도 | 들어가기는커녕 |
| 갈게요 | “알았다.”라고 |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 (17) ㄱ.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너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너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서술어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 (18)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많다. ‘뿐만’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가 옳다. ‘뿐만’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²⁾

- (20) ㄱ. 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

2) 요즈음 ‘뿐만 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4.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미와 의존 명사는 겹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갖추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1) ㄱ.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21ㄱ)의 ‘-는데’는 하나의 어미이고 (21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³⁾

- (22) ㄱ. 학교에 가는데에 (결합 불가능)
 ㄴ. 이 일을 하는 데에..... (결합 가능)

‘학교를 가는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붙여 쓰고 ‘이 일은 하는 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다음도 ‘에’를 상징할 수 있어서 ‘데’를 띄어 쓰는 경우다.

- (23)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바’도 두 가지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3)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 (24)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 없다.

(24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4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 (25)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5)를 ‘도착했는V지’로 띄어 쓰는 것은 잘못이고 ‘도착했는지’로 붙여 써야 옳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ㄴ지’가 하나의 어미라는 문법적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25)와 (26)이 의미가 같고 띄어쓰기 또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26)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국어의 화자 중에 ‘도착했는가’를 ‘도착했는 가’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했는가’와 ‘도착했는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했는지’로 붙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ㄴ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할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할까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면 아래와 같이 ‘ㄴ’과 ‘지’를 띄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8)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28)의 ‘떠난 지’는 문법적으로 관형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로 ‘시간의 경과’를 뜻하며 띄어 쓴다는 점에서 (25)의 ‘-ㄴ지’ 구성과는 다르다.

이 둘의 띄어쓰기는 틀리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25)의 ‘도착했는지’는 ‘도착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반면 (28)의 ‘떠난 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는 ‘간’과 ‘만’이 있다. ‘간’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고 ‘만’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지만 ‘거리’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지’나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29) ㄱ. 한 달간, 십 년간 (시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30) ㄱ. 칠수만 오너라. (한정)

ㄴ. 키가 형만 하다. (비교)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다’,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31) ㄱ.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ㄴ.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인다.

(3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 V 하다.

ㄴ. 음악이 들을 V 만하다/들을만하다.

‘송아지만 V 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⁴⁾ ‘들을 V 만하다/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 되 붙일 수도 있다.

의존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 띄어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ㄹ 것’의 띄어쓰기는 ‘ㄹ 것’으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3) ㄱ. 나중에 후회할 것.

ㄴ. 후회할 것 왜 그랬니?

(33ㄱ)의 ‘후회할 것’은 ‘-ㄹ 것’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으로 풀 수 없다. 그렇지만 (33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할 것’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것’로 띄어 쓴다.

(34) ㄱ. 사랑을 할 거야(←할 것이야)

ㄴ. 내일 뭐 할 거니(←할 것이니)

이러한 점은 ‘터’가 들어 있는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터인데’, ‘갈 터이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텐데’와 ‘갈 테야’로 띄어 쓴다.

(35) ㄱ. 비가 와야 할 텐데(←할 터인데)

ㄴ. 나는 집에 갈 테야(←갈 터이야)

4)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보조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6) ㄱ. 각(各)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부처, 각 지방
 ㄴ. 고(故) 홍길동/고인(故人), 귀(貴) 회사/귀사(貴社)
 ㄷ. 동(同)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ㄹ. 만(滿) 나이, 만 15세
 ㄴ. 매(每) 경기, 매 회계 연도, 별(別) 사이가 아니다.
 ㄷ. 연(延) 10만 명, 전(全) 국민
 ㄸ. 갖은 양념, 탄 일, 맨 꼭대기, 못 백성, 새 신, 온 식구
 ㄹ. 온 사람이 몇 명이나?

(36ㄴ)에서 ‘고 홍길동’과 ‘고인’의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고인’의 경우 ‘인(人)’이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이므로 띄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 회사, 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수 표현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37)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살’과 결합할 때는 ‘스물여섯∨살’로 띄어 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다.

(38) ㄱ. 스물여섯∨살

ㄴ. 26∨살(원칙)/26살(허용)

즉 한글로 적는 경우에는 ‘스물여섯∨살’만 가능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경우에는 ‘26살’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아라비아 숫자와 다음의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현실의 직관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6∨살’보다는 ‘26살’로 쓰는 일이 많다.

아래와 같이 ‘제-’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의 띄어쓰기 또한 혼동하는 일이 많다.

(39) ㄱ. 제2∨차 회의(원칙)

ㄴ. 제2차 회의 (허용)

ㄷ. 제∨2차 회의(잘못)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39ㄱ)이 원칙이고 (39ㄴ)은 허용된다. (39ㄷ)처럼 쓰는 일이 많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다음의 단위 명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전문어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일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 항)”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0)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V미륵보살V반가V사유상

(40ㄱ)과 (40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41)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 항)”라고 되어 있다. 단위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띄어쓰기 직관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42) ㄱ. 서울V대학교V의과V대학V부속V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V의과대학V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42ㄱ)보다 (42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

5)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V현대V미술관’, ‘국립V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V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서는 위의 (42)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는 고유 명사지만 이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43) 이순신/이충무공, 황보민/황보 V 민

사람의 성과 이름은 언제나 붙여 쓴다. 호가 올 경우도 마찬가지다. 띄어 쓸 수 있는 경우는 ‘황보민’과 같이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외래어 인명은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르되 관용에 따른 띄어쓰기도 허용한다.

(44) ㄱ. 돈 V 조반니/돈 V 카를로스, 돈키호테/돈키호테형 인물
 ㄴ. 모택동/마오쩌둥, 도요토미 V 히데요시

지명은 우리나라 지명과 외래어가 포함된 지명의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45) ㄱ.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ㄴ. 태백-산, 소백-산맥, 낙동-강, 태안-반도, 나주-평야
 ㄷ. 아칸소 V 주, 카리브 V 해/동지나해(東支那海)
 ㄹ. 이탈리아 V 어/이탈리아어, 이태리어(伊太利語)

‘카리브 V 해’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외래어와 외래어가 아닌 요소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V 어’는 띄어 쓸 수 있지만 ‘이태리어’는 띄어 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8. 외래어의 띄어쓰기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 (46)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 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림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아래의 예는 준말이나 음운론적 융합이 일어난 말로 이때에도 붙여 쓴다.

- (47) 애드벌룬(ad balloon), 에어컨(air conditioner), 리모컨(remote control), 오므라이스(omlet rice), 오토바이(auto bicycle), 오피스텔(office hotel)/아이큐(IQ)



구별해야 할 말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말들,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말들은 언어생활에서 자주 혼동을 일으킨다. 다음은 의미나 용법을 잘 구별해야 할 말들을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7장에 나오는 예들과 일부 한자어 중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말들을 살펴보겠다.

1. **가름** (따로따로 나누는 일. (예) 셋으로 가름.)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예)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2. **목거리** (목이 붓고 아픈 병. (예) 목거리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다.)
목걸이 (귀금속이나 보석 따위로 된, 목에 거는 장신구. (예) 금 목걸이)
3. **떼거리** (1. 떼[무리]의 속어. (예) 야간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다.
 2. 떼[생떼]의 속어. (예) 장난감을 사 달라고 떼거리를 쓰는 아이)
떼거리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 천재지변 따위로 줄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리가 되었다.)
4. **거치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났다. (예) 대전을 거쳐 서울에 왔다./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에 입학하다.)
견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가 거두어지다. (예) 수재의 연금이 잘 견히다.)
5. **견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헤아려 짐작하다. (예)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예) 걸잡아서 닷새 걸릴 공사.)

6. **늘이다** (물체의 길이를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예) 엇가락을 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

늘리다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게 하다./ 살림을 이전보다 더 넉넉하게 하다./ 시간이나 기간을 이전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예) {바짓단/ 수출량/ 학생 수/ 세력/ 실력/ 재산/ 살림/ 시험 시간}을/를 늘리다.)

7. **다리다**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 (예) 양복을 다리다.)

달이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 (예) 간장을 달이다./ 보약을 달이다.)

8. **달히다** (‘달다’의 피동사. (예) 창문이 바람에 저절로 달히다.)

달치다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꼭꼭 또는 세게 달다. (예) 문을 광하고 힘껏 달치다.)

☞ ‘달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 ‘달치다’의 ‘-치-’는 ‘강세 접미사’이다.

9.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사. (예) 자전거가 승용차에 부딪혔다.)

부딪치다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예) 승용차와 승합차가 마주 부딪쳤다.)

☞ ‘부딪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고, ‘부딪치다’의 ‘-치-’는 ‘강세 접미사’이다.

10. **뼈치다** (성이 나서 토라지다. (예) 생일 선물을 하지 않았더니 아내가 뼈쳤다.)

뼈지다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자르다. (예) 국밥에 넣을 무를 뼈졌다.)



11. **저리다**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쭈시듯이 아프다. /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예)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몹시 저리다.)
- 절이다** ('절다'의 사동사.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게 하다. (예) 배추를 절이다.)
12. **조리다** (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간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국물을 바짝 끓이다. (예) 멸치를 간장에 조린다. 소고기 장조림)
- 줄이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예) 마음을 줄이다.)
13. **반드시** (틀림없이 꼭. (예)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예) 환자의 몸을 반듯이 눕어라./ 비너를 반듯이 찌르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다.)
14.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예) 이따가 오너라.)
- 있다가** ((있+-다가). (예) 대기실에 있다가 친구가 오면 함께 출발하자.)
- ☞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위 예의 '있다가'는 동사 '있-'에 어미 '-다가'가 결합된 형태이다.
15. **-노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친구 부친상에 문상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16. **-(으)러**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일하러 가다.)
- (으)러**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대학에 진학하러 한다.)

☞ ‘-(으)러’는 ‘가다’나 ‘오다’와 같은 말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으)려’는 ‘하다’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다.

17. **-(으)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그녀는 애인으로서는 매력적이지만, 신붓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으)로써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가 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상냥한 말 한 마디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 엄격한 매로써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집을 떠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된다.)

18. **-대**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김 교수는 말을 좀 어눌하게 하대./ 지리산은 과연 경치가 좋대.)

-대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다고 해’가 줄어든 말. (예) 왜 이렇게 일이 많대?/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숙희가 이번 달에 시집을 간대.)

19. **-던**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예) 이것은 원시인이 사용하던 돌도끼다./ 딸 때는 푸르던 토마토도 하루 이틀 후면 붉게 된다.)

-든 (둘 이상의 사물이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든지’의 준말. (예) 싫든 좋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어디에 살든 고향을 잊지는 마라.)

20. **결재** (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예) 사흘 전 기안한 전자 문서의 결재를 오늘에야 받았다.)



결제 (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 (예) 병원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21. **관여** (關與.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예)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졌다.)

간여 (干與. 관계하여 참견함. (예) 그 집안의 혼사는 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22. **보상** (報償.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3) 『심리』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질이나 칭찬. (예) 칠순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성공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보상 (補償.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 『법률』 주로 국가나 공공 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 금전, 물건 등을 제공하는 것. (예)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 보상금.)

배상 (賠償. 『법률』 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 물건 등을 지불하는 것. (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빌었다.)

23. **임대** (賃貸.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예) 이 건물 주인은 상가를 임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임차 (賃借.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예) 아파트 안의 상가를 임차해서 세탁소를 열었다.)

24. **자문** (諮問.¹⁾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예) 통일 정책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자문위원회를 둔다.)

고문 (顧問.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주로 국가, 공공 단체 등에 대하여 정책적 사항, 전문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조언·권고를 함. (예) 그는 우리 회사의 고문 변호사다./ 통일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고문회의를 둔다.)

1) 자문(諮問): 諮(물을 자), 問(물을 문). ‘자문’은 과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경우’에 썼지만 현대에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묻는 경우’에 씀. 비전문가가 일정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 ‘자문한다’고 하고, 이때 그 자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주는 기관을 ‘자문 기관’, 그런 일을 하는 개인을 ‘자문위원’(대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라 함.



[참고] 한글 맞춤법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결잡다	결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마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만드시	약속은 만드시 지켜라.
만듯이	고개를 만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홍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앓

앓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리다./^{*}저린다 (형용사)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동사)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 (으)ㄴ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ㅁ, - 음)으로(씨)(조사)	그는 믿음으로(씨) 산 보람을 느꼈다.



표준어 규정

1. 머리말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여기서는 ‘사투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릇(해산물), 돛꽂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짝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2.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어는 모든 국민의 언어생활을 통일하여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로 다른 지역 방언이나 특수어를 멋대로 쓴다면 한 나라 안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언어에서 분화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제각기 그 지방의 방언으로 주고받는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를 것이다. 이럴 때에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통일(統一)의 기능이라고 한다.

둘째, 표준어는 준법정신을 길러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표준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고정시킨 것이다. 때로는 어형(語形)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규범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일정한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문 규정도 교육(교과서), 행정(공문서) 등의 분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정(관련 내용이 ‘국어기본법’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므로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소한 규정이라도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느 사이에 준법정신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준거(準據)의 기능이라고 한다.

셋째, 표준어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어휘를



콜라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 훈련을 하여야 한다. 공적인 소통 상황에서 공공(남)을 배려하여 말하는 것은 교양을 갖추는 일이 된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표준어는 사투리를 쓰는 데서 오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도구적 용도 외에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는 통일의 기능을 비롯하여 준거의 기능,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 표준어 규정의 제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에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4.1. 표준어 사정 원칙

4.1.1. 제1장 총칙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제3장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은 표준어를 사정(査定)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 - 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사회적 조건). 표준어는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준어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요건이라 하겠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시대적 조건).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지역적 조건).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는 단시일에 결정할 수도 없고, 꽤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따로 지속적으로 사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정부가 고시하였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된 이후에 국어연구소(국립국어원 전신)에서 인명·지명 편(1986)과 일반 용어 편



(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도 동구권 인명·지명 편(1993)과 북구권 인명·지명 편(1995)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있는 외래어 표기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1998). 또한 1999년에 발간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사정된 외래어를 거의 다 싣고 있다.

4.1.2.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발음의 변화와 표기의 개정도 함께 수반되므로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4.1.2.1.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 나발꽃), 칸 (× 간), 털어먹다(× 떨어먹다)

이미 일반화된 것을 명문화하였다.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뀐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고유의 약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칸막이, 빈칸, 방한 칸’처럼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데 모두 ‘칸’으로 정하였다. ‘재물을 다 없앤다’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는데, ‘밑천을 털다, 도둑이 빈 집을 털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먼지 떨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제4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를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같이(× 가을카리), 분침(×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낭콩(× 강남콩), 사글세(× 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 부터 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강남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월세(月貰)’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 뒤흔), 둘째(× 두째), 셋째(× 세째), 빌리다(× 빌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뒤흔’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乞, 祝’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하였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 - ’로 통일한다.

수평(× 수평, 수평), 수놈(× 수놈), 수소(× 수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 수강아지), 수평아리(× 수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 - ’으로 한다.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역사적으로 ‘암 - 수’의 ‘수’는 명사 ‘술’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의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다만 1’은 받침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술’을 인정하되 표기에서는 받침 ‘ㅎ’을 독립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지만, 일단은 ‘다만 1’에서 제시된 단어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¹⁾ ‘다만 2’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인정하였다.²⁾

4.1.2.2. 제2절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 깡충깡충), -둥이(× -둥이), 오뚝이(× 오뚝이)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 × 부주), 사돈(查頓, × 사둔), 삼촌(三寸, × 삼춘)

국어는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충깡충’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깡충깡충’이다. 그런데,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충하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둥이’도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여 ‘-둥이’로 하였으므로 ‘쌍둥이, 귀염둥이, 막둥이’가 표준어이다.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뚝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항은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춘’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9항 ‘ㄹ’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 -나기), 냅비(× 남비)

1) ‘수컷’, ‘수캐’, ‘수강아지’, ‘수닭’, ‘수평아리’, ‘수뽕지’, ‘수탕나귀’, ‘수키와’, ‘수뿔찌귀’는 현대 국어에서 예외적으로 ‘수-’ 뒤에 오는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는다. 그러나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벌, 수뱀’ 등의 다른 단어들은 ‘수-’ 뒤의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지 않는다(표준어 규정 제7항 다만 1. 참조).

2) ‘숫-’은 제시한 세 단어에 국한하여 적용함. 유사한 음운 환경의 다른 어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의 단어는 ‘수-’로 표기한다. (예: 숫야크(×)/ 수야크(○), 숫여우(×)/ 수여우(○), 숫지네(×)/ 수지네(○)).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 미쟁이), 멧쟁이(× 멧장이)

‘ㅣ’ 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먹이다’까지 ‘손꺀잡이, 먹꺀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ㅣ’ 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를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신출나기, 쫓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을 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같은 사례로 ‘아기, 아비, 지팡이’는 표준어이고, ‘애기, 애비, 지뺑이’는 비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또한 붙임 2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匠人)에게는 ‘-장이’로, 그 외는 ‘-쟁이’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상당한 단어들이 ‘-쟁이’가 되었는데, ‘요술쟁이, 마술쟁이, 무식쟁이’가 그 예이다(표준어 모음). 따라서 ‘개구장이, 욕심장이’는 비표준어이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미루나무(× 미류나무), 으레(× 으레)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ㄴ, ㄷ, ㄱ, ㄹ’ 등의 원순모음을 평순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다. ‘확실히 → 학실히, 벼 → 베, 가위 → 가이’ 등이 그런 예이다. 위의 사례에서 든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



뀌었고 나머지도 모음이 단순화된 예들이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괴팍하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 단어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으므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다만, ‘팍하다’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표준어 모음).

제11항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 구료), 걱정이(× 걱정이), 나무라다(× 나무래다)
바라다(× 바래다), 상추(× 상치), 주책(× 주착), 튀기(× 트기)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를 모은 항목이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걱정이’는 ‘ㅣ’ 역행동화의 일종이나 ‘걱쟁이’가 아니라 ‘걱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여전히 ‘걱정이’이다.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램’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램’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 → 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제12항 ‘웃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 웃눈썹), 윗니(× 웃니), 윗도리(× 웃도리), 윗목(× 웃목),
윗배(× 웃배), 윗입술(× 웃입술), 윗자리(× 웃자리)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썩(× 웃썩), 위쪽(× 웃쪽), 위층(× 웃층), 위턱(× 웃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국(× 윗국), 웃돈(× 윗돈), 웃어른(× 윗어른), 웃웃(× 윗웃)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웃’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고자 한 결과이다. 이들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윗’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1’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맞춘 것이다. ‘다만 2’는 발음이 위낙 ‘웃’으로 굳은 단어들은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대체로 ‘윗목 - 아랫목’, ‘윗자리 - 아랫자리’처럼 ‘위 -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윗’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웃 - ’을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웃’으로 표기되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윗’으로 통일함으로써 ‘웃 - 윗’의 혼란을 거의 줄였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句節, × 귀절), 대구(對句, × 대귀), 시구(詩句, × 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 구글), 글귀(× 글구)

그동안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던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다. 따라서 ‘귀글, 글귀’는 예외로 하였다.

4.1.2.3. 제3절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파리(× 포아리), 무(× 무우), 생쥐(× 새앙쥐), 솔개(× 소리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또는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을 뿐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대부분 준말 형태를 인정한 이들 말 중 2음절이 1음절로 된 말은 대개 긴소리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 귀개), 부스럼(× 부럼),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아래로(× 알로)

본말과 준말 중에서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다만 ‘마음/맘, 미음/땀’은 복수 표준어이고, 정월 대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시누이/시누/시누, 외우다/외다, 찌꺼기/찌끼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이다. ‘외우다/외다’의 경우 종래에는 ‘외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인데 ‘외우다’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다. ‘머무르다/머물다’의 경우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머무르-고, 머물-고’처럼 자음 어미(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본말과 준말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모음 어미(- 어, - 어서, - 오 등)가 연결될 때는 ‘머무르-어(머물러)’로 써야지 ‘머물-어’로 쓸 수 없다. 이것은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어, 갖어라, 갖었다’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과 일관성 있게 다룬 것이다.

4.1.2.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고리³⁾(× 귀엣고리), 꼭두각시(× 꼭둑각시), 너(四, × 네)돈,



천장(× 천정), -(으)려고(× -(으)르려고), -습니다(× -읍니다)

약간의 발음 차이로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가 쓰이는 것들에서 더 많이 쓰이는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너/넉(四), 서/석(三)’은 예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던지’는 지난 일을 돌이켜 의심이나 원인 따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다만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쓴다. ‘-으려고’는 요즘 ‘먹으려고’처럼 ‘-으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⁴⁾’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꼭뎡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명사형 ‘있음, 없음’ 따위를 ‘있습, 없습’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와는 상관이 없다. 같은 예로 ‘떡다’의 명사형은 ‘떡음’이지, ‘떡습’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1.2.5. 제5절 복수 표준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 한 것이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꺾다/고이다, 꺾다/꼬이다, 죄다/조이다, 꺾다/쪼이다.

그동안은 ‘소+ㅣ(의)’인 ‘쇠-’와 ‘소-’를 모두 인정하여 ‘쇠고기, 소고기’ 모두가 표준어이다. 다른 사례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이다. ‘꺾다/고이다’의 명사형은 ‘꺾/고임’이며, ‘꺾임’은 쓰지 않는다. ‘고이다’와 ‘꺾다’가 모두 복수 표준어이긴 하지만 ‘고인돌(支石

3) 여자들이 컵볼에 다는 장식품을 가리킬 때는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쓸 수 있지만 귀를 감싸 막거나 귀에 거는 방한용품은 가리킬 때에는 ‘귀걸이’만 쓸 수 있다.

4) 천장(天障): 1. 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함.(=보죽). 2. 반자의 결면<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墓)’의 경우에는 ‘고인돌’로만 쓰며 ‘권돌’로 쓰지 않는다.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고까/꼬까, 고런내/코런내, 꺼림하다/끼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어감(語感)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나부랭이/너부렁이’에서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렁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1.3.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4.1.3.1.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 설겅다), 애달프다(× 애닭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설겅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 ‘설거지’도 ‘설겅-’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원래부터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명사 ‘설거지’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겅이’는 비표준어이다. ‘애닭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닭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닭으니, 애닭아서, 애닭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4.1.3.2.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 맹눈), 박달나무(× 배달나무), 사래논(× 사래답)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고봉밥(× 높은밥), 총각무(× 알타리무)

고유어라도 생명력을 잃은 것은 버리고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4.1.3.3.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쟁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원래 ‘우렁쟁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 때 애초의 표준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밑머리(× 컷머리), 빈대떡(× 빈자떡), 코주부(× 코보)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조항이나,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다. 가령 ‘빈자떡’은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4.1.3.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 낫우다), 광주리(× 광우리), 길잡이(× 길압잡이)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셋별(× 새벽별)
 술고래(× 술푸대),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입담(× 말담), 주책없다(× 주책이다), 청대콩(× 푸른콩)

제17항은 발음상으로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였음에 반해 여기에서 다루어진 단어들은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다.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語順)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不定辭)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4.1.3.5.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뭇/가물, 가엸다/가염다, 개숫물/설거지물, -거리다/-대다, 고깃간/푸줏간, 관계없다/상관없다, 꼬까/때때/고까, 녕쿨/덩굴, 뒷말/뒷소리, 만전/만청, 말동무/말벗, 별레/버러지, 뽕두라지/뽕루지, 서럽다/앓다, 신/신발, 아무튼/어쨌든/어쨌든/하어튼/여하튼,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이에요/-이어요,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책씻이/책거리, 혼자되다/홀로되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는 현실 언어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뭇/가물’ 중에서는 ‘가뭇’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물’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엸다/가염다’는 활용형에서 ‘가엸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요/-이어요’의 경우도 ‘책이에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에요, 책이어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와 ‘에, 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5. 마무리

지금까지 표준어 규정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표준어 사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중요한 어문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가에서 아무리 다듬어진 말과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정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애를 불러오고 친근감을 불러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언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지역 우월주의에 빠진다거나 다수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성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사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간혹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표준어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1990), 표준어 모음, 국어생활 제22호 별쇄.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이승재(1998), “표준어와 방언”,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1987), “표준어의 기능”, 방송언어연구논총, KBS.
이익섭(1997), “방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희승 · 안병희(1994),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전동기(1988),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의 의의”, 문교행정(1988. 2.) 통권 74호, 문교부.
조선어학회(193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최용기(1996),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발음법

1. 표준 발음

‘표준 발음법’은 ‘한글 맞춤법’이 공포된(1933년) 뒤 55년이 지나서야 고시되었다. 그동안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소리 표준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발음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맞춤법에 어긋난 글을 쓰면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발음의 표준에는 무신경하거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도 이러한 경향은 만연하여 우리나라 표준 발음의 정립에 큰 저해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준어를 써야 하며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표준 발음법’이 무엇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글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자모의 음가와 발음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일반인들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음의 발음

모음은 조음 기관의 접촉이나 마찰 없이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를 자유로이 통과시키며 내는 소리로, 표준어에는 다음 21개의 모음이 있다.(‘표준 발음법’ 제3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ㅛ ㅜ ㅟ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표준어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가 있다. 이 중



‘외, 귀’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표준 발음법’ 제4항) 예를 들어 ‘죄(罪)’라는 발음을 할 때 입을 좁게 둥글리면서 끝까지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 것이고,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재빨리 펴면서 발음한 것은 이중 모음이다.

‘외’와 ‘귀’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단모음이 10개가 되고, ‘[we]’, ‘[wi]’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단모음이 8개가 된다.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일부 노년층의 서울 토박이들만이 단모음으로 발음할 뿐이고, 대부분의 젊은 층은 이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중 모음에는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의 11개가 있다. (‘표준 발음법’ 제5항) ‘ㅟ, ㅠ, ㅢ, ㅤ, ㅥ, ㅦ’는 각각 ‘ㅏ, ㅑ, ㅓ, ㅕ, ㅗ, ㅛ’의 앞에 [j]가 온 상승 이중 모음이고 ‘ㅩ’는 ‘ㅡ’ 뒤에 [j]가 온 하강 이중 모음이다. ‘ㅦ, ㅧ, ㅨ, ㅩ’는 각각 ‘ㅏ, ㅑ, ㅓ, ㅕ’의 앞에 반모음 [w]가 온 것이다.

ㅦ [e] / ㅧ [ɛ]

‘ㅦ’는 ‘ㅓ’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하면 된다. ‘지게’를 발음하면서 ‘ㅓ’와 ‘ㅦ’ 모음을 발음할 때 어떻게 조음 위치가 옮겨지는지 느껴 보자.

(예) 게, 가게, 그네, 네모, 모래, 베개, 세모, 어제
제비, 제과, 셋, 넷, 무게, 세수, 지게, 제주도

‘ㅧ’는 ‘ㅦ’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충분히 닫히지도 않고 충분히 열리지도 않은 소리여서 ‘ㅦ’를 ‘반닫힌소리’라고 하고, ‘ㅧ’를 ‘반열린소리’라고 한다.

(예) 개미, 고래, 배우다, 배추, 새우, 매미, 모래, 새해, 야채
조개, 새, 재미, 해바라기, 노래, 배, 개나리, 내 것



‘케’와 ‘헤’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은 전남 일부와 경상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요즘은 서울 지역의 젊은 세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케’와 ‘헤’를 구분하면서 발음하여 보자.

(예) 제법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케으른 여자와 부지런한 게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돈은 네 사람이 나누어 내었다.

재일이가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이다.

케 [je] / 헤 [je]

‘케’와 ‘헤’는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각각 ‘케’와 ‘헤’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케’, ‘헤’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구별해야 하는 발음들이다. ‘케’는 ‘예’와 ‘레’에서는 글자 그대로 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케’로도 발음할 수 있다.(‘표준 발음법’ 제5항)

(예) 예산, 예쁘다, 옛날, 의례, 차례

시계[시케/시게] 지혜[지혜/지헤] 혜택[혜:택/헤:택]

그런데 주위의 발음을 들어 보면 ‘레’를 [레]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케’가 자음 뒤에 오게 되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괴 [ø] / 위 [y], 케 [we] / 헤 [we]

단모음 ‘괴’와 ‘위’는 각각 ‘케’, ‘ㅣ’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는데, 입술을 둥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발음한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발음하여야 한다.

‘괴’, ‘위’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괴[we], 위[wi])에는 ‘ㅜ’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ㄷ’, ‘ㄴ’로 옮기며 발음하여야 한다. ‘내’를 발음할 때에는 입을 충분히 벌려 ‘네[we]’로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괴’를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을 바꾸어 발음하면 ‘네’와 같이 소리 난다.

(예) 외나무, 두뇌, 괴다, 쇠고기, 최고, 툇마루, 기회, 죄
귀, 뉘, 뒤, 쥐, 가위, 뒤주, 위인, 튀다, 들쥐, 성취, 뛰다
괘도, 꿰다, 훼손, 웬만큼, 께짝, 위궤양
꽤, 돼지, 왜, 썰기, 뻬다, 괜찮다, 극궤양

특히 ‘ㄱ’의 경우 처음에 ‘ㄷ’와 같은 입 모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ㄴ’ 소리가 되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는 ‘ㄱ’과 ‘ㄴ’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그 위치가 옳다 / 그 이치가 옳다
위장이 나쁘다 / 이장이 나쁘다
귀에 흠이 묻었다 / 기에 흠이 묻었다

ㄴ [n]

‘ㄴ’은 ‘ㄷ’을 발음할 때의 혀 위치와 같으면서 입술을 펴서 내는 소리이다. ‘ㄴ’은 ‘ㄴ’과 마찬가지로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소리 내어야 한다. ‘호르니’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계속해서 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 금, 은, 틈, 승리, 그림자, 느리다

ㄹ [ɾ] / ㄹ [ɭ]

‘ㄹ’은 ‘ㄴ’을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혀의 뒷부분이 ‘ㄴ’보다는 낮고 ‘ㄷ’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하면 ‘ㄹ’을 제대로 발음한 것이 된다. ‘언제나 눈에 선한’에서 ‘언.’과 ‘선.’의 ‘ㄹ’ 발음은



‘머리가 무겁다’에서 ‘머’와 ‘겁’의 ‘ㄱ’ 발음과 다르게 난다. 짧게 소리 나는 ‘ㄱ’과 길게 소리 나는 ‘ㄱ’은 말소리의 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리는 정도도 다르다. ‘ㄱ’을 짧게 발음할 때에는 길게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소리 내야 한다. 또한 장모음 ‘ㄱ[ɑ:]’은 단모음의 ‘ㄱ[ʌ]’보다 혀의 조음 위치가 높아져서 ‘ㅡ’의 장모음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예) 어:른, 건:강, 산:수, 얼:다, 거:짓말
너, 어깨, 절, 버릇, 서리, 먹었다

ㄱ [jʌ]

‘ㄱ’은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ㄱ’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5항)

(예) 가져(←가지어)[가저], 쩌(←찌어)[찌], 다쳐(←다치어)[다쳐]

이 규정이 용언의 활용형에만 한정된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용언의 활용형에만 ‘ㄴ, ㅈ, ㅊ’ 등의 구개음 다음에 ‘ㅣ’계 이중 모음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가져, 다쳐’ 같은 표기를 허용한 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발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ㅏ[wa] / ㅑ[wʌ]

‘ㅏ’는 ‘ㅏ’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ㅏ’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ㅏ’ 소리를 발음할 때에 입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ㅑ’는 ‘ㅏ’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ㅑ’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두어’를 재빨리 발음하면 ‘뒤’가 된다.

(예) 과자, 왕, 도화지, 좌우, 기와, 대왕, 관광, 화요일
권리, 뒤라, 월급, 원인, 국권, 훗훗, 시원하다

‘나’의 경우 반모음을 탈락시켜 ‘ㄴ’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예) 객간적인(←객관적인), 정확한(←정확한), 간강(←관광), 상향(←상황)

ㄴ [nj]

낱말의 처음에 오는 ‘의’는 언제나 ‘ㅡ + ㅣ’로 발음하고 ‘ㅡ’나 ‘ㅣ’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ㅡ’ 소리에서 시작하여 재빨리 ‘ㅣ’ 소리로 옮겨 소리 내야 하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 내야 한다.

(예) 의논, 의리, 의문, 의롭다, 의심하다, 의젓하다
넉넉, 무늬, 희망, 유희, 널리리, 회끗회끗, 띄엄띄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의’는 제 음가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 방언에서 ‘의사(義士)’를 ‘으사’로, 경상도 방언에서 ‘의대(醫大)’를 ‘이대’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다.

제2음절 이하에서 ‘의’를 제 음가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예)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나의 고향 고향의 봄



그렇다면 ‘무늬’와 ‘문의(問議)’의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늬’의 경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에 해당되므로 항상 [무니]로 발음하여야 하나, ‘문의’의 경우는 [무: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니]로도 발음할 수 있다.

3. 소리의 길이

우리말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중요하다. 같은 모음이라도 뜻에 따라 길게 소리 나기도 하고 짧게 소리 나기도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말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과(謝過)’의 ‘사’는 모음이 길게 나고 ‘사과(과일)’의 ‘사’는 모음이 짧게 나서 두 낱말의 뜻이 구별되는 것이므로 긴 모음을 짧게 내면 두 낱말의 의미가 구별이 안 된다. 물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모음의 장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장단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장단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고 국어사전에도 장단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음의 길이에 민감하여야 하고 구별하여 발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말은 말:을 못한다.

밤에 밤:을 구워서 먹었다.

가:장 행렬을 가장 잘 하였다.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한 개 주었다.

보물을 땅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위의 문장에서 밑줄 그은 낱말을 모두 짧게 발음하거나 모두 길게 발음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음의 길이는 단어의 제1음절에서만 변별적인 특성이 있다. 긴소리로 발음되는 음절도 그 앞에 다른 음절이 오면 짧게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6항)

(예) 밥:, 눈:, 일:, 말:, 병:, 화:장, 강:당
 군밤, 첫눈, 집안일, 거:깃말, 피병, 부:회장, 소:강당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예) 반신반의[반:신바:늬/반:신바:니] 채삼채사[재:삼재:사]

본디 짧은 소리를 가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7항)

(예) 보아→봐[봐:] 기어→겨[겨:] 되어→돼[돼:] 두어→뒤[뒤:]

[예 외] 오아 → 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예) 감다[감:따]-감으니[가느니] 맑다[밥:따]-맑으면[발브먼]
 신다[신:따]-신어[시너] 알다[알:다]-알아[아라]
 [예 외] 끝다[끝:다]-끝어[끄:러] 뚫다[떨:따]-뚫은[떨:븐]
 별다[별:다]-별어[버:러] 썰다[썰:다]-썰어[썸:러]
 없다[업:따]-없으니[업:쓰니]

용언의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짧게 발음한다.

(예)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맑다[밥:따]-맑히다[발피다]
 [예 외]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썸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단모음화가 단음절의 용언 어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더:럽다’는 ‘더:러운’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



되더라도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체언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를 만나더라도 이러한 단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눈:이, 밤:을)

4. 자음의 발음

한국어 표준어 자음에는 다음의 19개가 있다.(‘표준 발음법’ 제2항)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ㅅ ㅋ ㅌ ㅍ ㅎ

이들을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파열음	ㅂ	ㅍ	ㅃ
	ㄷ	ㅌ	ㅌ
	ㄱ	ㅋ	ㄱ
파찰음	ㅅ	ㅆ	ㅆ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1) 파열음

파열음은 혀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를 발음 기관의 어떤 부위에서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 ‘ㅂ, ㅍ, ㅃ’, 치조음 ‘ㄷ, ㅌ, ㅌ’, 연구개음 ‘ㄱ, ㅋ, ㄱ’으로 나누고, 긴장과 기(aspiration)의 유무에 따라 예사소리 ‘ㅂ, ㄷ, ㄱ’, 거센소리 ‘ㅍ, ㅌ, ㅋ’, 그리고 된소리 ‘ㅃ, ㅌ, ㄱ’으로 나눈다.

양순 파열음 ‘ㅂ, ㅍ, ㅃ’은 두 입술을 닫아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치조 파열음 ‘ㄷ, ㅌ, ㅌ’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입 안에 가두었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연구개 파열음 ‘ㄱ, ㅋ, ㄱ’은 혀뿌리를 연구개 앞부분에 대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

면서 내는 소리이다.

과열음은 그 조음 방식에 따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나눌 수 있다. 예사소리 ‘ㅂ, ㄷ, ㄱ’은 어두의 초성으로 날 때는 목청 떨림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무성이고 약한 기식을 지닐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리게 발음된다. 그러나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될 때는 목청 떨림을 수반하는 유성음으로 발음한다. ‘비’, ‘발바닥’ 등에서 나는 ‘ㅂ’과 ‘아버지’, ‘안방’ 등에서 나는 ‘ㅂ’은 음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차이는 국어에서는 뜻을 구별하는 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

거센소리 ‘ㅍ, ㅌ, ㅋ’은 예사소리 ‘ㅂ, ㄷ, ㄱ’에 비해서 터짐이 격렬한 듯한 인상을 준다. 거센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터짐 뒤에 ‘ㅎ’ 소리가 이어 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얇은 종이를 입 앞에 대고 ‘탈, 패, 가치, 콩장’ 등의 낱말들을 발음하여 보면, 예사소리를 낼 때와는 다르게 종이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밑줄 그은 음절의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면, 문장의 뜻이 전혀 달라진다.

(예) 그는 아이다 / 크는 아이다

장이 아주 큼니다 / 창이 아주 큼니다

발이 매우 아프다 / 팔이 매우 아프다

된소리 ‘ㅃ, ㄸ, ㄲ’은 해당 발음 기관과 후두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발음하는 자음들이다. 그리하여 예사소리가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면 된소리들은 딱딱하고 뻑뻑한 느낌을 준다.

아래의 예는 같은 조음 위치의 발음이면서도 조음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의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립쌍이다.

(예) 달/딸/탈, 불/뿔/폴

과열음이 어말이나 같은 조음 자리의 장애음 앞에 나올 때에는 조음 시 두 입술이 닫히기만 하고 터지지 않는다. ‘밥’을 발음할 때 어두의 ‘ㅂ’은 정상적으로 개방되나 어말의 ‘ㅂ’은 개방되지 않는다.



(2) 마찰음

마찰음은 구강의 어느 한 지점을 좁혀서 기류를 좁혀진 틈 사이로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국어에는 ‘ㅅ, ㅆ, ㅎ’이 있다. ‘ㅅ, ㅆ’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까이 접근시켜 내는 소리로, ‘ㅅ’은 예사소리, ‘ㅆ’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ㅎ’은 성문의 두 성대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만들어져서 ‘성문음’ 또는 ‘목청소리’라고 한다.

예사소리 ‘ㅅ’은 다른 예사소리 ‘ㄱ, ㄷ, ㅂ, ㄸ’과 달리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ㅅ’이 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i]나 [j] 앞에 오게 되면 구개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된다.

(3) 파찰음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릴 때에는 파열음처럼 일시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터뜨려서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내는 소리이다. 국어의 ‘ㄷ’은 혀바닥을 경구개 위치에 갖다 붙여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열어 주면서 내는 소리이다. 파열음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 오면 유성음화된다.

(4) 비음

공기를 입 쪽으로 내보내지 않고 코 쪽으로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자음들을 비음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다. ‘ㅁ’은 ‘ㅂ’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양순 비음이고, ‘ㄴ’은 ‘ㄷ’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경 비음이며, ‘ㅇ’은 ‘ㄱ’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연구개 비음이다. ‘ㄴ’의 경우 [i], [j] 앞에 오면 구개음화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5) 유음

국어에는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는데, 환경에 따라 설측음(물), 탄설음(나라), 구개음(멀려) 등 다른 음성으로 발음된다.

(예) 물 한 동이 / 좋은 나라 / 사랑에 눈이 멀려 한다.

5. 받침의 발음

(1) 홑받침의 발음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된다.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낫, 낫, 낫, 낫’은 모두 같은 발음 [낫]으로 난다.(‘표준 발음법’ 제9항)

(예) 뱀[박], 부엌[부억], 옷[온], 젓[전], 꽃[꼰], 술[순], 앞[압]

(2) 겹받침의 발음

국어에는 11개의 겹받침-ㄱㅅ, ㄴㅅ, ㄴㅇ, ㄷㄹ, ㄷㅅ, ㄷㅁ, ㄷㅌ, ㄷㅍ, ㅅㅅ, ㅅㅁ-이 있다.

(예) 갑-값, 막다-뵈다, 안다-앓다

위의 각 쌍들은 같은 발음이 나는 것들로서 겹받침을 갖는 단어들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까지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겹받침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어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겹받침 ‘ㄱㅅ’, ‘ㄴㅅ’, ‘ㄷㄹ, ㄷㅅ, ㄷㅁ’, ‘ㅅㅅ’의 경우 둘째 소리는 탈락하고 첫소리만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0항) 이와 달리 ‘ㄷㄹ, ㄷㅌ, ㄷㅍ’은 어말 또는 자음으



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일정하게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고 두 번째 받침이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1항)

(예) 녀[녀] 았다[안파] 외곬[외굴] 넓다[널파] 값[갑]
 닻[닥] 째다[점:파] 읊다[읍파] 핥다[할파]

겹받침 ‘ㄷ’의 경우 ‘ㅂ’을 탈락시키고 ‘ㄷ’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데, ‘밟다’와 ‘넙둥글다, 넙죽하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ㄷ’을 탈락시키고 ‘ㅂ’만 발음한다.

(예) 여넙[여넙] 째다[잘파] 넓다[널파]
 밟다[밥:파] 밟지[밥:찌] 밟고[밥:꼬]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또한, 겹받침 ‘ㄷ’이 용언의 어간 말음으로 쓰일 때, ‘ㄷ’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첫 자음 ‘ㄷ’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 맑게[말께] 물고[물꼬] 엮거나[얼거나]

(3) 받침 ‘ㅎ’의 발음

받침 ‘ㅎ’은 뒤따르는 ‘ㄱ, ㄷ, ㅈ’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2항)

(예) 놓고[노코] 많고[만:코] 좋다[조:타] 옳다[올타]
 달지[달치] 하얗지요[하:야치요]

그러나 ‘ㅎ’ 받침 뒤에 ‘ㅅ’이 오면 그 ‘ㅅ’과 결합하여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종소[조:쏘], 싫소[실쏘]) 그 밖에 ‘ㅎ’ 받침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그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나 접미사가 오면 ‘ㅎ’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예) 놓는[논는] 넣니[난니] 놓으니[노으니] 쌓여[싸여]

이러한 받침 ‘ㅎ’의 특성은 겹받침 ‘ㄴㅎ’과 ‘ㄹㅎ’이 뒤에 오는 자음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보인다.

(예) 끊고[끈코] 끊는[끈는] 앓지[알치] 앓소[알쏘]
 많아[마:나] 싫어[시러] 뚫어[뚜러]
 많으니[마:느니] 싫으니[시르니] 뚫으니[뚜르니]

(4) 연음 법칙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혹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받침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고 뒤 음절에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3항)

(예) 찾아[차자] 못으로[모스로] 늦으면[느즈면] 밑에[미테]

겹받침의 경우 겹받침 다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겹받침의 뒤 소리만을 바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4항)

(예) 흙이[홀기] 젊어[절머] 핥아[할타]
 녀이[녀씨] 굶이[골씨] 값이[갑씨]
 흙은[홀근] 젊은[절문] 핥은[할튼]
 읊은[을픈] 었은[언즌] 밟은[발븐]
 녀으로[녀쓰로] 굶으로[골쓰로] 값으로[갑쓰로]
 앓아[안자] 뚫으니[떨브니] 읊어서[을퍼서]



(5) 절음 법칙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5항)

(예) 늪 앞[느밥] 밭 아래[바다래]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텟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맛있다, 멋있다’는 [마뎡따], [머뎡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따], [머싣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예) 뉘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6) 한글 자모의 발음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언중의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6항)

(예) 디글이[디그시]	디글을[디그슬]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티을이[티으시]	티을을[티으슬]
피을이[피으비]	피을을[피으블]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6. 소리의 변화

(1) 구개음화

‘ㄷ’과 ‘ㅌ’ 받침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에 이어져 발음될 때에는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표준 발음법’ 제17항)

(예) 해돋이[해도지] 미달이[미다지] 밭이[바치] 굳이[구지]
살살이[살사치]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그러나 ‘ㅣ’ 이외의 모음과 연결될 때는 ‘ㄷ’, ‘ㅌ’ 소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난다.(돋을[도들], 굳어[구더], 닫아[다다], 밭을[바들])

(2) 자음 동화

① 유음화

국어에서 ‘ㄴ’과 ‘ㄹ’은 연이어 나올 수 없고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뀐다. 비음 ‘ㄴ’이 유음 ‘ㄹ’에 동화되어 소리가 ‘ㄹ’로 바뀌는 것이다. 접받침의 앞의 ‘ㄹ’만 남는 음절이 앞에 올 경우에도 뒤의 ‘ㄴ’이 ‘ㄹ’로 바뀐다.(‘표준 발음법’ 제20항)

(예) 만리, 신라, 찰나, 칼날, 난로, 설날
알는[알른], 꿀네[꿀레], 핏는[핏른], 훑네[훑레]

다음은 모두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ㄹ’로 시작된 1음절 접미사가 결합되는 예로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예)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일부 노년층 서울 토박이들 중에는 ‘ㄴ’과 ‘ㄴ’이 연이어 나올 때 이를 ‘ㄴㄴ’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발음은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관념[괄렴], 천년 만년[철련말련], 만년필[말련필])

② 장애음의 비음화

장애음 ‘ㅂ, ㄷ, ㄱ’은 비음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뀐다.(‘표준 발음법’ 제18항)

(예) 밤물[밤물] 잡는[잠는]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옷맵시[온맵씨] 젓명울[전명울] 꽃망울[꼇망울] 있는[인는]
 부엌만[부엌만] 국물[궁물] 깎는[깁는] 흙만[흥만]

③ 유음의 비음화

국어에서 ‘ㄹ’은 ‘ㄴ’과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ㅁ, ㅇ’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표준 발음법’ 제19항)

(예) 음료[음:뇨] 담력[담:녁] 종로[종노] 승리[승니]
 강릉[강능] 막론[망논] 십리[심니]

그러나 두 닿소리가 이어질 때 바뀌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인간[잉간], 전기[정기], 옷감[옥깁], 잇몸[임몸], 잇고[익꼬], 감기[강:기]’의 경우 발음의 편의에 따른 발음이지만 이는 잘못된 발음이다. 수의적인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된소리되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ㄱ, ㄷ, ㅂ’이 받침으로 쓰이면 터지지 않는 소리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불파음 뒤에 오는 예사소리들은 단어 내부에서건 곡용 및 활용에서건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23항)



(예) 국밥[국꺼팍]	먹다[먹따]
민고[민꼬]	속부터[속:뿌터]
깎다[깎다→깎따]	샅돈[샅돈→샅똥]
웃고[웃:고→웃:꼬]	꽃과[꽃과→꽃짜]
있지[인 지→인 짜]	웁다[웁다→웁따]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4항)

(예)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지[안:찌]
감다[감:따]	감고[감:꼬]	감지[감:찌]
[참고] 감도[*감또], 방법[*방뺨], 창고[*창꼬], 간단하다[*간똥하다]		

다만, 피동,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읊기다

또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표준 발음법’ 제27항)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쩍에]	갈 곳[갈꼐]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진대[할쥔대]	할지라도[할찌라도]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예)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채주[손채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쑥]
바람-결[바람결]	그믐-달[그믐딸]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강-줄기[강쫄기]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 또한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6항)

(예) 갈등[갈똥]	발똥[발똥]	절도[절또]	물상식[물쌍식]
일시[일씨]	갈증[갈쑥]	물질[물쪼]	불세출[불쑤출]
말살[말쌀]	발전[발쑤]		

(4) ㄴ뉘소리/ㄹ뉘소리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9항)

(예) 담-요[담:뇨]	숨-이불[숨:니불]	콩-엿[콩년]	색-연필[생년필]
논-일[논닐]	한-여름[한녀름]	꽃-잎[꼇닙]	앞-이마[암니마]
랜-입[랜닙]	생-이별[생니별]	눈-약[눈냐]	식용-유[시공뉴]
눈-요기[눈뇨기]	내복-약[내:봉냐]	막-일[망닐]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예) 들-일[들:릴]	설-익다[설릭따]	술-잎[술립]
물-약[물랴]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다음과 같은 의성 의태어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예)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따금]
울랑-울랑[울랑놀랑/울랑울랑]

‘검열’이나 ‘금용’과 같은 단어는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ㄴ’ 첨가 없이도 발음할 수 있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기차를 타 본 일[닐]이 있습니까?”에서와 같이 ‘ㄴ’ 소리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덧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예)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월요일[워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절약[저략]

(5) 사이시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표준 발음법’ 제30항)

(예) 냇가[내:까/냇:까] 샛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뜰/빨랜뜰]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괘뽕/대:괘뽕]
햇살[해쌀/헨쌀] 뱃속[배쑥/뱌쑥] 고갯길[고개찢/고갠찢]

‘ㄴ, ㄹ’ 같은 비음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에는 ‘ㅅ→ㄷ→ㄴ’의 과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랜니→아랜니]
뒤편[뒤:마루→뒤:마루] 뱃머리[뱌머리→뱌머리]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



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히 [ㄴ]으로 발음된다.

(예) 깃잎[깰닙] 나뭇잎[나문닙] 베갯잇[베갰닐]

뒷웃[뒤:눈] 도리깃열[도리깰녘]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

우리는 ‘외국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좋다’거나 ‘지나친 외래어 사용을 삼가자’는 말을 하면서 ‘외국어’나 ‘외래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또 특정한 낱말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를 판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스’나 ‘커피’, ‘바나나’, ‘텔레비전’처럼 국어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또 바꾸어 쓸 수 있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치킨’이나 ‘스키트’, ‘키’, ‘루머’ 따위 낱말들은 딱히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국어 단어로 인정하기엔 아직 어색한 면이 있으나 ‘닭고기’나 ‘치마’, ‘열쇠’, ‘소문’ 등으로 바꾸어 쓰기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외국어’는 ‘모국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 같은 정의를 따르면 ‘외국어’는 남의 나라 말이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 어휘가 우리말의 외래어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외래어는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에 동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동화의 정도가 흔히 외국어와 외래어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발음의 변화이다. 즉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와 쓰이게 되면 본래 발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어의 소리로 대치된다. 예를 들어 fi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놓으면서 내는 소리인



데, 우리말에는 이런 소리가 없으므로 그에 가장 가까운 소리인 ‘료’ 소리로 바뀌어 ‘과일’로 발음된다. 영어에서는 다른 소리인 [r]과 [l]도 모두 ‘르’로 바뀌어, 영어의 race와 lace는 모두 ‘레이스’가 된다. <마지막 잎새>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O Henry는 영어 발음이 [o henri]이고 한글 표기도 ‘오헨리’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리’를 [철리]로 읽는 발음 습관에 따라 흔히 [오헬리]로 발음한다.

외래어는 형태적으로도 우리말에 동화된다. 외래어 형용사나 동사가 우리말 속에서는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말 동사나 형용사의 특징은 문장 속에서 어미 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먹다’는 항상 ‘먹은, 먹으니, 먹어서’ 등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외국어에서 온 동사나 형용사들도 우리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려면 어미 변화를 해야 하므로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영어 형용사 smart는 우리말 속에서 항상 ‘스마트한’, ‘스마트하여’, ‘스마트하게’ 따위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흥미로운 변화는 의미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외래어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미팅’이나 ‘부츠’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meeting은 영어에서 ‘모임’이나 ‘회의’를 뜻하지만 국어에서는 ‘남녀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미팅’의 ‘팅’만을 따로 떼어내 ‘소개팅’, ‘맞선팅’, ‘폰팅’ 같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boots는 영어에서 온갖 종류의 ‘장화’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비 오는 날 신거나 작업용으로 신는 고무장화는 ‘부츠’라고 하지 않는다. 주로 여성들이 신는 목이 긴 구두를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된다.

외래어는 그에 대응하는 적당한 우리말 용어가 없어서 다른 나라 말을 빌려다 쓰는 것으로 대개 위에 제시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리거나 교과서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은 대체할 우리말 용어가 없는지,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동화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은 완전히 우리말로 정착한 소수의 ‘외래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에 우리말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낯선 외국어들과 외국의 인명·지명이 주요 표기 대상이다. 오



히려 오래 전에 들어와 국어의 일부가 된 전형적인 외래어들은 표기 혼동의 염려가 별로 없어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라디오’, ‘피아노’ 같은 예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올바른 표기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안’이나 ‘의제’라는 뜻의 agenda는 외래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어젠다’, ‘아젠다’, ‘어젠더’ 등 표기형이 혼란한 상태이므로 표기형 통일을 위해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래어 용례 심의는 대개 진정한 ‘외래어’가 아닌, 단지 외국어에서 들어온 낱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글 표기는 통일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 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어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ㅍ’으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ㄹ’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사용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ㅍㅎ’이나 ‘퐁’, [l] 소리는 ‘ㄹㄹ’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안은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30년대에 발간된 책자에 보면 ‘ㅇㅅㅣ터민’이나 ‘ㅇ표케이스’같은 표기가 종종 눈에 띈다. 여기서 ‘ㅇㅅ, ㅇ표’ 등은 고유어를 적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던 자모들로 [v]나 [f]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부호들이다. 그러나 외래어를 적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것을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ɔːfɪ]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회’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시켜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인과 영어로 말을 할 경우에는 [kɔːfɪ]의 정확한 영어 발음과 강세 위치 등을 따로 익혀서 제대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외국어의 발음 표기를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만들어진 기호의 용도도 분명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말과는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진 외국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만들어야 한다면,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을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호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영어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ə, ð, ɔ, ʃ, f, v] 등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자로 국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 외래어 표기법 익히기

1) 자음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파리, 가스/*까스, 버스/*빠스
 ㄴ. 서비스/*씨비스, 세븐/*쎌븐, 재즈/*제즈, 모차르트/*모짜르트
 ㄷ. 빵, 껌, 마오쩌둥, 쑨원
 ㄹ. 빠파니(타이 지명), 푸껏(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 외래어 표기를 할 때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ㄲ, ㄸ, ㅃ)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ㅋ,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프랑스어나 일본어, 러시아어 등 무성 파열음이 우리말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는 몇몇 언어 표기에는 거센소리 대신 된소리를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성 파열음 표기에는 거센소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ㄱ, ㅋ)과 파찰음(ㄲ, ㅃ, ㅅ, ㅆ)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씨스템, *쎌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쎌터, 쥘리히’ 등으로 적어야 한다(1ㄴ). 다만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ㅈ’을 사용한다. 또 ‘빵, 껌, 히로뽕, 빠라’ 같이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1ㄷ). 그리고 파열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어와 베트남어에는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1ㄹ).



(2) 커피숍/*커피쑤,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표기에 제약이 있다. 받침 글자로 ‘ㄱ, ㄴ, ㄷ, ㅁ,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여기 제시되지 않은 다른 글자들—예를 들면 ‘ㄷ, ㅋ, ㅌ, ㅍ, ㅊ, ㅍ, ㅍ’ 등—은 받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폴]’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커피쇼페서]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커피쇼베서]로 발음하므로 ‘커피쑤’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커피숍’이라고 써야 한다.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ㄴ.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ㄷ. 네트/*넷, 세트/*셋/*셀, 매트/*맷

ㄷ.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 ①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는다(3ㄱ).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3ㄴ). ②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더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3ㄷ). 예외적으로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3ㄷ).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3ㄱ).

- (4) ㄱ. 헤드/*헛, 허브/*헝, 개그/*객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웨브

※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웨미리,
 프라이/*후라이, 피트니스/*휘트니스

※ [f] 소리는 항상 ‘표’으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표’으로 적으므로 fan과 pan은 국어에서 똑같이 ‘팬’이 되어 구분이 되지 않는다.

- (6) ㄱ. 대시/*대쉬, 잉글리시/*잉글리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ㄴ.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ㄷ.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슈바이처/*시바이처,
 타슈켄트/*타시켄트/*타쉬켄트

※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6ㄴ), 어말에서는 ‘시’로(6ㄱ) 적는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어말의 [ʃ]는 ‘대쉬, 잉글리쉬, 플래쉬, 리더쉽’에서처럼 ‘쉬’로 적는 일이 많으나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십’으로 적어야 한다. ‘fashion[fæʃən]’, ‘shopping[ʃɒpɪŋ]’, ‘Shakespeare[ʃeɪkspiər]’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는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6ㄷ). 따라서 독일 사람 이름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적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다.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캐치/*캐치/*캐잡

※ [tʃ, dʒ]은 모음 앞에서는 ‘스, 츠’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스’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클럽, 살롱/*싸롱

※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따라서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2) 모음 표기

(1)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영어는 철자와 소리와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발음기호를 확인해서 그것에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ə]는 영어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에 오는 모음으로,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éntə]는 ‘쎄터’로, digital[dídʒitəl], terminal[tá:minə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자 a에 이끌려 ‘*디지털,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ㄴ.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탑, 솥/*삽, 보디/*바디



※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2ㄱ). 반대로(2ㄴ)에 있는 예들은 ‘어’로 적어야 하는데 흔히 ‘오’로 적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표기를 혼동하는 이유는 외국어의 발음보다는 철자를 엄두에 두고 외래어 표기를 하기 때문이다.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2ㄱ)의 예들은 [kɔn]으로 소리 나니까 ‘콘’으로 적은 것이지, 철자가 con이라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2ㄴ)의 예들은 발음이 [kə n]이므로 ‘컨’으로 적는 것이 맞다. 영어에서 이 구분은 강세의 위치와 관계가 있다. 모음 o가 강세 음절인 경우에는 [ɔ]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으나, 강세가 없는 음절에 위치할 때에는 약화되어 [ə]로 소리 나게 되고, 한글로는 ‘어’로 적게 된다. 강세 위치에 따라 모음의 음가가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종종 같은 단어에서 파생한 말들의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rony는 ‘아이러니’로 ironical은 ‘아이로니컬’로 적어야 한다. irony[áirəni]는 강세가 1음절에 있으므로 2음절의 모음 o는 약화되어 [ə]로 발음되므로 ‘아이러니’로 적는다. ironical[airónikəl]에서는 강세가 2음절로 이동하면서 모음 o가 [ɔ]로 발음되므로 ‘아이로니컬’로 적는 것이 맞다.

(2ㄷ) 예에서처럼 [ɔ] 소리를 ‘아’로 적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으로 [ɔ]로 발음하던 많은 단어들이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ɑ](우리말의 ‘아’ 소리와 비슷)로 발음되는데, 이것의 영향을 받은 표기들이다. 이런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오’로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top, shop은 *탑, *샵이 아니라 ‘톱, 숓’으로 적는 것이 맞다.

(3) 켈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



데, ‘킬러, 커버’로 적어야 옳다.

(4) ㄱ.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볼링/*보울링,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소릿값이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4ㄱ), [auə]는 ‘아워’로(4ㄴ)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nu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는다. Eisenhower도 *아이젠하우어’가 아니라 ‘아이젠하워’로 적는 것이 맞다. 특히 yellow[jélou]나 window[wíndou] 같은 경우는 철자에 있는 w에 끌려 *옐로우, *윈도우’로 적는 경우가 많으나 옳지 않다. ‘옐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요크셔/*요오크셔

ㄴ.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외래어를 표기할 때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栗] 對 밤:[夜]’, ‘눈[眼] 對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5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6) 주니어/*주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른 자음이나 모음 뒤에서는 ‘모기/묘기’, ‘우리/유리’처럼 단모음 표기를 이중 모음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 그러나 경구개음 뒤에서는 ‘자’와 ‘쟈’, ‘저’와 ‘저’ 등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잠자다’를 [잠쟈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자, 차’ 등의 표기를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어의 표기에서는 경구개음이 이중 모음과 결합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저’, ‘다쳐’와 같은 경우가 그것인데, 이는 ‘가지어’, ‘다치어’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지 이들이 ‘가저’나 ‘다쳐’와 발음상 구분되기 때문이 아니다.

3) 기타 표기 세칙

(1) 아웃렛/*아울렛/*아우틀렛, 로그인/*로긴, 메이크업/*메이컵

※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Michael: 마이클(영), 미하엘(독, 러), 미카엘(덴)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ænəjei]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3) ㄱ. 라디오/*레이디오, 게놈/*지놈, 시보레/*세브렐레이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diò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 어에서 온 말로 [ʃèvrəléi]라는 발음에 따르면 ‘*세브렐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여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3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커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꺾어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아도, 東京: 도쿄/동경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北京: 베이징/북경
 孔子: 공자/*공쯔, 孟子: 맹자/*멍쯔
 朱鎔基: 주룽지/*주용기, 張國榮: 장귀룽/*장국영

※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풍신수길’, ‘이등박문’ 대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왕안석’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귀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상해’와 ‘상하이’, ‘요동반도’와 ‘랴오둥 반도’, ‘발해만’과 ‘보하이 만’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참고>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뺏테리, 밧테리
biscuit	비스킷	비스켓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body	보디	바디
buffet(프)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cake	케이크	케익, 케익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color	컬러	칼라
cover	커버	카바
cunning	커닝	컨닝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curtain	커튼	커텐
data	데이터	데이타
digital	디지털	디지탈, 디지틀
encore(프)	앙코르	앵콜
enquête(프)	앙케트	앙케이트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flute	플루트	플룻, 플룻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fresh	프레시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판, 후라이팬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giant	자이언트	자이안트, 자이언트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juice	주스	쥬스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mania	마니아	매니아
massage	마사지	맛사지
motor	모터	모타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웬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panda	판다	팬더
panel	패널	판넬
placard	플래카드	프라카드, 플랭카드
plaza	플라자	프라자
radar	레이더	레이다
royal	로열	로알
sash	새시	샤시, 샷슈, 샷시
sausage	소시지	소세지
set	세트	셋, 셋트, 셀
shutter	셔터	샷다, 샷따, 샷타
sofa	소파	쇼파
soup	수프	스프, 슌
special	스페셜	스페샬
staff	스태프	스텝, 스태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sunglass	선글라스	썬그라스
supermarket	슈퍼마켓	수퍼마켓, 수퍼마켈, 슈퍼마켈
symbol	심벌	심볼
talent	탤런트	탈렌트
tape	테이프	테프, 테입, 테잎
ton[豚] kasu	돈가스	돈까스
total	토틸	토탈
workshop	워크숍	워크샵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7월에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의의를 짚어 보고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1984)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과 사실상 같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으로 1939년에 미국인 매쿰과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영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표기법이었으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그러지 못하였다.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예컨대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 탈’은 *tal, t'al*로 표기하였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긋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한 표기법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이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들끼리 쓰고 말 거라면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다. ‘도동’을 *Todong*로 적어야 한다고 한국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동’은



Dodong이라야 따라 쓰기 쉽다. 혹 Totong이라면 몰라도 Todong은 도무지 따라 쓸 수 없다. 이러한 기형적인 표기법을 단지 서양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기로 1984년 초에 정책 결정을 하였고 한국의 도로 표지판의 지명은 지난 16년간 이대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반달표와 어긋점 등 특수 부호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갔고 결국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국내에는 매쿤라이샤워 표기법에 미련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한국어를 그토록 왜곡한 로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60년간이나 쓰여 신기할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그 표기법에 집착하는 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로마자 표기법은 애초에 외국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외국인들에 의해 그들의 취향에 맞는 표기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후에 해당 언어의 특성이 잘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어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1959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은 매쿤라이샤워 표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한 한국적인 표기법이었으나 지나치게 한국인의 편의만을 중시한 나머지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0년에 고시된 새 로마자 표기법은 매쿤라이샤워 표기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태어났다. 한국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표기법이 전 세계에 두루 널리 쓰여 로마자 표기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이다.

2.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표음법이다. 즉, 국어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다. ‘신라, 북문’과 같은 말을 글자대로 Sinla, Bugmun으로 적지 않고 발음인 [실라], [붕문]에 따라 Silla, Bungmun으로 적는 방식이다. 글자대로 적는 것은 국어의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철자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국어 발음을 알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발음은 어차피 따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보고 발음을 시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



발음에 따르되 일부 발음 현상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우선 된소리되기이다.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발음되지만 Apkkujeong으로 적지 않고 Apgujeong로 적는다. ‘팔당’, ‘일산’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팔땅], [일싼]이지만 Palttang, Ilssan으로 하지 않고 Paldang, Ilsan으로 한다. 된소리되기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고개’의 발음이 [당고개]인지 [당꼬개]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Danggogae, Dangkkogae와 같이 동일 지명의 표기가 두 가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막아야 한다.

거센소리되기도 발음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묵호’의 경우 발음은 [무코]이기 때문에 Muko로 적어야 옳다. 그러나 ‘호’의 ‘ㅎ’ 부분의 표기가 없어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ㅎ’을 살려서 적기로 하였다.

종전 로마자 표기법과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ㄱ, ㄷ, ㅂ, ㅈ’이 어두에 왔을 때에 k, t, p, ch가 아니라 g, d, b, j가 된 것이다. ‘ㅋ, ㅌ, ㅍ, ㅊ’은 k, t, p, ch가 되어 어갯점이 없어졌다. 모음의 경우 다른 모음은 변동이 없고 ‘어’, ‘으’가 ø, ü에서 eo, eu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더불어 ‘의’도 ü에서 ui로 바뀌었다. 그 밖에 ‘ㅅ’이 종전에는 뒤에 ‘ㅣ’ 모음이 왔을 때만은 sh로 표기되던 것을 어떤 경우든 s로 통일한 점, ‘ㅈ’이 tch에서 jj로 바뀐 것도 변한 점이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반달표와 어갯점이 없어진 것을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의 기저에는 영어 사용자들 청각 인상 중심의 왜곡된 로마자 표기법을 한국어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 방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로지 한국인의 편의만 고려한 표기법도 시행해 보았고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서양인 중심인 표기법도 써 보았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합리적인 표기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다시는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새 로마자 표기법을 보급하여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겠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ㅗ	ㅛ	ㅜ	ㅠ	ㅞ	ㅟ	ㅚ	ㅜ	ㅛ	ㅜ	ㅜ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ㅜ’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ㅋ	ㄷ	ㅌ	ㄴ	ㄷ	ㅂ	ㅍ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번곶]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백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m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종교[조코]	joko	농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종로 2가	Jongno 2(i)-ga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불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불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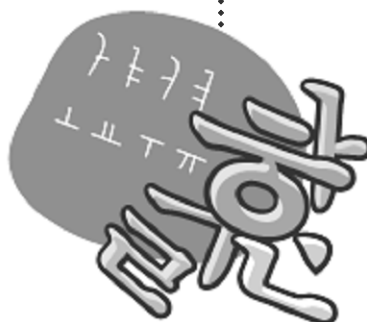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2000. 7. 7.)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제 2 부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 135
2. 문장 바로 쓰기 | 171
3. 학교 생활문 쓰기 | 191
4. 청소년과의 대화법 | 207
5. 협력적 의사소통 | 231





우리말 다듬기

1. 우리말 다듬기의 원칙

- ①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국어 순화’라는 말부터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은,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리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다듬기란 한마디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순우리말(토박이말)’이 아니거나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을 순우리말이나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말 다듬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다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둘째,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의 전통성이나 어법, 문법 등 갖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우리말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알맞게' 바로잡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가꾸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가꾸기'는 좀 더 명확한 표현, 좀 더 아름다운 표현 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듬은 말이 본래의 뜻을 정확히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단어 구성이 복잡해지고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경제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 ① 민족정신의 확립
- ② 민족 문화의 발전
- ③ 사회의 정화
- ④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역사적으로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서 시작하여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까지 이어졌다. 과거 대다수 국민은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양식 외국어를 저절로 쉽게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면 외국어 교육에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순우리말이 오히려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하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까지도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는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대다수 사람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우리말 다듬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서와 정신과 얼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민족마다 그 정신적 특성이 다르므로 각 민족의 언어는 서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이다. 이러한 우리말을 다듬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확립하는 길이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우리말 속에 들어 있는 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민족 문화의 창조·발전·전승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 민족은 자국어를 통해 각기 특이한 민족 문화를 빚어내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영국이 인도는 내어 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갈고 닦아 훌륭한 영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다듬는 이유는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훌륭한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언어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어 그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兩班)’이란 말이 생겨났고, 장인(丈人)의 집에 신랑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장가(丈家)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말이 횡행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면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면이 강하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국어를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곱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

이 밖에 우리말 다듬기는 언중들이 적극적인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말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갈고 닦아 아름답고 풍부한 보고(寶庫)로 만들고,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3.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

- ① 순우리말이 아닌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 ② 쉬운 우리말이 아닌 난해한 한자어
- ③ 바른 우리말이 아닌,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
- ④ 고운 우리말이 아닌, 비속한 말이나 표현 등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외국어 등은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다. 이 중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는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착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외래어라고 모두 다듬을 수는 없고 다듬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순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나 지금까지 불편 없이 써 왔던 외래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써 왔던 외래어를 다듬으면, 다듬은 말이 오히려 생소하여 새로 익히는 데 불편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용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즉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



양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양 외래어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빨리 대처하면 다듬은 말을 쉽게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의 측면에서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등의 어휘를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다면, 바른 우리말 쓰거나 고운 우리말 쓰기의 측면에서는 표기, 발음, 문장 등과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우리말 다듬기의 실제

4.1. 일본어 잔재

그동안 일본어는 대부분 순화의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인 일본식 성명 강요,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 등으로 국어는 강제적으로 말살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의 자긍심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민족정신마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76년 ‘국화 순화 세칙’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를 어원으로 하는 외래어는 아주 바꾸어서 먼저 것을 쓰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하고도 즐기치게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일을 해 왔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이제 공식적인 자리의 대화에서는 일본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가 우리말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와 일본어 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우리 언어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라(空, 虛) → 가짜



- 기스(傷) → 흠(집), 생채기
 단도리(段取り) → 채비, 단속
 텃빔(鐵板) → 우두머리
 땡깡(癪癪) → 생떼
 무넛보(無鐵砲) → 막무가내
 잇빠이(一杯) → 가득, 한껏
 하꼬방(箱-) → 판잣집, 쪽방
- (2) 곤조(根性) → 본성, 심지
 신행(新品) → 신출내기, 새내기
 쇼부(勝負) → 흥정, 결판
 탁상(澤山) → 제격
 뽀록(檻樓)나다 → 들통나다
- (3) 와사비(山葵) → 고추냉이
 쟁깡(金柑) → 금귤, 동귤
 사라(皿) → 접시
 요지(楊枝) → 이쭉시개
 다대기(たたき) → 다진 양념
 다마네기(玉葱) → 양파
- (4) 가꾸목(角木) → 각목, 각재
 구루마(車) → 손수레, 달구지
 고바이(勾配) → 기울기, 오르막
 도기다시(研(ぎ)出し) → 윤내기
 시마이(仕舞い・終い) → 마감, 마무리
 시타바리(下-) → 보조원, 밑일꾼

(1)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이고, (2)는 특히 속되게 느껴지는 생활 일본어이다. 그리고 (3)은 식생활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고, (4)는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다. 일본어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대부분 다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일본식 한자어

단지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말로 다듬기에는 이미 국어 속에 자리 잡은 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개화기에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들어와 이제는 완전히 국어가 되어 버린 ‘경제’, ‘사회’, ‘정당’ 따위와 같은 말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래 있던 우리말 한자어 대신에 자리 잡은 ‘미인(美人←一色)’, ‘약속(約束←言約)’, ‘화장(化粧←丹粧)’ 등과 같은 말도 우리말 한자어로 되돌려 놓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본식 한자어는 선별적으로 다듬기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그 속성상 순수 일본어와 유사한 것은 다듬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 (5) 나대지(裸地) → 빈 집터
 매점(買占) → 사재기
 사양서(仕様書) → 설명서
 시건(施鍵) 장치 → 잠금 장치
 취조(取調) → 문초
 택배(宅配) → 집 배달, 문 앞 배달
- (6) 가접수(假接受) → 임시 접수
 가처분(假處分) → 임시 처분
 공수표(空手票) → 부도 수표
 공상자(空箱子) → 빈 상자
 생방송(生放送) → 현장 방송
- (7)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수입선(輸入先) → 수입국
 제조원(製造元) → 만든 곳
 매표구(賣票口) → 표 사는 곳
 비상구(非常口) → 비상문
 물가고(物價高) → 높은 물가
 수확고(收穫高) → 수확량
 결석계(缺席屆) → 결석 신고서
 숙박계(宿泊屆) → 숙박부



(5)는 지나치게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이고, (6)은 일본식 한자어 접두사인 ‘가(假)-, 공(空)-, 생(生)-’ 따위가 붙은 말이며, (7)은 일본식 한자어 접미사인 ‘-선(先), -원(元), -구(口), -고(高), -계(屈)’ 따위가 붙은 말이다. 일본식 한자어들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다듬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렵다면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4.3.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 (8) 척사(擲柶) 대회 → 윗놀이 대회
 비산(飛散) 먼지 주의 → 날림 먼지 주의
 콘크리트 양생(養生) 중 → 콘크리트 굳히는 중
 사고 다발(多發) 지역 → 사고 잦은 곳
 약을 복용(服用)하다 → 약을 먹다
 난색(暖色)을 표명(表明)하다 → 어려운 빛을 나타내다
 가방을 분실(紛失)하다 → 가방을 잃어버리다
 장물을 은닉(隱匿)하다 → 장물을 숨기다
 법에 저촉(抵觸)되다 → 법에 걸리다
 전력(全力)을 경주(傾注)하다 → 온 힘을 기울이다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하다 → 알아보기 쉽다
 적색등(赤色燈)이 점등(點燈)하다 → 빨간불이 켜지다
 화재(火災)를 진압(鎮壓)하다 → 불을 끄다
 축수(觸手)를 엄금(嚴禁)하시오 → 손대지 마시오

한자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고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어렵게 느낀다는 점에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대개 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위의 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고유어로 바꾼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것에 비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4.4. 일본식 외국어와 외래어

- (9) 다스(dozen) → 타(打)/열두 개
 다시(dash) → 줄표/대시
 도랏쿠(truck) → 화물차/트럭
 바케쓰(bucket) → 들통/양동이
 림바(bumper) → 범퍼/완충기
 밧테리(battery) → 건전지/배터리
- (10) 난닝구(running shirt) → 러닝셔츠
 도란스(transformer) → 변압기
 뽕꾸(puncture) → 구멍/펑크
 스텡(stainless) → 안녹쇠/스테인리스
 오바(overcoat) → 외투/오버코트
 미손(transmission) → 변속기
 뽕뽕(sandpaper) → 사포/속새
- (11) 올드미스(old miss, オールドミス) → 노처녀
 리어카(rear car, リヤカー) → 손수레
 백미러(back mirror, バックミラー) → 뒷거울
- (12) 가라오케[空(から)orchestra] → 녹음 반주/노래방
 한쓰봉[半(はん)jupon] → 반바지
 가라쿠[空(から)cushion] → 민쿠션

(9)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 외래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는 일본어로 잘못 알고 쓰는 영어가 참 많다. 일본을 통하여 일본어식 발음으로 들여와서 쓰다 보니 본래 영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것이다.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는 크게 달라 원래의 영어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일본어식 발음의 영어는 대개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말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속어로 둔갑하여 널리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로쿠’이다. 이 말은 본래 당구 용어인 영어 ‘플루크(fluke)’에서 유래한 말인데 일본어식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 너무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따라 ‘후로쿠’, ‘후룻쿠’, ‘후루꾸’, ‘후로꾸’ 등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10)은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이며, (11)은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이다. 그리고 (12)는 일본어와 서양 외래어가 뒤섞인 말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4.5. 서양의 외래어와 외국어

최근 들어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일상 언어생활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즉,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서 현재 차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서양 외국어의 대부분은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따위처럼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¹⁾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영어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유행어로 떠도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이런 말이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우리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 동사와 더불어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 부류에 속한다. 그래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형용사를 빌려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컬러풀하다’, ‘스마트하다’, ‘와일드하다’, ‘로맨틱하다’, ‘타이트하다’ 따위의 영어 형용사를 빌려다 썼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영어 형용사를 다량으로 빌려다 쓰고 있고, 영어 형용사가 우리말의 어느 형용사처럼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기도 한다.

(13) 영어 형용사에 ‘-하다’가 붙은 말

글래머러스하다, 글로벌하다, 보이시하다, 센세이셔널하다, 원더풀하다, 프로페셔널하다, 드라마틱하다, 트렌디하다, 쿨하다, 터프하다, 빈티지하다,

1)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http://malteo.net>)에서는 ‘웰빙(well-being)’을 ‘참살이’로, ‘스크린 도어(screen door)’를 ‘안전문’으로, ‘올인(all-in)’을 ‘다걸기’로 다듬은 바 있다.



엔틱하다, 미니멀하다

- (14) 영어 형용사가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경우
스마트 폭탄, 슬림형, 글로벌 예산, 클린 산업

특히 최근에는 국가 기관의 이름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영어 약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 (15) 영어 약자

국가 기관의 영어 약자: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언론 기관의 영어 약자: DJ, MB, EBS

경제계의 영어 약자: KT&G, LG, LH

연예계의 영어 약자: SS501, SG워너비

일상생활의 영어 약자: 셀카, 디카, UCC(User Created Contents)

최근에 새로 생기는 직업의 이름, 기업이나 지역의 홍보 문구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는 국어를 홀대하고 외국어를 중시하는 언어 사대주의나 국어는 촌스럽고 영어는 세련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권위주의 때문이다. 언어 사대주의나 언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말을 경시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크게 잘못된 태도이다.

4.6. 변형된 우리말

- (16)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방가 → 반가워요

어쵸요 → 어서 오세요

설 → 서울

고딩 → 고등학생

조아 → 좋아

부니기 → 분위기

- (17) 포그니 → 포근히

누네띠네 → 눈에 띄네

모드니에 → 모든 이에

함사세 → 함께 사는 세상

(16)은 컴퓨터 통신어이다. 이들 언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언어의 굴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식이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심어진다. 이것이 바로 통신어를 부려 쓰지 말아야 할 근본 이유이다. 한편, (17)은 상표명과 상호명을 변형하여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 언어 초기에는 ‘머시파(멋있다)’, ‘절머(젊어)’, ‘마니(많이)’, ‘열시미(열심히)’처럼 우리말의 복잡한 받침을 없애고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쌤(선생님)’, ‘방가(반가워요)’, ‘어좌요(어서 오세요)’처럼 단어나 구의 일부분을 줄인 말이 자주 쓰였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자판을 칠 수 있어서 사용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이상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들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예컨대 ‘친구’나 ‘아니지’로 쓰지 않고, ‘튀구’, ‘아니쥬’로 쓰는 것이다. 아마도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신세대는 이런 형태의 말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헿헿’, ‘뽕’과 같은 이상한 신조어와 ‘KIN(줄)’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도 모두 이러한 경향 때문인 듯하다. 게다가 요즘은 ‘너無’, ‘빠2’, ‘밤5’처럼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ㄱㅅ(감사)’, ‘ㅅㅅ(죄송)’, ‘ㄷㄷ(추카 ← 축하)’, ‘ㅋㄷㅋㄷ(키득키득)’처럼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은 것들이 있다.²⁾

이렇듯 인터넷 언어가 점차 우리말 파괴적인 성격을 띠어 가는 현상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 변화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이며, 인터넷 언어도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 언어는 극히 제한된 은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2) 영어에서 두문자(頭文字)를 활용한 NASA와 같은 말이 발달해 있듯이, 우리말에서도 단어의 자음을 활용한 표기를 활용해 봄 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가 다른 말과 변별이 되지 않아 언어 생활에 혼란을 주거나, 실제 말을 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지웃 시웃!”으로 말하는 일도 있어 문제가 된다.



공간에 한정해서 신세대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라서 일상 언어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의 인터넷 언어는 대부분 말장난의 하나로서 언어유희에 가깝다.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는 일은 다분히 우리말 파괴적 행태이다.

게다가 요즘의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의 일상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세대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나 글에서도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신세대는 그러한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언어는 방송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덧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언중들의 언어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인터넷 언어는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돌봐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4.7. 욕설, 비속어, 은어

최근 들어 욕설, 비속어가 신세대 사이에서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엇나간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나 쓸 수 있던 말이 욕설과 비속어였다. 그런데 이젠 버스나 지하철에서 거리낌 없이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여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신세대 사이에서 ‘존나 쪽팔린다’라는 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일상어처럼 되어 버렸다.

2005년에 국립국어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서도 고등학생들 대부분(76.4%)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욕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작 신세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것에 대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는 ‘언어 상대 가설’을 세워 언어가 인간의 사고나 사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



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됬됨이, 즉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이론을 따르면 욕설이나 비속어 또한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욕설이나 비속어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있는 신세대의 인격·정서 형성에 주는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크다.

우리나라 신세대, 즉 청소년은 인터넷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통신 공간의 익명성은 비어, 속어, 은어, 욕설 따위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요즘 신세대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욕설, 비속어, 은어들의 예이다.

(18) 욕설

병신(←병신), 덜아이(←또라이, 돌아이), 존나(매우)

(19) 비속어

쉐이(새끼), 뽕세다(고되다), 뽕까다(거짓말하다), 썩까다(모른 척하다), 똥지다(죽다), 씹다(대꾸하지 않다)

(20) 은어

깔(여자 친구), 깔따구(남자 친구), 까대기(이성 친구를 유혹하는 일), 담탱이(담임선생), 썩곤하다(멋지다), 뽕(기념식)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또한 언어폭력의 하나이다. 언어폭력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크게 어긋난다. 게다가 언어폭력은 그 피해가 궁극에 가서는 가해자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따라서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은 삼가야 한다.

4.8. 신조어

신조어를 살펴다 보면 때론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신조어와 관련된 우리의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무녀독남(無女獨男)’은 ‘무남독녀(無男獨女)’에서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로 자식을 하나만 낳는 사회적 분



위기에 편승하여 새로 생겨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제오늘 생겨난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 왔던 말이었으나,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한편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하는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말은 이미 사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엄연히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인데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쓰지 않는 단어들은 신조어에 밀려 사전 속에서 사장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소개된 ‘귀차니스트/귀차니즘’, ‘얼짱/얼짱’, ‘당근이다’, ‘꽃미남’ 등과 같은 신조어는 일반인도 이를 널리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말이 적지 않아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신조어의 남발이 우리말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귀차니스트’, ‘귀차니즘’은 ‘귀찮다’라는 우리말에 영어 접사인 ‘-ist’, ‘-ism’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국적 불명의 말이다. ‘얼짱, 얼짱’은 ‘얼굴 짱, 얼굴 짱’이라는 어구에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준말인데 이 또한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들은 신세대가 단지 남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려고 우리말 어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또한,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어긋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신조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물래카메라’, ‘홀로노인’, ‘깜짝쇼’, ‘깜짝세일’ 등이 있다. 이렇게 부사에 명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어 방식과 어긋나서 부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오래전부터 써 오던 우리말에 ‘따로국밥’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⁴⁾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반영하듯 ‘얼짱, 몸짱, 에스(S)라인’과 같은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신체의 특정 부분을 관능적이고

3) 주부들의 ‘귀차니즘’이 생활 가전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안정환보다 더 멋진 ‘얼짱’ 축구선수가 됐을 것이다. -세계일보

4) 한편, ‘먹자골목’, ‘막가파’, ‘묻지마투매’ 등은 동사의 활용형 뒤에 명사나 접미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크게 어긋난다. 그렇지만 우리말의 조어력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1)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장항동 ‘먹자골목’ 주변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부 고용 등 잘못된 영업 행위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자유로포럼

(2) 1996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사건의 주범 최○○도 사형수 신분으로 13년째 복역 중이다. -일요신문

(3) 지금 금융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견디다 못해 ‘묻지마투매’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꿀벅지, 착한 가슴, 초콜릿 복근’과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 성차별적인 인상을 준다.⁵⁾

사실 신조어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된 신조어 가운데 몇몇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말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내기’, ‘도우미’, ‘빨래방’ 등은 생성된 지 십여 년이 넘어 일상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면서 완전한 우리말로 정착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표현 욕구를 지니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 욕구가 더 강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신세대의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사고방식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언어로써 신조어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듯 신조어의 사용이 신세대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고, 우리말의 표현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을 우리말답지 않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우리말을 파괴하면서까지 마구잡이로 신조어를 양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언어 파괴 현상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서 다른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우리말 다듬기의 핵심은 잘못된 어휘를 고쳐 쓰는 것이지만 우리말 다듬기는 어휘만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문장도 대상이 된다. 우리말을 소리 없이 갇아먹고 있는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역시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1] 영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글 쓰는 이의 평소 생활 자세의 진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It is not too much to……’의 영향).

5) 우리 주변에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가치를 주입시키는 표현, 특히 성차별적 표현이나 빈부 차별, 지역 차별, 인종 차별 등과 관련한 표현이 흔하다. 이러한 것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보기: 가정부(家政婦) → 가사 도우미, 살색 → 살구색, 핫팬츠 → 한뼘바지, 터프가이 → 꽤남아, 섹시미 → 관능미/요염함/매력적



- 글 쓰는 이는 평소에 진지한 생활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②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bout'의 영향)
→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 ③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e located in'의 영향)
→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 ④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있었다. ('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
→ 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 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have'의 영향. [참고]: We have much rain.) →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 ⑥ 공격 찬스가 주어지면 기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be given'의 영향)
→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⑦ 새로운 경제팀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be required of'의 영향)
→ 새로운 경제 부처들은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 ⑧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from'의 영향)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⑨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be ~ing'의 영향)
→ 지금 열차가 도착합니다.
- ⑩ 좋은 아침 (되십시오)! ('Good morning!'의 직역)
→ '안녕하십니까?', 또는 '활기찬{멋진} 아침 맞이하십시오.'

[2] 일본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 그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 ②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
→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활용된다.
- ③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의' 남용)
→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 ④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풍토)이다.
- ⑤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임에 틀림없다.
→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틀림없다.

그 밖에 ‘-에 의하여’는 낡은 한문 투이고 ‘-을 가지다’는 영어 ‘have’의 번역 투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이{에서}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우리말 다듬기의 방향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순수성’,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일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2003년부터 일본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순우리말 쓰기’와는 다르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하여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한다.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는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순우리말 쓰기’에 치우치기보다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빌려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친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영국에서처럼 ‘쉬운 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말 다듬기는 시기적절성과 쌍방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널리 쓰여 굳어져 버리고 나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용성은 떨어지고 언중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언중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다듬기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 말이 일상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는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이른 시일 안에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말 다듬기의 시기적절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말터’는 상향식, 쌍방향식, 자율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결과여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얻고 있다.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⁶⁾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타율

6)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9년 6월부터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투표에 올릴 순화 후보어를 선정할 때 순화위원의 추천을 받고, 국립국어원의 국어 전문가가 후보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우리말 다듬기의 예들이다.⁷⁾

- (21) 말터에서 다듬은 말
- 웰빙 → 참살이
 - 이모티콘 → 그림말
 - 올인 → 다걸기
 - 콘텐츠 → 꾸림정보
 - 네티즌 → 누리꾼
 - 포스트잇 → 붙임쪽지
 - 스티커 → 붙임딱지
 - 언론플레이 → 여론몰이
 - 투잡 → 겹벌이
 - 형그리정신 → 맨주먹정신
 - 메신저 → 쪽지창
 - 타임서비스 → 반짝할인
 - 랜드마크 → 마루지
 - 웹서핑 → 누리검색
 - 뷰파인더 → 보기창
 - 리플 → 댓글
 - 스팸메일 → 쓰레기편지
 - 유비쿼터스 → 두루누리
 - 팝업창 → 알림창
 - 커플룩 → 짝궁차림
 - 유에스비(USB) 메모리 → 정보막대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아무리 좋은 단어와 표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언중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듯이 다듬은 말에 대한 전 국민의 실제적

7)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 www.malteo.net)’ 게시판 ‘이렇게 바뀌었어요!’에서 그동안 다듬은 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정보마당 → 어휘 검색 → 순화어(http://korean.go.kr/08_new/index.j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 사용 절차가 있어야 우리말 다듬기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러려면 정규 교육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우리말 다듬기의 결과나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거나 교육해야 할 것이다.

6. 공공기관 언어 다듬은 사례

6.1. 다듬은 사례(1)__중앙 부처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건설교통부	절토법면	흙 깎기 비탈면
건설교통부	톨게이트(Toll Gate)	영업소, 요금소
건설교통부	크러셔(C/R) Crusher	골재 생산장
건설교통부	로드킬(Road kill)	동물 교통 사고
건설교통부	웻 리스(Wet lease)	포괄 임차
건설교통부	ITS 아키텍처(ITS architecture)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구성도
건설교통부	다루키(垂木)	서까래
건설교통부	컨센서스(Consensus)	의견 일치
건설교통부	마인드맵(Mnd map)	연상법
건설교통부	CCTV(closed circuit TV)	폐쇄 회로 텔레비전/ 상황 관찰기
건설교통부	롤모델(Role model)	본보기
건설교통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시청각 설명(회)
건설교통부	케이터링(catering)	출장 요리
건설교통부	마일리지 서비스(mileage service)	이용 실적 서비스
건설교통부	수로도서지(水路圖書紙)	해도 및 항해 서지
건설교통부	VTS(vessel traffic system)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건설교통부	틸팅열차(tilting-)	준고속 열차
건설교통부	사이버 인프라 구축(cyber infra-)	전자 정보 공유 기반 시설 구축
건설교통부	잔여지(殘餘地)	자투리 땅
건설교통부	F.O.D.(Foreign Object Damage)	항행 위험물
건설교통부	PQ입찰(Pre-Qualification)	사전 심사 입찰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건설교통부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 정보 공유 시스템
건설교통부	제내지(堤内地)	제방 밖
건설교통부	BSC(BSC)	균형 성과표
건설교통부	보링(boring)	시추
건설교통부	코드 웨어(Code share)	공동 편명
건설교통부	편경사(扁傾斜)	횡단 기울기
건설교통부	도류화	곡선화
건설교통부	IC(Interchange)	나들목
건설교통부	페이스매핑(Face mapping)	사면 전개도
건설교통부	드라이 리스(Dry lease)	단순 임차
건설교통부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 연구 동아리
건설교통부	브릿지(Bridge)	탑승교
건설교통부	R & D 사업(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사업
건설교통부	차터(Charter)	전세편 항공기
건설교통부	오픈스카이(Open skies)	항공 자유화
건설교통부	로드 팩터(Load factor)	탑승률
건설교통부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 전광 표지
건설교통부	VE(value engineering)	가치 제고 기술
건설교통부	나라시(均し)	고르기
건설교통부	다이크(Dike)	배수 턱
건설교통부	성토법면	흙 쌓기 비탈면
건설교통부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체계
건설교통부	매뉴얼(Manual)	지침서
건설교통부	사인보드(Sign Board)	안전 유도판
건설교통부	위빙(Weaving)	엇갈림
건설교통부	배칭플랜트(B/P) Batching plant	콘크리트 생산장
건설교통부	SOC사업(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
건설교통부	TCS(Toll Collecting Systems)	통행료 수납 장치
건설교통부	브레이크(Breaker)	파쇄기
건설교통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기술
건설교통부	유도펜스(유도 Fence)	유도 울타리
건설교통부	구배(勾配)	기울기
건설교통부	딜리니에이터(Delineator)	시선 유도 표지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건설교통부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 안전도 평가
건설교통부	단도리(段取り)	준비
건설교통부	루베(立方米(るべ))	세제곱미터
건설교통부	헤베(平方米)	제곱미터
건설교통부	반센/반생(盤線)	콘 철사, 연철사
건설교통부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건설교통부	리콜(Recall)	제작 결함 시정
건설교통부	바리케이드(barricade)	차단 시설물
건설교통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건설교통부	ABS(Anti-lock Brake System)	마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
건설교통부	가드레일(guardrail)	방호 울타리
건설교통부	명예연안관리인제도	연안 지킴이 제도
건설교통부	R&D(Rease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공정거래위원회	CP(Compliance Program)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제(Escrow)	결제 대금 예치제
공정거래위원회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 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현충선양 프로그램	나라 사랑 참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케어 플랜	간호 복지 계획/복지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거버넌스 (Governance)	정책, 행정, 관리, 통치 (※ 문맥에 따라 선택)
문화체육관광부	U-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	뮤지엄 콤플렉스	국립박물관 복합 단지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ICT	녹색 방송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드 컴퓨팅	컴퓨터 연계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환경부	어독성	어류 독성
환경부	그린인프라	녹색 기반 시설
환경부	포기(조)	공기 공급(조)
환경부	비산먼지	날림 먼지

6.2. 다듬은 사례(2)_충청북도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랜드마크	마루지	25	오프닝	개막 (공연)
2	러브투어	~ 사랑 방문	26	워크숍	수련회, 연수회
3	로드맵	밀그림, 청사진, 길잡이, 단계별 이행안	27	원스톱	바로, 한번에, 한자리
4	리모델링	구조 변경, 새 단장	28	웰빙	참살이
5	매칭펀드	대응 자금, 대응 기금	29	이벤트	행사, 사건
6	메세나	문예 후원	30	인랜드포트	내륙항
7	모니터	정보 검색, 감시, 관찰, 점검	31	인센티브	유인책, 특전
8	바우처	복지 교환권, 복지 상품권	32	인프라	기반 (시설), 바탕
9	바이오메디컬	생명 의학 중심(지)	33	제로베이스	원점
10	뱅크	은행	34	콘텐츠	내용(물), 꾸림 정보
11	벤치마킹	견주기, 따라잡기	35	큐시트	진행표
12	벨트	지대, 구역, 띠	36	클러스터	연합 (지구)
13	브랜드	상표, 명품	37	클로징	마무리, 맺음
14	비전	이상, 전망	38	타깃마케팅	주요 판촉, 중점 판촉
15	서비스	봉사, 접대, 도움	39	태스크포스	전략팀, 기획팀, 특별팀
16	서포터스	후원자, 지지자, 응원단, 뒷바라지꾼	40	테마	주제
17	세미나	발표회, 연구회, 토론회	41	테크노폴리스	첨단 산업 연구 도시
18	센터	본부, 중앙, 중심 (지)	42	템플스테이	사찰 체험
19	슬로건	표어, 강령, 구호	43	패러다임	틀, 체계
20	시그널	신호	44	패밀리	가족
21	시니어클럽	어르신 모임, 어르신 동아리	45	펠릿	(연료, 비료, 먹이) 덩이
22	아이디어 챌린지	아이디어 겨루기, 아이디어 공모전, 참신한 생각 공모전	46	포럼	토론회, 연구회
23	어젠다	의제	47	프로그램	계획표, 차례
24	어메니티	쾌적함	48	프로젝트	연구(과제), 일감, 사업



6.3. 다듬은 사례(3)__특허심판원 심결문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개시된	드러내 보인	12	적의	알맞게/적절히
2	당업자	해당 사업자	13	정정개소	고친 곳
3	상당하다	알맞다	14	시건	잠금
4	형해화(形骸化)될	유명무실해질	15	실효적으로	실효 있게
5	가사	설령/설사	16	안치대	보관대
6	설시	자세한 설명	17	유부	유사 여부/ 비슷한지 아닌지
7	관련성	관련성/연관성	18	일의적	뜻이 같은
8	화체된	내재된/ 들어 있는	19	성막된, 성막하는	막이 형성된, 막을 형성하는
9	일응	일단	20	교호로	번갈아/교대로/ 어긋나게
10	요부	중요한 부분	21	대향하도록	마주보도록
11	상이한	(서로) 다른	22	배소	가열

6.4. 다듬은 사례(4)_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 용어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추락	떨어짐
2	전도·전복	넘어짐
3	붕괴·도괴	무너짐
4	충돌·접촉	부딪침
5	낙하·비래	날아옴
6	협착·압박	끼임
7	전류 접촉	감전

7. 다듬은 말 익히기

■ 다음을 다듬은 말(순화어)로 써 보자.

- | | |
|-------------------------------|-----------------------|
| [1] 빠꾸(back) | [29]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
| [2] 샷시(sash) | [30] 후카시(吹かし, ふかし) |
| [3] 조끼(jug) | [31] 겐세이(牽制, けんせい) |
| [4] 화이버(fiber) | [32] 다이(臺, だい) |
| [5]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 [33] 에리(襟, えり) |
| [6] 리모컨(remote control) | [34] 시다바리(←下張り, したばり) |
| [7] 쇼바(shock absorber) | [35] 분빠이(分配) |
| [8] 고참(古參) | [36] 노가다(←土方, どかた) |
| [9] 과물(果物) | [37] 닭도리탕[-鳥(とり)湯] |
| [10] 구보(驅歩) | [38] 비까번쩍하다(びか—) |
| [11] 기라성(綺羅星) | [40] 뽀록나다[襤褸(ぼろ)—] |
| [12] 노견(路肩) | [41] 왔다리 갔다리(-たり -たり) |
| [13] 대절(貸切) | [42] 곤색[紺(こん)色] |
| [14] 망년회(忘年會) | [43] 만땅(滿tank) |
| [15] 사라(皿, さら) | [44] 소라색[空(そら)色] |
| [16] 쇼부(勝負, しょうぶ) | [45] 여비(旅費) |
| [17] 수순(手順) | [46] 출산(出産) |
| [18] 수출고(輸出高) | [47] 금번(今番) |
| [19] 십팔번(十八番) | [48] 금회(今回) |
| [20] 용달(用達) | [49] 부의(附議) |
| [21] 익일(翌日) | [50] 멸실(滅失) |
| [22] 제전(祭典) | [51] 삭도(索道) |
| [23] 하구언(河口堰) | [52] 해태(懈怠) |
| [24] 소데나시(袖無し, そでなし) | [53] 당해(當該) |
| [25] 엔꼬(えんこ) | [54] 후룻쿠 |
| [26] 와쿠(杵, わく) | [55] 이모티콘 |
| [27] 우와기(上衣, うわぎ) | [56] 올인 |
| [28] 유도리(←ゆとり) | [57] 콘텐츠 |



- | | |
|-------------|-------------|
| [58] 네티즌 | [73] 다크서클 |
| [59] 슬로푸드 | [74] 매치업 |
| [60] 퀵서비스 | [75] 뉴타운 |
| [61] 컬러링 | [76] 타임서비스 |
| [62] 포스트잇 | [77] 스카이라운 |
| [63] 클린 센터 | [78] 언론 플레이 |
| [64] 블로그 | [79] 유시시 |
| [65] 커플 매니저 | [80] 핫팬츠 |
| [66] 헝그리 정신 | [81] 스터디셀러 |
| [67] 투잡 | [82] 웹서핑 |
| [68] 메신저 | [83] 타임캡슐 |
| [69] 터프가이 | [84] 핸드프리 |
| [70] 드레싱 | [85] 조리 |
| [71] 웰빙 | [86] 워터파크 |
| [72] 그룹 홈 | [87] 뷰파인더 |

♠ 정답 ♠

- | | | |
|----------------|--------------------|---------------|
| [1] 후진/뒤로, 퇴짜 | [31] 견제 | 음 |
| [2] 새시/문틀/창틀 | [32] 대/받침(대) | [62] 붙임쪽지 |
| [3] 잔 | [33] 깃 | [63] 청백리마당 |
| [4] 안전모 | [34] 보조원/밑일꾼 | [64] 누리사랑방 |
| [5] 회반죽 차 | [35] 노느매기/분배 | [65] 새들이 |
| [6] 원격 조종기 | [36] 막노동/(공사판) 노동자 | [66] 맨주먹정신 |
| [7] 완충기 | [37] 닭볶음탕 | [67] 겹벌이 |
| [8] 선임(자) | [38] 번쩍번쩍하다 | [68] 쪽지창, 전달자 |
| [9] 과일 | [40] 들통 나다 | [69] 쾌남아 |
| [10] 달리기 | [41] 왔다 갔다 | [70] 맛깔장 |
| [11] 빛나는 별 | [42] 감색/진남색 | [71] 참살이 |
| [12] 갯길 | [43] 가득/가득 채움 | [72] 자활꿈터 |
| [13] 전세 | [44] 하늘색 | [73] 눈그늘 |
| [14] 송년회 | [45] 노자(路資)/노잣돈 | [74] 맞대결 |
| [15] 접시 | [46] 해산(解産) | [75] 새누리촌 |
| [16] 결판 | [47] 이번 | [76] 반짝할인 |
| [17] 순서/차례 | [48] 이번 회 | [77] 하늘섬터 |
| [18] 수출량 | [49] 회의에 부침 | [78] 여론몰이 |
| [19] 애창곡/단골 노래 | [50] 없어짐 | [79] 손수제작물 |
| [20] 심부름 | [51] 밋줄/하늘 찾길 | [80] 한뼘바지 |
| [21] 이튿날/다음날 | [52] 게으름 | [81] 늘사랑상품 |
| [22] 잔치 | [53] 해당(該當)/그 | [82] 누리검색 |
| [23] 강어귀 둑 | [54] 어중치기 | [83] 기억상자 |
| [24] 민소매 | [55] 그림말 | [84] 맨손통화기 |
| [25] 떨어짐, 바닥 | [56] 다걸기 | [85] 가락신 |
| [26] 틀 | [57] 꾸림정보 | [86] 물놀이공원 |
| [27] 윗도리/상의 | [58] 누리꾼 | [87] 보기창 |
| [28] 유연/융통 | [59] 여유식 | |
| [29] 선전지 | [60] 늘찬매달 | |
| [30] 품재기, 부풀이 | [61] 멋울림/발신 대기 |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 김길동(2009), 우리말 다듬기,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 김형배(2004/2009), 한국어능력시험, 신지원.
-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 최용기 · 민현식 · 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형배의 한말글사랑*생활국어 연구소 <http://cafe.naver.com/hanmal>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말터) <http://www.malteo.net>



[참고] 우리말 다듬기(말터 사이트의 다듬은 말 목록)

(기간: 2004. 7. 12. ~ 2010. 12. 8.)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가십(gossip) 거리	입방아 거리
갈라쇼(gala show)	뒤플이공연
게이트(-gate)	의혹사건
골드미스(Gold Miss)	황금독신여성
교례회(交禮會)	어울모임
그라피티(graffiti)	길거리그림
그룹 홈(group home)	자활꿈터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환경덧두리
글램핑(glamping)	귀족야영
내비게이션(navigation)	길도우미
네이미스트(Namist)	이름설계사
네티즌(netizen)	누리꾼
넷북(Net-book)	손누리틀
노미네이트(nominate)	후보지명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지도층 의무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구설(수)홍보
뉴타운(new town)	새누리촌
다이(DIY←Do It Yourself)	손수짜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교훈여행
다크서클(dark circle)	눈그늘
더치페이(Dutch pay)	각자내기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 techart: 기술(tech)과 예술(art)을 합친 말	예술감각상품
드라이브(drive)	몰아가기
드레스 코드(dress code)	표준옷차림
드레싱(dressing)	맛깔장
드로어즈(drawers)	맵시속바지
디그(dig)	받아막기
디엠(DM, Direct Mail)	우편광고(물)
디오라마(diorama)	실사모형
디펜딩 챔피언(defending champion)	우승지킴이
딩펫족(Dinkpet族)	맞벌이애완족
랜드마크(landmark)	마루지
러브 라인(love line)	사랑구도
러브콜(love call)	부름공세
레시피(recipe)	조리법
레이싱 걸(racing girl)	행사빛냄이
레퍼런스(reference)	고품질
로고송(logo song)	상징노래
로드 무비(road movie)	여정영화
로드킬(roadkill)	찾길동물사고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로밍(roaming)	어울통신
루미나리아(luminaria)	불빛축제
루비족(RUBY族)	새봄여성
리메이크(remake)	원작재구성
리콜(recall)	결함보상(제)
리퍼브(←refurbished)	손질상품
리플(Reply)	댓글
립싱크(lip sync)	입술연기
마리나(marina)	해안유원지
마블링(marbling)	결지방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	명인강좌
마우스 포테이토(mouse potato)	꼴방누리꾼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Micro Blog, twitter)	댓글나눔터
마일리지(mileage)	이용실적점수
메스티지(masstige)	대중명품
매치업(match-up)	맞대결
머스트 해브(must have)	필수품
멀티탭(multi-tap)	모듬꽃이
메세나(mécénat)	문예후원
메신저(messenger)	쪽지창
멘토(Mentor)	인생길잡이
모티켓(motiquette)	통신예절
무빙 워크(moving walk)	자동길
미션(mission)	중요임무
바우처 제도(voucher 制度)	복지상품권제도
박스 오피스(box office)	흥행수익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방카쉬랑스(bancassurance)	은행연계보험
백댄서(back dancer)	보조춤꾼
보드마커(board marker)	칠판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음성사기전화
보케베케(vocation-vacation)	꿈나라휴가
뷰파인더(viewfinder)	보기창
브랜드 파워(brand power)	상표경쟁력
브런치(brunch)	어울참
브로마이드(bromide)	벽불이사진
브이오디 서비스(VOD service)	다시보기
블라인드(blind)	(정보)가림
블로그(blog)	누리사랑방
블루오션(blue ocean)	대안시장
블루투스(blue tooth)	짬지무선망
블록(block)	누리글보따리
비트박스(beat box)	입소리손장단
빅 리그(big league)	최상위연맹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빙고(bingo)	맞았어
사이버 대학(cyber 大學)	두루누리대학
샐러던트(saladent)	계발형직장인
샘플러(sampler)	맛보기묶음
생식건강(生殖健康)	생명샘건강
상그릴라(Shangri-la)	꿈의낙원
선루프(sunroof)	지붕창
선팅(sunting)	빛가림
성큰가든(sunken garden)	뜨락정원
세트 피스(set piece)	맞춤전술
셀슈머(sellsumer)	누리장터꾼
셀프카메라(self camera)	자가촬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소통망(서비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공동할인구매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무점포사업
솔 메이트(soul mate)	교감지기
쇠파라치(쇠parazzi)	쇠고기신고바치
쇼케이스(showcase)	선보임공연
쇼플러(Shopper)	원정구매족
숍인숍(shop in shop)	어울가게
슈터링(shootering)	꼴문어림차기
스도쿠(すどく/數獨)	숫자넣기
스마트워크(smart work)	원격 근무
스마트폰(Smart phone)	똑똑(손)전화
스카이라운지(sky lounge)	하늘썬터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안전문
스킨십(skinship)	피부교감
스타일리스트(stylist)	맵시가꿈이
스탠더드 넘버(stadard number)	대중명곡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늘사랑상품
스토리보드(storyboard)	그림줄거리
스파이웨어(spyware)	정보빼내기프로그램
스팸 메일(spam mail)	쓰레기 편지
스펙업(spec-up)	깜냥쌓기
스포일러(spoiler)	영화헤살꾼
스포테인먼트(spotainment)	홍끌이운동
스팟 광고(spot 廣告)	반짝광고
슬로시티(slow city)	참살이지역
슬로푸드(slow food)	여유식
슬롯머신(slot machine)	성인오락기
시시티브이(CCTV)	상황관찰기
시즌(season)	~ 번째 이야기
실버시터(silver sitter)	경로도우미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싱글맘(single mom)	홀보듬엄마
아우라(Aura)	기품
아우터(outer)	겉차림옷
아이쇼핑(eye shopping)	눈길장보기
아이젠(eisen)	눈길덧신
아이콘(icon)	상징(물)
아이피티브이(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맞춤형누리방송
아카이브(archive)	자료전산화
아킬레스건(Achilles 腱)	치명(적)약점
아티젠(Artygen)	감각세대
알파걸(alpha girl)	으뜸녀
언더패스(underpass)	아래차로
언론 플레이(言論 play)	여론몰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학습
에스라인(S-line)	호리병 몸매
에스오에스(SOS)	구원요청
에코맘(EcoMom)	환경친화주부
엑스파일(X file)	안개문서
엔딩크레딧(ending credit)	끝맺음자막
엔지족(NG←No Graduation 族)	늑장졸업족
엠니스족(M-ness 族)	주부남
영건(young gun)	기대주
예티족(Yettie 族)	자기가치개발족
오마주(hommage)	감동되살이
오일볼(oil ball)	기름몽치
오프라인(off-line)	현실공간
오픈 하우스(open house)	열린집/집열기
오픈마켓(Open Market)	열린 장터
올인(all-in)	다걸기
옴부즈맨(ombudsman)	민원도우미
와이브로(WiBro)	휴대누리망
와이파이(Wi-Fi)	근거리무선망
워킹맘(working mom)	직장인 엄마
워터파크(waterpark)	물놀이공원
원샷(one-shot)	한입털이
원톱(one top)	홀로주연
월풀(whirlpool)	공깃방울목욕
웨딩플래너(wedding planner)	결혼도우미
웰본(well-born)	배넛바라지
웰빙(well-being)	참살이
웹버족(Webver 族)	은빛누리꾼
웹서핑(web surfing)	누리검색
웹툰(Webtoon)	누리터쭈그림
유비쿼터스(ubiquitous)	두루누리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유시시(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유에스비(USB)메모리	정보막대
이모티콘(emoji)	그림말
정크푸드(junk food)	부실음식(식품)
제로베이스(zero base)	백지상태
조리(ぞうり/草履)	가락신
쭈마테이너	채치부인
체리 피커(cherry picker)	금융암채족
치어리더(cheerleader)	흥돋음이
칙릿(chick-lit)	꽃띠문학
카시트(car seat)	아이안전의자
캐리어(carrier)	아이업개
캐릭터(character)	특징물
캐포츠(caports)	활동복
캠프파이어(campfire)	모닥불놀이
캡처(capture)	장면갈무리
커튼콜(curtain call)	부름갈채
커플 매니저(couple manager)	새들이
커플룩(couple look)	짝꿍차림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가온머리
컬러링(color ring)	멋올림
컬트(cult)	소수취향
케이타링(catering)	맞춤밥상
코드(code)	성향
코드프리(codefree)	빋장풀기
코르사주(corsage)	맵시꽃
콘텐츠(contents)	꾸림정보
퀄리티 스타트(quality start)	선발패투
퀵서비스(quick service)	늘찬배달
크레이들(cradle)	다목적꽃이
크로스백(cross bag)	엇걸이가방
크리에이터(creator)	광고창작자
클러스터(cluster)	산학협력지구
클린 센터(clean center)	청백리마당
키덜트(kidult)	어른왕자
키맨(key man)	중추인물
키치(kitsch)	눈길끌기
킬힐(kill heel)	까치발구두
타운하우스(town house)	공동전원주택
타임 서비스(time service)	반짝할인
타임캡슐(time capsule)	기억상자
터프가이(tough guy)	꽤남아
테스터(testing)	체험평가자
테스트베드(test bed)	가늀터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투잡(two job)	겹벌이
트랜스 지방(trans 脂肪)	변이지방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옴표상징
트리트먼트(treatment)	머릿결영양제
티처보이(teacher boy)	교사의존학생
팁(tip)	도움말
파이팅(fighting)	아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맛보기프로그램
파트너십(partnership)	동반관계
파파라치(paparazzi)	몰래채보꾼
팝업창(pop-up窓)	알림창
패딩(padding)	누비옷
패셔니스타(fashionista)	맵시꾼
패키지(package) 상품	꾸러미상품
팩(pack)	피부가꾸제
팩션(faction)	각색실화
팬미팅(fan meeting)	다솜모임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	초상사용권
퍼스나콘(personacon)	개성표현꼴
펍킨족(펍KIN族)	펍누리꾼
펜트하우스(penthous)	하늘채
포스트잇(Post-it)	붙임쪽지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철새교수
풀 세트(full set)	다모음
푸레/퓨레(Purée)	과립즙
프라브족(PRAV族←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 族)	알뜰개성족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시청각설명(회)
프로슈머(prosumer)	참여형소비자
프리 사이즈(free size)	열린치수
프리터족(freeter族)	자유벌이족
프티 성형(petit 成形)	여우비성형
플라모델(plamodel)	조립모형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체험판매장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자백감형제(도)
피싱(phishing)	정보도둑
피처링(featuring)	돌출연주
하드보일드(hard-boiled)	냉혹기법
하이브리드(hybrid)	어우름
하이파이브(high five)	손뼉맞장구
할리우드액션(Hollywood action)	눈속임짓
핫이슈(hot issue)	주요쟁점
핫팬츠(hot pants)	한뼘바지
해피 엔딩(happy ending)	행복결말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핸드프린팅(handprinting)	기념손찍기
핸즈프리(handsfree)	맨손통화기
허브족(hub-族)	마당밭족
헝그리 정신(hungry 情神)	맨주먹정신
헤드셋(headset)	통신머리띠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누리물난전꾼
헬리콥터 부모	치마폭부모
호롯쿠(フロック)	어중치기
호스피스(hospice)	임종봉사자
홀드(hold)	중간구원
홈베이킹(home baking)	손수굽기
후카시(ふかし/吹かし)	품재기 ※ ‘품’(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과 ‘재기’[‘재다’(잘난 척하며 으스대거나 뽐내다)의 명사형]의 합성어
후크송(Hook Song)	맴돌이곡
휘핑(weeping)	거품크림
휴테크(休tech)	여가활용기술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폐쇄은둔족



문장 바로 쓰기

좋은 문장의 지향점

좋은 문장이라면 모름지기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2. 일차고 합리적으로: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합리적으로 하기, 균형 맞추기.
3. 통일성 있게: 내용에 맞는 제목 달기, 문장 간·문단 간의 긴밀도 높이기, 접속 부사 잘쓰기.
4. 일관되게
5. 문법 지키며: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루기, 접속에서 부당한 공유 피하기, 조사·어미 잘 고르기, 사동·피동 표현 가려 하기.
6. 어문 규정 지키고: 어문 규정 따르기, 수 표현법 지키기, 표준 화법 지키기, ‘국어 기본법’ 지키기.
7. 마무리 잘 짓고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 의미 뚜렷이 하기, 지시어 명확히 하기, 어순 적절히 하기, 접속 부사 오·남용하지 않기, 지나친 생략 하지 않기.
9. 단어 선택 적확하게: 들어맞는 말 찾기, 동음어·다의어 피하기, 같은 말·뜻 겹친 말 피하기, 쉬운 말과 순화어 쓰기, 차별어 피하기.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조사 활용하기, 어미 활용하기, 해당 단어 찾아 쓰기, 불필요한 성분 생략하기, 되풀이되는 말 줄여 쓰기, 문장 길이 알맞게 하기.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편하게 하기, 자연스럽게 하기, 상투적으로 하지 않기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글을 쓸 때 그 글을 읽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일은 글쓰기의 목적을 정하는 일과 함께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목적과 대상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구사하고, 대상에 맞는 자료를 제시할 때 그 글은 ‘대상 부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 (1) <u>열</u> 받은 직원들 | (2) ‘ <u>왕따</u> ’ 당하는 |
| (3) <u>일개</u> 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

2. 알차고 합리적으로

글은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하며 분명하여야 한다.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 정보, 지식, 느낌, 관념 등 독자가 ‘얻을 것’이 충분히 들어 있고, 그 내용이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표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운전자 여러분!>

-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착용시 사망률 22.8%, 부상률 16-18% 감소

-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착용시 사망률 22.8%, 부상률 16-18% 감소

나. 합리적으로 하기

- (1) 하산할 때에는 쓰레기를 되가져갑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균형 맞추기

- (1) 기념관, 조형물, 거리 명칭, 역사 교육 등을 통해
(2) 출제자는 출제 문제와 정답표를 봉합 봉인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3)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농민은 10%, 한라봉 등 품종 갱신 14%, 점차적으로 비가림 재배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0%이다.
(4) 대학생, 중년층, 건강한 전문 직업인의 각 그룹 간에 경험하는 일상 문제 중 공통적인 것은 물건의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을 때, 외모, 과도한 업무량 등이었다.

3. 통일성 있게

‘통일성’ 있는 글이란 한 가지의 중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나타낸 글이다. 통일성이 없이 짜임새가 엉성한 글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한다. 특히 본문과 제목 간의 유관성, 문장 간 통일성을 이루려면 문장 간·문단 간의 긴밀성, 접속 부사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 내용에 맞는 제목 달기

<여성 복지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전화 번호	소재지
미혼모 시설	○○○	○○○	○○○
가정폭력 상담소	○○○	○○○	○○○
성폭력 상담소	○○○	○○○	○○○

나. 문장 간 · 문단 간의 긴밀도 높이기

참가비를 대신 분은 명찰을 준비하여 드리고 심포지엄, 강좌 및 자유 연제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점심, 만찬이 제공됩니다. 명찰 케이스 속에 식권이 삽입되어 있고 식사 시 이 식권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접속 부사 잘 쓰기

- (1)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2) 노인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에 걸리게 되므로, 신체적·심리적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력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절망케 하여

4. 일관되게

‘일관성’이란 글의 태도나 필자의 관점이 전체를 꿰뚫는 흐름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한다. 대부분의 글은 문단 내부의 관점이나 태도 면에서 일관성 유지를 잘하고 있다. 다만, 문장 표현에서 사소하나마 일관성을 깨는 예가 보인다.

- (1) 응시자는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함.
-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문법 지키며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을 이루게 하고, 부당한 공유를 피하며,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고르며 사동·피동 표현을 바로 하는 것 등은 문법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예다. 내용을 담아 단어나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말 문법의 규칙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루기

- (1)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 여고생의 섭식 행동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비만 여고생을 위한 건강 교육과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일부 시민들은 복조리를 나눠 주는 것은 우리 고유 풍습이 아닌데도 행정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3) Herman은 음악의 치료 효과는 ㉠ 음악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 내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 (4) ...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하는 판매장
- (5) 최근 소송대리인이 관련 대여금 사건을 진행 중
- (6) 이미 배당금을 찾아갔다는 말을 하여 사건을 추적하여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 (7) 뇌졸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며
- (8) 얼어 있는 육류는 조리하기 전에 완전히 해동한 후 조리한다.

나. 접속에서 부당한 공유 피하기

- (1) 애국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2) 짧은 시간과 경비 때문에
- (3)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 (4) 탈의실 신발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사용 중인 신발은 개인 보관이나 헬스장으로 연락 바랍니다.
- (5) 경찰은 ...개방해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 (6) 학생을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7) 감면을 및 감면 기간을 축소함.

다. 조사 · 어미 잘 고르기

-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2)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4) 누구든지 ...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5) ...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6) 그는 매우 천천히 작업을 했고 그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7) 그는 늘 왼손을 주로 쓰려고 했으나 이는 그에게 익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 사동 · 피동 표현 가려 하기

〈1〉 사동법 바로 쓰기

- (1)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2)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
 (3) 불공정성을 시정시키기 위한 법률 (4) 어린이들이 연결시켜도 안전합니다.
 (5)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6) 첫째 ... 둘째, IT강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가 이미지를 한껏 제고시키고, 셋째, ... 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키고, 넷째, 10개의 개최 도시를 세계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며,

〈2〉 피동법 바로 쓰기

- (1) 현실 타개를 위한 적극적 실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어린이의 사고에 제약이 주어질수록 합리적 탐색과 부적당한 탐색 영역의 구별이 어렵게 된다.
 (3)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이상으로 고려되어지고 있어
 (4) 둘로 나뉘어지는 물건 (5) 문이 꼭 닫혀져서 잘 열려지지 않는다.
 (6) 글씨가 잘 쓰여지지 않고 (7) 잘 짜여진 글을 읽고
 (8) 이러한 일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6. 어문 규정 지키고

글을 쓸 때에는,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여 정부 이름으로 고시한 어문 규정을 충실히 잘 따라야 한다. 글 중에는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등이 보편적인 어문 규정에서 벗어나는 예가 보인다.

가. 어문 규정 따르기

〈1〉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지키기

- | | |
|---------------------------------|-----------------------------|
| (1) 첫걸음을 <u>내딛었다</u> . | (2) 탈곡하는 <u>싯집</u> |
| (3) 이 자리를 <u>빌어</u> 감사의 말씀을.... | (4) <u>세째</u> 아이부터 지원된다. |
| (5) 창립 <u>첫돌</u> 기념 행사 | (6) 정답을 <u>정확히 맞추었다</u> . |
| (7) 투표에 <u>붙이는</u> 안건 | (8) 그가 <u>생각했는</u> 내용을 확인하여 |

〈2〉 띄어쓰기 지키기

- | | | | | |
|---------------|-----------|-----------|-----------|----------|
| (1) 갯스물에 | (2) 대한 민국 | (3) 덧 씌우는 | (4) 돌연 변이 | (5) 이 때 |
| (6) 이틀 간 | (7) 전세계 | (8) 제 자리 | (9) 틀 니 | (10) 한 입 |
| (11) 표현과 이해요소 | (12) 헨리4세 | | | |

〈3〉 문장 부호 사용법 지키기

(가) 따옴표와 반점(쉼표)

- | | |
|--|--|
| (1)... <u>숲</u> 을 온대림이라고 한다. | (2) <u>원장</u> 이나 <u>고추장</u> 으로 제목을 달자. |
| (3) <u>춘원</u> 이 무정을 발표했다.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5) ①우리의 창 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②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③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④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 |

(나) 쌍점과 온점(마침표)

- | | |
|--------------------------|--------------------|
| (1) 때 : 2010. 5. 5 오후 2시 | (2) 곳 : 국립국어원 세미나실 |
|--------------------------|--------------------|

〈4〉 외래어 표기법 지키기

- | | | | |
|-----------------------------|------------------------|--------------------|---------------------|
| (1-1) 레 <u>저</u> 용품 | (1-2) 비 <u>전</u> | (2-1) 리 <u>더</u> 쉽 | (2-2) 파 <u>트너</u> 쉽 |
| (3-1) <u>씨</u> 비스 <u>센타</u> | (3-2) 2,000 <u>씨</u> 씨 | (4-1) 케 <u>익</u> | (4-2) 녹음 테 <u>일</u> |

나. 수 표현법 지키기

- (1)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행위 (2) 2 사람, 5살 때, 종이 3장

다. 표준 화법 지키기

- (1-1)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을 축하드리며

라. ‘국어 기본법’ 지키기

TV를 보면서 CD를 들었다.

7. 마무리 잘 짓고

‘완결성’은 의문의 여지가 남지 않는 상태의 성질을 가리킨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글은 완결성이 부족한 글이다.

- (1) 지급각서는 ... 제출한 입찰서로 같음 (2) 누구나 부르기 쉽고 ... 짧은 문구
(3) 작성 요령... 참고하여 작성 (4) 신고 관련 서식은 ...에서 무료로 제공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

한 문장이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명료함’이다.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 뚜렷한 뜻을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나 지시어, 부적절한 어순, 지나친 생략은 피하여야 한다.

가. 의미 뚜렷이 하기

-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느낌을 살려 인물이 한 말을 읽어 봅시다.



나. 지시어 명확히 하기

- (1)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 (2) 나는... 교실을 뛰어나왔다. 그렇지 않은 날은 골목에서 기다렸다.
- (3) 자식은 부모가 피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환자이며 고통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안락함을 증진하고 도움과 이해로써 감싸야 한다.

다. 어순 적절히 하기

- (1)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2)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이 많았으며
-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자
- (4) '토지'는 박경리의 장편 대하소설로서, 1969년부터 집필하여 10년 넘게 총 15권으로 완성되었다.

라. 접속 부사 오·남용하지 않기

- (1) 주제 및 발표자 (2) ...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에 따라

마. 지나친 생략 하지 않기

- (1) 극의 완성도에 노력했다. (2) 위험 요인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자.
- (3) 심전도 검사에 이상이 있는 분 (4)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 (5) 골프장 코스 안에서는 금연하고 어길 경우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 (6)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적 욕구가 있다.
- (7) 서로 다른 컵 (8) 소년은 송아지를 뜯기며
- (9) 우리가 발명한 금속 활자 인쇄 (10) 나름대로 모색한 결과
- (11) 뿐만 아니라 (12) 교수 능력 진단 및 개발을 위한 연수...

9. 단어 선택 적확하게

글 전체가 짜임새 있고 각 문장이 어법에 맞으며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적절하게 쓰여야,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단어 선택이야말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가. 들어맞는 말 찾기

- (1) 파격적인 미술전의 관람 가격 (2) 병에 걸릴 가능성
 (3) 난이도를 낮추어 쉬워진 문제 (4) 추진하는 와중에
 (5-1) 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5-2) 바람이 너무나 살갑게 느껴져
 (6) 만족도가 선진국에 버금간다. (7) 집집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8) 고객에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9)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0) 희망자는 접수하세요. //방문 접수
 (11) 국어과에서 ‘수준’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및 학습 능력에 제한시키
 지 않고
 (12)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13)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 동음어 · 다의어 피하기

〈1〉 동음어 피하기

- (1) 다과(茶果/茶菓) (2) 방화한(放火-/防火-)
 (3) 수상한(授賞-/受賞-) (4) 유아(幼兒/乳兒)

〈2〉 다의어 피하기

- (1) 제913조 내지 제915조 (2)子是父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 같은 말 · 뜻 겹친 말 피하기

- (1) 타지에 게재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한 것을 타
 지에 임의로 게재하거나 전재할 수 없다.
 (2) 자매결연을 맺고 (3) 기간 동안 (4) 매 순간마다 (5) 널리 선양하여
 (6) 애환과 기쁨 (7) 미리 예약한 (8) 스스로 자인하는 (9) 접수받은
 (10) 탄신일 (11) 현안 과제/현안 문제



라. 쉬운 말과 순화어 쓰기

- (1)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2) 기(既) 제시한 (3) 이에 기(基)한 배당 신청
 (4) 합격증을 교부하고 (5) 의당 동 등기는
 (6-1) ...의 검역은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6-2) 친족회가 행한 동의

마. 차별어 피하기

가정부/파출부: 가사 도우미	간호원: 간호사
결혼 가정: 한부모 가정	귀머거리: 청각 장애인
노가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미망인: (고인 ~의) 부인
미숙아: 이른둥이	백수: 취업 준비자, 구직자
병어리: 언어 장애인	월급쟁이: 월급 생활자
집사람: 아내	처녀 출전: 첫 출전
청소부: 환경미화원	학부형: 학부모
신용 불량자: 금융 채무 연체자/금융 채무 불이행자	
양심적 병역 거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에이즈 환자: 에이치아이브이(HIV) 보균자/감염자	
〈기타〉	
지도층 인사-달동네 사람	주요 대학-군소 대학
도회지-시골	옹고집(노년)-천방지축(청년)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간결한 문장이 독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점자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글이 어렵고 번잡할 때 조사, 어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가. 조사 활용하기

- | | |
|--|--------------------------|
| (1) 사유로 인하여 | (2)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
| (3) 그 <u>안전에 관하여</u> 는 관심 없다. (4-1) <u>그의 주장에 대해서는</u> 부인하지 않는다. | |
| (4-2) 교육청은...건강에 이상이 있는 <u>학생에 대해</u>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 |
| (4-3) 이 시기의 어린이는... <u>참가에 대한</u> 만족을 얻는다. | |
| (5-1) 어느 <u>행위에 있어서</u> ...를 정한 때에는 | |
| (5-2) <u>유아기에 있어서도</u> 욕구가 충족될 때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 |
| (6) 참가자 <u>에 한하여</u> | (7) 물건이라 함은 ...자연력을 말한다. |

나. 어미 활용하기

- | | |
|---|-------------------------------|
|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2) 쌍방이 <u>수인인 경우에는</u> |
| (3) ...을 <u>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u> | (4) 잉여가 있으면 ... 부족이 있으면 .. |
| (5) 미성년자가 <u>혼인을 할 때에는</u>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
| (6) 채무가 <u>있다고 해도</u> | (7) <u>세수를 하기 위해</u> 밖으로 나왔다. |
| (8)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u>계시는</u> 어머니 | |

다. 해당 단어 찾아 쓰기

- | | |
|---------------------|--------------------|
| (1) 근육의 힘이 증가하고 | (2)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하여 |
| (3) 출제 문제 수를 확인하여 | (4)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
| (5)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 (6)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
| (7) 우편으로 보낸다. | (8) 학교에서의 생활을 관찰하여 |
| (9) 개개의 학생에 대해 상담하여 | (10) 뜨거운 태양 아래 |

라. 불필요한 성분은 생략하기

- | | |
|-----------------------------|--------------------------|
| (1) <u>기왕에</u> 소급하지 않을 | (2-1) 관찰구역 <u>내에서</u> |
| (2-2) 정한 <u>기간</u> 내에 납부한다. | (2-3) 그 범위 <u>내에서</u> |
| (3) 제52조의 <u>규정은</u> | (4) 네 <u>개의</u> 마디로 이루어져 |
| (5) 연락은 하였지만 전달이 안 되어 | (6-1) 여러분들 |
| (6-2) 우리들, 너희들 | (6-3) 청중들, 대중들, 언중들 |



마. 되풀이되는 말 줄여 쓰기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와 청년기의 학생은 학교에서 그것이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외상, 인플루엔자, 폐렴, 간염, 영양 부족, 치아 질환, 중양 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에는 음주, 약물 중독, 외상, 자살, 폭행, 성 접촉으로 인한 질병, 운동으로 인한 외상, 임신, 정신 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다.

마. 문장 길이 알맞게 하기

[대한민국 헌법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을 完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조리 있게 엮어,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가는 일이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별 어려움이 없이 이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역 투

표현, 알기 어려운 표현, 상투적 표현 등으로 독자가 편안하게 읽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남겨서는 안 된다.

가. 편하게 하기

- | | |
|----------------------------------|----------------------------|
| (1-1) ...이 ...연주회를 갖게 된 | (1-2) ...그 개막 행사를 갖게 된 |
| (1-3) ... 해단식을 갖게 된 것 | (1-4) ...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
| (1-5)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1-6)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
| (2) 소속단체에 대한 이해관계 | (3)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
| (4-1)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 | (4-2)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운 |
| (5) ...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 선행될 | (6) 평화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
| (7) 재창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
| (8) 이OO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 (9)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 (10)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11) 전망 있는 교과로의 변화를 |
| (12)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 |
| (13)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 |
| (14) 창조력 배양에 의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 |
| (15) 국립극장에서의 공연 행사 | |
| (16) 청소년들이 뽐어내게 될 영화 사랑에의 열정 | |
| (17)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 |
| (18) 여가시간 확대가 단순한 삶의 질 제고 차원을 넘어 | |

나. 자연스럽게 하기

- | | |
|----------------------|-------------------|
| (1)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 (2)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
| (3) 청산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 (4) 주민들에 대한 치료 계획 |
| (5)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 | |

다. 상투적으로 하지 않기

- | |
|--|
| (1-1)...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을 위해 |
| (1-2) 가을은 일년 중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일 뿐만 아니라 |
| (1-3) 가을의 정취가 가장 짙게 배여 있는 남산에서 |
| (1-4) ...이번 성공의 가장 큰 주역인 |



- (2)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우리 조상들의 고결한 숨결과 체취가 스며든
- (3) 사후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 (4) 음악회에 가고 싶고 싶어도... 음악회장이나 극장 등의 무수히 많은 턱들과 계단 때문에
- (5) ...임을 세계만방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 (6) ...의 관심과 참여가 ... 성공의 절대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 (7) ...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되길
- (8-1) ...계 전반에 걸쳐 탁월한 영향력으로
- (8-2) ...학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탁월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의 발전에 기여해...
- (9) ...은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고전에 000 선생님의 아름다운 곡과 000 선생님의 주옥 같은 노랫말을 덧붙인 ...한국적인 정서가 빼곡히 담겨져 있는 작품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9),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 국립국어연구원(1999, 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 권재일(2005), 바른 문장 쓰기(1),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김문오(2003),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오(2005), 좋은 글의 요건, 국립국어원.
- 김문오(2005), 공문서 바로 쓰기(3),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김수현(2005), 바른 문장 쓰기(3),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김형배(2009), 우리말 다듬기. 국어 과정, 국회사무처.
- 김희진(2003), 교과서 문장 바로 쓰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강의 자료)
- 김희진(2008), 공문서의 모습과 보완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김희진(2010), 의료인의 우리글 바로 쓰기, 출판문화원 (근간)
- 김희진·박용찬·정희창(2007), 방송 뉴스의 어휘 선택, 한국방송기자클럽.
- 남영신(2009), 공공 언어, 국어 과정, 국회사무처.
- 박경현·민현식 외(2003) 고등학교 작문, 금성출판사.
- 박창원(2001), 좋은 글과 문장의 연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연구원.
- 법제처(2009),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안효경(2005), 공문서 바로 쓰기(1),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유하라(2009), 문장 바로 쓰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임동훈(2005), 바른 문장 쓰기(2),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정부 각 기관·단체의 누리집.
- 정호성(2001), 한글 맞춤법,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용례 풀이 참고 자료〉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1)성난, 격분한, 흥분한. (2)(집단)따돌림당하는 (3)'어떤' 또는 '보잘것없는 한 날'
2. 알차고 합리적으로// 가.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의 통계가 같을뿐더러 휴대 전화를 '착용'한다고 표현하여 위 항목을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나. (1)가져갑시다/치웁시다. (2)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3)재산의 목록 다. (1)기념관 건립, 조형물 설치, 거리 명칭 부여, 역사 교육 (2)출제지(/문제지)와 정답지 (3)...(응답한 농민 중) '...을 줄이겠다'가 10%, '...품종을 개량하겠다'가 14%, '...재배를 하겠다'가 (4) 물건이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음, 외모에 자신이 없음, 업무량이 과다함.
3. 통일성 있게// 가. '현황'이라기보다는 '안내'에 가깝다. 현황이라면 각 기관의 수용 인원이나 상담 건 수, 기타 성과나 실적 등 좀 더 구체적인 각종 통계 수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나. 참가비를 내신 분께는 준비한 명찰을 드립니다. 이 명찰을 다셔야 심포지엄, 강좌와 자유 연제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명찰 갑 속에 든 식권을 호텔 식당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식당에 들어가 점심과 저녁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다. (1) ...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2)※ '그러므로' 삭제.
4. 일관되게 (1)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문법 지키며// 가. (1) 이 연구의 목적은 ...제공하는 데에 있다./...제공하는 데에 둔다. (2)일부 시민들은 복조리를 나눠 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3) Herman은 "... 내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4)사실을 입증하는 (5)진행하던 중 (6)듣고... 추적하여 (7)...중 첫 번째를 차지하며/첫 번째로 많으며 (8) 언 육류는 완전히 녹인 후에 조리한다. 나. (1)애국심을 고취하고 (2)짧은 시간과 적은(/부족한) 경비 /부족한 시간과 경비 (3)... 원인을 파악하고 (4)개인이 보관하거나 헬스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해 주고, 학교 폭력 사건·사고의 신고를 받기로 (6)보호하거나...(7)...을 인화하고(/낮추고) 감면 기간을 단축함. 다. (1)을 (2)에게 (3)으로 (4)(그) 누구도/(아무도) (5)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6)작업하여 (7)했는



테 라. <1> (1)강화한다. (2)경감할 (3)시정하기 (4)연결해도 (5)접목해 (6)부각하여/개선하고/육성하고/개최 도시 열 곳을 널리 알리는 <2> (1)실천 방안을 강구하여야 (2)사고를 제약할수록 (3)건강을... 고려하고 (4)나누는/나누어지는 (5)달혀/달리어/열리지 (6)쓰이지 (7)짜인 (8)학습되는

6. 어문 규정 지키고// 가. <1>(1)내디뎠다. (2)시점 (3)빌려 (4)셋째 (5)첫들 (6)맞히었다./맞혔다. (7)부치는 (8)생각한/생각했던 <2> (1)갓 스물에 (2)대한민국 (3)덧씩우는 (4)돌연변이 (5)이때 (6)이틀간 (7)전 세계 (8)제자리 (9)틀니 (10)한입 (11)이해 요소 (12)헨리 4세 <3> (가) (1)'온대림' (2)'편장'// '고추장' (3)'무정' (4)읽고(※쉽표 삭제) (5)발전하며(※쉽표 삭제) (나) (1)때: 2010. 5. 5. 오후 2시 (2)곳: 국립국어원 세미나실 <4> (1-1)레저용품 (1-2)비전 (2-1)리더십 (2-2)파트너십 (3-1)서비스센터 (3-2)시시 (4-1)케이크 (4-2)테이프 나. (1)제삼자 (2)두 사람, 다섯 살 때, 종이 석 장다. (1-1)감사합니다. (1-2)축하하며 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디(CD)를 들었다.
7. 마무리 잘 짓고 (1)갈음할 것/갈음하시기를 바랍니다.//(2)문구를 함을 원칙으로 함./문구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작성할 것/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4)무료로 제공하니 이용할 것./제공하오니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가. (1) 인권을 존중하겠으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별항으로) (2) 인물이 한 말을 느낌을 살려 나. (1)그곳이 (2)그러지 (3)부모가/부모가 (안락하게 지내도록 보살피며) 이해로써... 다. (1)안심하고 자녀 (2)정보를 필요 이상 많이 유출하였으며 (3)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품위 손상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 (4) 1969년부터 10년 넘게 집필하여 총 ...라. (1)주제와 발표자 (2)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마. (1)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2)가능한 한 (3)검사 결과에 (4)추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이를 어길 (6)신체적 욕구, 정서적 욕구, 사회적 욕구, 인지적 욕구, ...(7) ※'크기와 모양이' 보충 (8)송아지에게 풀을 뜯기며 (9)금속 활자 인쇄술을 (10)나/그/그들 나름대로 (11)그뿐만 (12)교수 능력의 진단과 개발을
9. 단어 선택 적확하게// 가. (1)요금 (2)우려/소지 (3)난도/곤란도 (4).. 중에 /... 과정에/추진하는데 (5-1)참으로 (5-2)제법 (6)...과 맛먹는다. (7)분류 배출



(8)양해를 구하는 말씀 (9)조언 (10)신청하세요./제출하세요./방문 제출
 (11)국한하지 않고 (12)진위를 (13)본보기로/거울로/귀감으로 나. <1>(1)차와
 과일/차와 과자 (2)불낸/불 막은 (3)상 준/상 받은 (4)어린이/젓먹이 <2>
 (1)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제913조 또는 제915조 (2)자녀는 다. (1)타지에
발표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실었던 것을 재투고하거
 나... (2)결연하고/인연(을) 맺고 (3)기간 (4)매 순간/순간마다 (5)선양하여/
 널리 펼쳐 (6)애환/슬픔과 기쁨 (7)예약한/미리 약속한 (8)자인하는/스스로
 인정하는 (9)접수한 (10)탄신/탄일/탄생일 (11)현안 라. (1)입힌 (2)이미 (3)
 이에 따른/이를 바탕으로 한 (4)내주고/발급하고 (5)마땅히 이 등기는 (6-1)
 하여야/해야 (6-2)한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가. (1)사유로 (2)때부터 (3)안건은 (4-1)주장은/주장을 (4-2)학
 생을 (4-3)참가에 (5-1)에서/와 관련하여 (5-2)유아기에도 (6)에게만 (7)물
 건이란 나. (1)부득이하면 (2)여럿이면 (3)하지 않아 (4)남으면, 부족하면
 (5)혼인하려면 (6)있더라도 (7)세수하려고 (8)못하시는 다. (1)근력 (2)단기
 간 (3)문항 (4)복교할/복학할 (5)숨질 (6)오랫동안 (7)우승한다. (8)학교생
 활 (9)학생별로 (10)불별 라. (1)소급하지... (2-1)관할구역에서 (2-2)기간에
 (2-3)범위에서 (3)제52조 (4)네 마디 (5)연락하였지만 전달되지 않아 (6-1)
 여러분 (6-2)우리, 너희 (6-3)청중, 대중, 언중 마. 초등학생의 경우 외상...
 중앙 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음주... 정신 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다.
 바.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정
 신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

우리는 3.1 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
 거한 4.19 민주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을 추
 구하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한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
 의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기
 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가. (1-1)열게 (1-2)거행하게/치르게 (1-3)하게 (1-4)의미가 있는지 (1-5)...에게는(/...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1-6)신분은 아니었으나 (2)소속 단체의 (3)좀 더/더욱/더 (4-1)여건 속에서도 (4-2)환경 속에서도/환경을 무릅쓰고 (5)하는 데에 (6)손길이 필요하다./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7)재창조는 참으로 중요하다. (8)에게서 (9)추진하는/담당하는/하는 (10)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1)전망이 밝은 교과로 변화시키는 일을 (12)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13)...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돕고자 (14)창조력을 배양하여 (/길러) 선진국을 향해 도약할 것을 (15)...에서 열린 (16)영화를 향한 열정 (17)...와 협의하여 (18)여가 증대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넘어/여가 증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 (1)소유자에게 가치를 치워 달라고 (2)수요만큼 (3)여럿이면 (4)주민들을 치료할 계획 (5)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1-1)소중히 여기는/존중하는 ..(1-2)아름답고 풍성한 (1-3)질게 뻗 (1-4)주역인 (2)우리 조상의 숨결과 체취가 뻗 (3)노력한다. (4)등에 버티고 있는 많은 턱과 (5)세계에 널리 (6)..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7)일익/한몫/큰 몫 (8-1)..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8-2)활발한 (9)고전을 바탕으로 000 선생이 만든 노랫말에 000 선생이 곡을 붙인...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학교 생활문 쓰기

1. 시작하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접한다. 쓰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힘든 작업이다. 어쩌면 쓰기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보나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즉 쓰기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러나 쓰기와 읽기는 지식 정보 사회로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획득하고 생성하고 직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쓰기를 더 많이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교사의 개인차가 크다. 그러나 교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써야 하는 직업임에는 분명하다. 또 교사는 직접 글을 쓰는 필자일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쓰기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풍부한 쓰기 경험을 가진 필자이고, 유능한 필자일수록 학생들에게 쓰기를 가르치는 데 유리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접하는 일련의 글쓰기를 편의상 ‘학교 생활문’이라 하고, 이 글에서는 먼저 학교 생활문의 유형과 실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사가 학교 생활문을 쓰는 데 범하는 오류를 줄이고, 유능한 필자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2. 쓰기의 개념 및 성격

2.1. 쓰기의 개념 및 성격

쓰기는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진다. 쓰기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나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쓰기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의 마음을 조정하기 위한 ‘설득(문제 해결)’으로서의 쓰기이다. 이 두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는 ‘독자’ 변인에 달려 있다. 표현으로서의 쓰기에서는 독자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득으로서의 쓰기에서는 독자 변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노명완, 2007). ‘표현’으로서의 쓰기와 ‘설득’으로서의 쓰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관 점	중요 요소
표 현 관	필자 -----> 글
설 득 관	필자 ---- (글) -----> 독자

우리는 지금까지 쓰기를 표현으로서의 쓰기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 핵심은, 쓰기를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학교에서 많이 지도하는 일기, 독후감, 생활문 쓰기 등 문예적인 글쓰기가 바로 이 표현으로서의 쓰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쓰기에서는 독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독자는 자기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독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글을 쓰는 필자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정직하게 쓰면 된다. 과거 학교 국어 수업에서 수필의 특성으로 많이 배웠던 ‘정직하기 쓰기’, ‘생각나는 대로 쓰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쓰기’ 등이 이 표현으로서의 쓰기의 개념을 반영한 쓰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쓰기를 ‘설득’의 관점에서 보면, 쓰기는 상대를 대면하고 하는 말하기와 같이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여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된다. 이런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글쓰기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이다. 그리고 쓰기를 통해서 필자는 독자의 마음을 설득하여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상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변론하여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해야 하는 일 등이 모두 이런 설득적 쓰기의 예이다.

설득적 쓰기의 관점에서 쓰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쓰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필자와 독자의 사회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쓰기는 반드시 해야 할 특정의 일인 것이다. 독자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필자가 글을 쓰지 않는다면 이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격이 된다.

둘째, 글을 쓰는 목적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생활문을 예로 들면, 학부모에게 답임을 소개하기 위해, 학생이 쓴 글에 대해 논평(코멘트)을 하기 위해, 가정 통신문을 통해 어떤 일을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등 그 목적이 어떤 일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글 내용 선정에 제약이 따른다.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지식, 배경, 태도, 요구에 맞추어 글을 써야 한다. 필자는 글 내용의 선정, 조직, 표현 등 모든 글쓰기 과정에서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독자 고려는 글을 쓰는 전체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독자 고려는 쓰기 전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넷째, 가능한 한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독자와 필자 사이에 간극이 커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만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사(rhetoric)’란 ‘나는 말한다’라는 그리스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때의 말하기는 반드시 청자를 향한 말하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사’란 청자를 향한 화자의 말하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오해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직접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다.

2.2. 쓰기 개념에 대한 오해

개인은 쓰기를 통해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는 구성원 간의 쓰기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쓰기는 사회생활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쓰기가 갖는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쓰기와 쓰기 교육을 잘못 이해해 온 부분이 있다. 그 오해들은 다음과 같다.

1) 쓰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쓰기 능력은 약간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석 능력, 추리 능력이 학습의 결과이듯 쓰기 능력도 학습의 결과이다. 만약 쓰기 능력이 전적으로 선천적인 것이라면 쓰기 교육은 불가하고 무용하다.

2) 글씨를 잘 써야 한다.

쓰기는 ‘글씨 쓰기’가 아니다. 쓰기를 글씨 쓰기로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신언서판의 강조에서 보듯 쓰기를 예술적 글씨 쓰기로 생각했던 한자 사용의 역사성과 원고지를 사용하여 왔던 우리의 쓰기 습관에서 강화된 것이다.

3) 문법적 정확성이 중요하다(문법 지도가 중요하다).

쓰기를 문장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글을 내용이나 조직이라는 전체적 구성 측면에서 보면 문법은 글 내용에 비해 덜 중요한 요소이다. 초등학교 글쓰기 지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침삭 지도’는 글을 문장 중심의 쓰기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침삭 지도를 통한 쓰기 지도는 글을 쓰는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인 글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므로 쓰기 지도에 제한이 따른다.

3. 학교 생활문의 특징과 유형

3.1. 학교 생활문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 생활문이란 글의 유형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글의 종류를 분류하는 범위로 사용해 왔던 ‘문종’이라는 말은 프랑스어 ‘genre’에서 온 것으로 ‘종류’를 일컫는다. 그런데 글의 종류는 형식적인 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필자가 글을 쓰는 의도, 즉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장르는 글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화해, 설득, 안부, 고백, 안내 등 필자가 글을 쓰는 목적이 곧 글의 장르가 된다.



그리고 종래에 문종이라고 일컬어진 정보적인 글(설명문, 논설문)과 이야기 글로 대별되는 글의 분류 범위는 글의 '유형(type)'이라고 한다.

그런데 생활문이라는 글은 다양한 유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형이 없다. 이 글에서 '학교 생활문'은 편의상 '교사들이 학교에서 쓰게 되는 다양한 글의 유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학교 생활문은 교사 간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쓰는 글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형이 학교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독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글쓰기이므로 '표현관'이 아니라 '설득관'에 따른 글쓰기이다. 그러므로 글을 쓰기 전에 독자와 필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비롯한 독자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하루의 일과나 수업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개인 일지나 기록은 학교 생활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2. 학교 생활문의 유형

학교에서 교사가 쓰는 학교 생활문의 유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 2) 성적표 및 생활 기록부 기술하기
- 3) 교사가 써 주는 논평(코멘트)
- 4) 가정 통신문
- 5) 상장 문구
- 6) 홈페이지에 올리는 알리는 글
- 7)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전자 우편
- 8) 교사 간에 주고받는 메신저
- 9) 훈화 글
- 10) 학교 소식지에 실는 글
- 11) 송사
- 12) 퇴임사
- 13) 격려사

4. 학교 생활문 쓰기의 실제

실제 학교 생활문의 사례를 통해 교사들이 글쓰기에서 범하는 오류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4.1.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4.1.1. 오류

- 1) 담임교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2) 교사의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경우
- 3) 길이가 지나치게 긴 경우
- 4) 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 5) 진부한 인사말을 쓰거나 담임과 학급의 특징을 알 수 없는 경우

4.1.2. 해결 방안

- 1) 글을 쓰기 전에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라.
- 2) 독자를 분석하라.
 - * 주변에 학부형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료 교사에게 물어라.
 - * 학부모의 지식수준, 관심, 호오, 직업군 등을 고려하라.
- 3)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글의 열개를 짜라.
 - * '얼른 쓰기'를 하고 고쳐쓰는 것보다 열개를 짜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글의 유형을 선택하라.
- 5) 문장을 짧게 써라.
 - * 1문장은 10어절 이내, 1문단은 10문장 이내로 쓰라.
- 6) 쉽고 명확하게 써라.
 - * 유능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한다.
- 7) '손 글씨'로 쓰는 것도 전략이다(친근감과 성실성을 반영).
- 8) 제목을 붙여라.
 - * 제목은 담임의 교육 철학, 교육관, 교육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라.



9) 고쳐쓰기를 하라.

- * 다른 사람에게 읽어 보게 하고, 논평을 들어라.
- * 독자 중심의 글로 변환하라-자기 중심성 극복
- * 강조 테스트(Highlight test)를 활용하라

10) 형식적인 오류나 문법적인 것을 점검하라.

- * 맞춤법·띄어쓰기·문장 부호의 오류, 오·탈자, 종결어의 부재 등은 필자의 성실성을 반영한다.

11) 글머리의 유형을 활용하라.

- | | |
|------------------|---------------------|
| ① 시간으로 시작하는 글머리 | ⑤ 소리로 시작하는 글머리 |
| ② 장소로 시작하는 글머리 | ⑥ 속담, 명언으로 시작하는 글머리 |
| ③ 대화문으로 시작하는 글머리 | ⑦ 결론으로 시작하는 글머리 |
| ④ 설명으로 시작하는 글머리 | |

12) 쓰기를 다양하게 경험하라

- * 쓰기 전, 중, 후에 필자가 경험하는 사고 과정을 여러 차례 수행하다 보면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나 자동화된다.
- * 필자가 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writer's block)을 경험해 본 교사만이 학생의 쓰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내용과 전략을 알 수 있다.

4.2. 성적표 및 생활 기록부 기술하기

4.2.1. 오류

1) 학생의 교과 학습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경우

- | |
|---|
| 사회과(4)- 조사, 탐구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바람직함. |
| 수학(2)- 학습 태도가 우수하여 수학과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함. |
| 국어(1)- 바른 자세로 책을 정확하게 읽으며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 |

2)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국어(3)- 같은 말을 듣고도 배경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체육(4)- 운동이나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잘 알고 지켜 능력에 따라 알맞게 활동하고 각종 운동에 자신감은 부족하나 흥미는 높음.
- 국어(5)- 글을 읽고 사건의 전개 순서와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하며, 주제를 정하여 토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글로 잘 씀.
- 국어(3)- 국어지식 영역: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어 지식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음.

3)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

- 음악(4)-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의를 다해 노래 부르고 간단한 가락의 박자와 빠르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른 자세로 감상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함.

4) 부적절한 어휘, 중의적인 표현

- 수학(3)- 수학적 사고력이 우수하여 수학과 전 영역에서 성취 수준이 뛰어남.
- 수학(5)- 계산 능력 및 수리력이 뛰어나며,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빠름.
- 체육(4)- 표현 능력이 우수하고 태도가 바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몸 모양과 공간을 다르게 하여 뽀름에서 균형 잡기, 뛰기를 잘함.
- 행동 특성-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여 단체 활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편임.
- 행동 특성- 일기 쓰기 표현력이 좋음.

4.2.2. 해결 방안

1) 독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라.

2) 문장을 간결하게 써라.

(예) 음악(4)-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의를 다해 노래 부르고 간단한 가락의 박자와 빠르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른 자세로 감상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함.

→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의를 다해 노래를 부름./ 간단한 가락을 보고 박자와 빠르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함./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른 자세로 감상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함.(너무 긴 문장은 나누어서 표현)

3) 각 학년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 기준에 따른 도달 정도를 기술하라.

(예 1) 국어(1)- 바른 자세로 책을 정확하게 읽으며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

→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고 의미 단위로 띄어 읽기를 잘함. 읽은 내용을 간추려 말하는 능력이 우수함.(교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예 2) 수학(2)- 학습 태도가 우수하여 수학과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함.

→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알고 응용 문제를 잘 해결함.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함.(구체적으로 기술)

4) 형용사 또는 명사로 된 어휘를 동사로 전환하라.

“일기 쓰기 표현력이 좋음. → 일기를 쓸 때 재미있게 표현함.”

5) 쉽게 써라.

“발표를 논리적으로 잘하고 → 발표를 똑똑하게 잘하고, 발표를 조리 있게 하고”

4.3. 가정 통신문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 통신문은 최소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이다. 가정 통신문의 홍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쏟아진다. 우선은 그 횟수를 줄여야겠지만, 가정 통신문을 쓸 때 교사들이 범하는 오류 수가 가정 통신문의 수보다 더 많다. 이런 오류가 반복된다면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4.3.1. 오류

- 1) 문단 구분이 잘못되었거나 없는 경우
- 2) 설문 조사를 할 때, 설문자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한자의 남용 및 구시대적인 어법을 사용한 경우

* 신청자가 맑을 시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토요일업일학교 1일 입교를 신청합니다.
 * 시력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건강 관리에
 * 아동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안과로 가셔서
 * 본교의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보내 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또한 7일간의 휴강 기간을 마련하였으니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할 수 있도록 격려 바랍니다.
 *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 설문지에 나와 있는 개념 숙지 후 작성
 * 유행성 결막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동 및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본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상벌점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님 댁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4)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2009년 6월 4일(목)까지 교무부 홍길동 선생님께 제출
 * 방과후학교 2기는 운영 기간 중에 여름 방학이 있어 방학 중에는 시간 조정을 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5)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나치게 다양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 중학교 급식 안내 가정 통신문에 <가정에서의 식사 예절>등을 쓰는 경우
 - 예: 서울 S중학교의 급식 안내문
- 6) 수동형 문장과 부정문을 사용하는 경우



4.3.1.1. 좋은 가정 통신문의 예

1) 담임 교사가 학부모님께 보내는 글

보석이 부모님께-

보석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돌아서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교우관계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정통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은 그동안 저희 반 아이들 가정으로 보낸 학급통신문입니다. 읽어보시면 학급의 분위기와 담임의 학급경영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보내는 글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습의 질을 생각한 수준 높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중과 주말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6월부터 전면개편하여 2분기 방과후학교에는 오후 5시 이후 저녁 방과후학교가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조사하여 강좌개설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를 주중과 주말에만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시작할 2분기에는 오후 5시 이후에 '저녁 방과후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강좌를 개설하려면 학부모님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의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 교사의 논평

일기장이나 공책 또는 학급 일지 등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써 주는 논평(코멘트)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사가 일기장에 침묵 지도를 목적으로 써 주는 논평은 학생들의 글쓰기 기능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교사의 논평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학생에게 대화를 통해 논평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4.4.1. 오류

1) 학생에게 고쳐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경우

- * 앞으로는 더 길게 일기를 써 보렴(2학년)
- * 왜 넘어졌는지 궁금한데 가르쳐 줄래?
- * 광주에 무슨 일로 갔을까?(3학년)

2) 색연필로 교정 부호를 표시한 경우

4.4.2. 해결 방안

- 1) 논평(코멘트)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 학생과의 의사소통인가? 글쓰기 지도인가? 생활 지도인가?
- 2) 색연필 표시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라.

4.5. 상장 문구

상장 문구는 보통 교사가 직접 만들거나, 기존의 상장 문구에 시상 내용만 변경하여 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장 문구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상장을 받는 내용보다 상장의 이름과 그 순위가 더 큰 정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 문구가 기존의 관습적인 문구에서 벗어나 학생의 수상 내용을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담고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4.5.1. 오류

1) 정형화된 문구

- 상장의 권위 때문인가? 교사들의 인식 부족 때문인가? 오랜 관습 때문인가?
- 상장 문구를 쓸 때도 상을 받는 사람(독자)의 입장과 상을 주는 목적을 고려하라.



- * 위 학생은 2008학년도 교내 독서 퀴즈 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줍니다.(독서 퀴즈)
- * 위 학생은 6년간 개근을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6년 개근상)
- * 위 학생은 평소 올바른 성품과 성실한 자세로 학교생활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번 000 수련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최우수상)
- *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에 기여한 바가 뚜렷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공로상)

4.5.2. 다양한 상장 문구

- * <모범 어린이상 1>
() 어린이는 1학기 동안 학습 준비를 잘하고 항상 선생님과 약속을 잘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이 상장을 줍니다.
- * <모범 어린이상 2>
위 어린이는 학급의 일에 앞장서며 모든 일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 * <다복상(또는 '건강식사상')>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남김없이 맛있게 먹어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만드는 () 어린이에게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 * <독서상>
위 어린이는 평소 책을 많이 읽고, 독서 기록장을 성실히 기록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4.6. 교사 간에 주고받는 메신저 글쓰기

메신저, 전자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의 글쓰기와 같이 인터넷이나 전자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인사말 없이 본론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메신저의 경우 면대면 말하기와 쓰기의 특성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인사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메신저를 쓸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자.

- 1) 자기를 상징하는 문구나 아이콘을 개발하라. 글머리에 이것을 써라.
- 2) 먼저 쓰고 나중에 수정하는 전략을 활용하라(컴퓨터 글쓰기의 특징).
- 3) 독자가 읽기 좋게 편집하라.
- 4) 중요한 내용이나 어휘는 글자색, 돋움, 이탤릭체, 밑줄 등으로 강조하라.
- 5) 보내는 사람을 정중하게 밝혀라.

5. 맺으며

학교 생활문 쓰기 기능이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형의 글쓰기에서 필자가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독자와 글을 쓰는 목적이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글을 쓰면 필자는 훨씬 글쓰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이 이해하기 쉽고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즉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글을 대한다. 절대로 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글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자는 그런 독자의 요구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교사는 필자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비단 국어 교사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 능력은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능이며,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교과 특성을 막론하고 쓰기와 읽기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교사의 쓰기 능력은 학생들의 쓰기 기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모든 교사는 글쓰기 능력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참고 문헌

- 김경화(2009), 고등학생의 경험한 일 쓰기에 대한 국어 교사의 논평 분석,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노명완·이차숙(2003), 문식성 연구, 박이정.
- 노명완(2007), 작문·논술의 개념과 언어 사용-창의성 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강의 자료집.
- 서수현(2008), 요인 분석을 통한 쓰기 평가의 준거 설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원진숙·황정현 옮김(1998),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동문선.
- 이지호(2001),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형래(2006), 공무원의 직업 문식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인철 옮김(2003), 생각의 지도, 김영사.



청소년과의 대화법

1. 청소년과 교사의 언어 사용 실태

1.1. 청소년 언어생활의 특징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서울과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생활과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언어생활 실태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상대는 동성 친구(71%)이며, 그 다음은 어머니(14%), 이성 친구(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성 친구와 더 많이 대화를 하는 고교생의 계열별 비율은 특수목적고, 인문고, 실업고 순으로 나타났다.

대화의 주요 소재는 학교생활(36.8%), 운동 등 취미 생활(18.3%),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14.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에 강남 학생들이 강북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40.5%)이 가장 많았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대화 시간이 길고,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 전화는 조사 대상 학생의 80.6%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화는 하루에 '1~4회' 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문제 메시지는 67.6%의 학생들이 5회 이상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대화(채팅)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44.3%)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나 2시간 이상 한다는 학생도 15.3%나 되었다.

듣기 언어생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을 대체로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 시간에 더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듣는 이유로는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5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집중력이 부족해서 들으려고 해도 잘 못 듣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들(38.5%)도 1/3이 넘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끝까지 잘 듣는 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듣는 것(72.8%)으로 응답하였다.

언어 사용 실태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창의적인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국어 어휘 체계와 관련하여 ‘새말 만들기’,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참신하게 표현하기’를 각각 조사하였다. ‘새말 만들기’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접두사 역할을 하는 ‘초-, 왕-, 완전-’ 등을 새로운 부류의 명사와 결합하여 ‘초박살, 초감동/왕짜증, 왕무시/완전짜증, 완전피씨방’과 같이 기존의 구성과 차이가 있는 새말들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 더 나아가 ‘초 박살이다.’, ‘왕 오랜만’, ‘완전 너잖아.’ 등과 같이 접두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부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예도 있었다.

접미사 ‘-님, -쟁이, -질, -짱, -하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님’은 일상에서 높임 형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 ‘엄마, 언니’와도 결합하고, ‘ 쌤님’에서처럼 중복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쟁이’는 ‘사돈남말쟁이, 완전구라쟁이’처럼 통사적 합성어 뒤에 붙고, ‘-질’은 ‘뽕질, 싸이질/빼끼질’ 등의 통신 은어를 만들어 내었다. 한편 접미사 ‘-이즘, -이스트, -짱’도 ‘솔로니즘, 귀차니스트, 얼짱’과 같이 생산적인 접미사로 쓰였다.

합성어 만들기의 경우, 통신 언어에서 생겨난 새로운 말이나 기존의 낱말을 결합하여 새로운 언어적 의미를 표현하는 합성어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잠수타다, 열공, 공부모드, 세이페인, 메리추석, 즐새해’와 같은 새로운 합성어들이 쓰였다.

교사에 대한 경어법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모둠일기에 쓰인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해 경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가리킴말은 ‘선생님’과 ‘쌤/ 쌤’으로 나타났으며, 두 형식은 비율이 비슷하게 쓰였다. 이 밖에 ‘길동쌤’, ‘길동이 쌤’과 같이 기성세대에게 거부감이 드는 형식도 있었고, 가리킴말 없이 이름만으로 ‘길동’, ‘홍길동’이라고 하여 강한 부정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용법도 있었다. 또 담임 교사를 ‘담탱이’라 하고, ‘슈렉 선생, 김 여사, 할머니, 아줌마, ○○ 돼



지'와 같이 교사에게 별명을 붙여 가리키거나, '님'을 빼고 '선생' 또는 '선생들'이라 가리키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있는지를 10점 척도의 경어법 점수 면에서 분석해 보니 인문고 학생들은 평균 4점, 실업고 학생들은 평균 3.75점이 나왔다.

1.2. 교사의 교실 언어의 부정적 유형

심우엽(1993)에서는 교사가 사용하는 부정적 언어 유형을 속어, 무시-과소평가어, 욕설-상스러운 말, 위협적 언사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용어는 중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이를 고치려는 노력도 중학교 교사가 약간 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고등학교 교사는 비교적 부정적 용어를 덜 사용하며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더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성별로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고치려는 노력을 더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학생과 교사는 교사의 부정적인 언어 사용 빈도에 대해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20~74%가, 교사들은 4~14%가 교사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자신이나 동료 교사들의 부정적 언어 사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부정적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 반응을 묻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같지도 않다, 전학 가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그만두게 해야 한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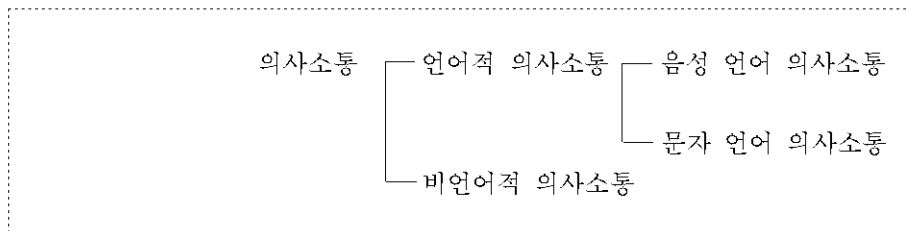
2. 의사소통의 개념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은 일차적으로 인간이 말이나 글을 이용하여 상호 간에 이해를 수립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과정이나 행위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이 '나누다, 함께하다, 분배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communicare'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소통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언어적 행위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창덕 외, 2000).

의사소통은 언어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뉘며, ‘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된 언어가 음성 언어인지 문자 언어인지에 따라 ‘음성 언어 의사소통’과 ‘문자 언어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전은주, 1999).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교섭에 의한 ‘나눔’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다(이창덕 외, 2000). 따라서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적인 전달과 이해에 머무는 활동이 아니라,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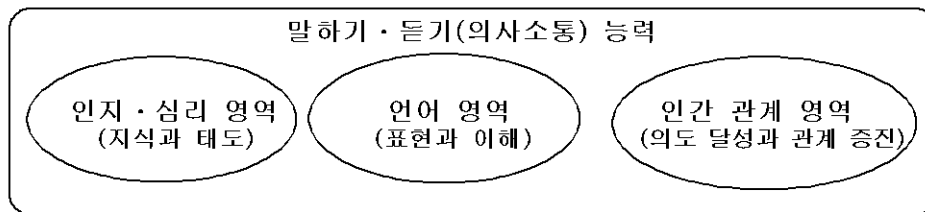
의사소통은 화자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의사소통에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 관계에 따라 상호 작용적 관점과 상호 교섭적 관점으로 나뉜다.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을 탁구공을 주고받듯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대가 공을 주기 전에는 공을 받아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소통 과정을 말하고 답하는 선조적인 과정으로 취급함으로써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상호 교섭적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에서 누가 발신자이고 누가 수신자인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모두 강조되며 의사소통이 화자와 청자의 상호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따른 의사소통의 성격

작용적 관점	화자 → 청자
상호 작용적 관점	화자 ↔ 청자
상호 교섭적 관점	화자(말할이 1) ↔ 청자(말할이 2)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이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면서 음성 언어 사용 과정을 통해서 언어 활동의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창덕 외, 2000).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은 청자와의 관계 증진 목적까지 달성하는 포괄적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자신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상대방과 관계를 그르치는 것은 올바른 언어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바른 심리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상대와 상황을 이해하여 그것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의도한 목적을 수행하면서 상대방과 바람직한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

3. 의사소통과 교실 대화

3.1. 언어적 의사소통

3.1.1. 질문 행위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해 간다. 질문 행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



다. 우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업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이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미 전달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만큼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

3.1.2. 진술 행위

교사의 주장이나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 행위는 상대적으로 질문에 비해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교사가 단독으로 긴 시간 동안 말 차례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 대화에서 소외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산만해지고 대화에 참여할 동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사 주도형 수업에서는 교사가 수업 대화의 전개와 진행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진술 행위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고 드물다.

3.1.3. 지시 행위

질문과 진술이 지식과 정보, 즉 인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교사의 지시는 수업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의 자리를 배치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교사의 지시 행위가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교사의 지시 행위가 있다.

3.1.4. 평가 행위

교사의 평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지식인지 그릇된 지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지식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평가가 겉으로는 특정 학생의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습득해야 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지 부족한지를 공



개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정하고 보충해 줌으로써, 그 지식이 학생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2. 비언어적 의사소통

3.2.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특성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문자 그대로 구두 언어를 통한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 수단 외에 비언어적 수단에 의지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특히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청자는 화자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의존하여 메시지를 파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나 화 안 났어.”라고 말하지만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청자는 이를 ‘정말 화가 났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은 메타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메타메시지(metamessage)란 문자 그대로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뜻으로 실제 대화 내용, 대화 시기와 장소, 분위기,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즉 언어적 메시지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내용적 측면에 관여한다면, 메타메시지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적 측면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사회학자 앨버트 메러비언(Albert Mehrabian)의 연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메시지 전달에서 말이 7%, 목소리(음조, 억양, 크기) 등이 38%, 비언어적 태도가 55%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밖에 되지 않는다(이창덕(2000), 구현정 외(2007)). 결국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90%가 넘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교실에서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대체하거나 모순되게 하거나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수업 시간에 자기표현, 규칙과 기대의 확인, 피드백과 강화, 좋아함과 태도, 대화 흐름의 조정, 교실 통제 등을 하기도 한다(Cooper (2007)).

3.2.2.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1) 준언어

준언어(paralanguage)¹⁾란 언어적 내용과 분리된 음성적 요소로서, 목소리의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을 포함한다. 사람의 목소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교사가 사용하는 준언어적 단서 역시 교사 자신의 태도를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조금은 상기된 상태에서 약간 크고 높은 목소리로 “아주 잘 했어!”라고 말한다면, 교사가 학생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만약 같은 말을 낮고 차분하고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한다면 교사가 학생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고, 소리는 더 커지며, 높낮이는 더 다양해진다. 목소리 단서는 교실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다른 비언어적 단서들 역시 교실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교사는 말하는 것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준언어적 단서가 교실에서 지니는 영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납고 험박하는 목소리가 상냥하고 따듯한 목소리에 비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몸짓(동작) 언어

몸짓 언어는 눈 맞춤, 얼굴 표정, 제스처(몸짓), 자세, 신체 접촉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동작학 행위(kinesic behavior)를 다룬다. 교사의 동작학 행위는 학생의 성취에도 영향을 준다. 교사의 동작학 행위는 학생의 성취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교사가 동작과 제스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생의 성취는 더 높아진다. 와이코프(Wycoff, 1973)는 중학생의 경우 교사의 동작이 많을수록 제시된 제재에 대한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왕성한 교사의 동작에 노출된 학생이 역동적이지 않은 교사에게 배운 학생보다 이해력 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가 나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와이코프는 교사의 동작이 자극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고학년 학생에게는 주의력을 집중하도록 하지만 저학년 학생에게는 주의력을 흐트린다고

1) ‘paralanguage’는 대개 ‘준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반언어’라고 번역하여 사용한 바 있다.



주장하였다.

교사의 동작학 행위는 교사가 학생을 좋아한다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좋아함은 싫어함과 비교해 볼 때 상체를 더 가까이 기울이는 것, 더 상냥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 팔과 몸을 더 활짝 벌리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따뜻하다’고 여겨지는 교사는 미소 짓고, 시선을 똑바로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상체를 더 가까이 기울인다. “으-흠”과 같은 언어적 강화물을 동반한 온정의 단서는 상대방이 말을 더 하도록 한다. 또한 동작학 행위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얼마나 믿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시험 감독을 할 때 학생이 무엇을 하는가를 지켜보면서 교실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는가? 안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학생을 가끔씩 힐끗 쳐다보기만 하는가?

(3) 공간 언어

공간과 거리는 의사소통 과정에 알게 모르게 미묘한 방식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인류학자 홀(Hall)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의 공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공간과 상대와의 거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근접학(proxemics)이라는 분야를 창시했는데, 그가 근접학을 창시하면서 공간과 거리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홀(Hall)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사용하는 거리를 친밀 간격(intimate distance, 15cm~46cm), 개인 간격(personal distance, 46cm~1.2m), 사회적 간격(social distance, 1.2m~3.6m), 공공적 간격(public distance, 3.6m 이상)으로 분류한다.

공간 언어와 관련하여 교실의 자리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자리 배치는 의사소통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 교실의 다양한 자리 배치는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가에 영향을 준다.

(4) 시간 언어

시간 언어 중에서 침묵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침묵은 자연스럽고 근



본적인 의사소통의 한 양상이다. 화자·청자 간의 역할을 순서 교대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침묵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차례를 지켜서 말하거나 듣기 위해서는 일단 침묵해야 하고, 또 침묵하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침묵이 차지하는 의미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침묵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함축된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학교와 관련된 시간 언어[시간학, chronemics]로 1교시를 몇 분으로 할 것인가,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교과별 차시는 몇 차시로 할 것인가, 하루 중 언제 의사소통하기에 좋은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실에서 교사의 시간 사용은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이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의 양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지 못한다. 사실 교사들은 5초 이상 거의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교사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거나 이 학생에서 저 학생으로 금방 옮겨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와 상호 작용하려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며,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반응할 것이다.

(5) 기타

이 밖에 환경 요인, 신체적 매력, 복장, 이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도 의사소통하는 데 영향을 준다. 교실의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마슬로와 민츠(Maslow & Mintz, 1956)가 보기 좋지 않은 방과 보기 좋은 방에서 이뤄지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대비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소머와 올센(Sommer & Olsen, 1980)은 전통적인 교실을 쿠션이 있는 의자, 융단, 다양한 장식이 있는 '부드러운' 교실로 개조(리모델링)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비율이 부드러운 교실(79%)이 전통적인 교실(51%)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게다가, 학생당 평균 발표 횟수는 부드러운 교실이 두 배 정도로 높았다고 하였다.(전통적인 교실에서는 학생당 2.5회였고 부드러운 교실에서는 학생당 5회였다.)



토드-맨실러스(Todd-Mancillas, 1982)는 색상, 조명, 온도는 모두 교실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노란색이나 연분홍색과 같은 따뜻한 색은 저학년 교실에 가장 좋고, 파란색이나 청록색과 같은 차가운 색은 고학년 교실에 가장 좋다. 조명도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명이 약하면 눈의 긴장과 피로를 줄 수 있고 욕구 불만과 적대감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교실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환경 요인은 온도이다. 교실이 너무 더우면 학생이 예민해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교실이 너무 추워도 집중하기가 어렵다. 학생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까지의 온도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학생이 학습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며, 교사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사의 신체적 매력이나 복장도 학생과 의사소통하는 데 영향을 준다. 학생들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사를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에게서 동기가 더 잘 유발되는 것 같다. 최근에 교사의 외모가 주는 효과와 교사 능력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권위적이지만 매력적인 여교사에 대해서, 학생은 다른 유형의 교사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덜 가졌다(Buck & Tiene, 1989). 다른 연구자들은 교실에서 ‘갇춰 입지 않거나 편하게 입은’ 교사와 ‘갇춰 입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생은 복장을 갇춰 입은 교사를 더 조직적이고 학식이 많으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겼다. 복장을 갇춰 입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더 친근하고 동정적이며 공정하고 열정적이고 유연하다고 여겼다(Richmond, Lane, & McCroskey, 2005).

학생의 이름은 학교생활을 잘하는 데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가우드(S. Gray Garwood, 1983)는 6학년 학생의 이름을 갖고 그들의 성취와 자아 개념을 조사하였다. 호감이 가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더 높은 자아 개념을 갖고 있었고, 더 높은 성취 기회를 갖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심리학자인 허버트 하라리와 존 맥데이비드(Herbert Harari & John McDavid, 1983)는 샌디에이고의 80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한 세트의 글을 주었다. 교사들은 같은 글인데도 글쓴이가 엘머(Elmer)나 허버트(Herbert)라고 된 글보다 데이비드(David)나 마이클(Michael)이라고 된 글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4. 교사와 학생 사이의 효과적인 대화 기법

4.1. 공감적 경청

4.1.1. 공감의 개념

공감(共感)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타자의 세계)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일을 결정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느낌과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감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했을까를 헤아리며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를 관찰하면서 그와 같은 관점, 심정, 분위기 또는 태도로 맞추는 것도 공감에 도움이 된다.

4.1.2. 공감의 3단계

(1) 낮은 수준의 공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수준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수준이다.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전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소통 불능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협동적이고 우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 보통 수준의 공감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한 내용,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수준이다. 상대방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명백하게 표현한 감정만을 파악한다. 그러나 내면의 욕구나 말로 드러내지 않은 속뜻을 파악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서양 사람들이 과거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식사하시겠어요?”라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위해서 “먹었어요.”라고 대답하면 정말로 먹은 줄로 알고 자기네끼리만 식사하고 마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명절에 고향 집에 내려온 아들 식구들에게 시골 부모님이 “명절 때는 차가 너무 밀려서 애들 데리고 고생이 많았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울로 가다. 여럿이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둘만 기차 타고 올라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시자, 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멀미하고……”라고 대답하는 수준이다.

(3) 높은 수준의 공감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한 행동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감정과 의도까지도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이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드러낸 감정뿐 아니라 드러내지 않은 감정과 욕구도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상대방을 높은 수준에서 공감한다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나쁜 뜻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감은 어디까지나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료〉

학생: 조금 있으면 시험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생각 없이 딴짓만 하고, 멍하니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교사 1: 공부는 안 하고 딴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런 걱정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교사 1: 그렇게 걱정만 한다고 공부가 되니?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힘들게 하지. 그럼 좀 쉬었다 해.



교사 2: 며칠 뒤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막막한가 보구나.

교사 3: 공부할 게 뭔지를 알면 집중해서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니 답답하고 무력감이 느껴지나 보구나.

교사 3: 이제 곧 시험이어서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생각만큼 집중이 안 되니 마음은 급하고 답답하겠구나.

〈자료〉에서 교사 1은 학생에게 일방적 지시를 하고 있어서 학생은 그 지시를 듣고 교사가 자신을 오해하거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사 2는 학생의 말 속에 들어 있는 감정을 파악하여 교사가 재진술하여 학생이 자신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교사 3은 학생의 심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안(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1.3. 경청의 개념

경청(傾聽)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상대방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의도에 관심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므로 상대방의 존재나 행동, 말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나 언행보다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 말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대충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하는 속도보다 듣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를 집중해서 듣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남은 지적 능력으로 관련되는 일을 상상하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듣게 되고, 결국은 들어야 하는 상대의 말은 듣지 않게 된다. 경청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느라고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할 말을 시작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어 버리게 된다.



4.1.4. 교사의 공감적 경청 방법

- (1) 전 단계의 언어적 조치: 교사가 학생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미의 언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예: “틀려도 괜찮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 생각이 참 궁금하구나!”, “이건 선생님하고만 하는 이야기로 하자.”,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봐. 선생님은 네 편이야.”, “선생님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단다.” 등)
- (2) ‘침묵’ 활용하기: 교사의 침묵이 학생들과 유효한 소통적 코드가 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침묵을 하면 그것이 ‘공감적 경청’의 징표임을 알도록 하는, 소통을 위한 코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3) 시선 맞추기: 눈빛이나 시선을 맞추어서 감정의 눈높이를 맞춘다.
- (4) 집중하기: 편안한 자세, 자연스러운 눈 맞춤, 미소, 귀 기울기 등
- (5) 음성적 반응 보이기: “그래?”, “정말”, “으음, 맞아!” 등
- (6) 격려하기: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질문하기, 반복하기, 침묵 견디기 등(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어.”, “다시 보아야겠는데”, “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그래, 잘했어.” 등)
- (7) 반영하기: 학생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재진술하기(retelling), 학생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유사한 이야기나 경험을 이야기하기.(예: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신났겠다.”, “놀랐다!” 등)

4.2. 청자 반응

화자와 청자의 대화 행위는 화자가 발화 순서를 가지면서 말할 이의 입장에서 행한 행위(화행)와 발화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들을 이의 입장에서 행한 행위(청자 반응)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말에 대한 청자 반응은 크게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과 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전달을 위한 청자 반응으로는 반복하기가 있다(질문하기, 지지하기, 요약하기, 부연하기). 한편, 관계 형성을 위한 청자 반응으로는 맞장구를 들 수 있다.



(1) 교사가 잘 듣고 있음을 학생에게 확인시켜 주는 언어적 반응들

- 감탄적 확인(“어쩐!/ 세상에!/ 어머머!/ 저런 저런!/ 아휴!” 등)
- 공감적 확인(“그래 맞아!/ 그럼 그렇지!/ 선생님 속이 후련하다./ 얼마나 힘들었어?” 등)
- 격려성 확인(“좋았어./ 잘했어./ 재밌다!/ 최고다! 최고!/ 그걸 몰랐네./ 훌륭했어.” 등)
- 진지한 확인(“정말이야?/ 어디 적어 두어야겠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등)

(2) 교사가 잘 듣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비언어적 반응들

- 감탄적 확인(눈 동그랗게 뜨기/ 주먹 꼭 쥐기/ 입 벌리기 등)
- 공감적 확인(고개 끄덕이기/ 빙그레 웃기/ 무릎 치기 등)
- 격려성 확인(박수 치기/ 엄지손가락 내밀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만들어 보이기 등)
- 진지한 확인(학생을 응시하여 보기/ 턱 쓰다듬으며 집중하기 등)

(3) 교사가 잘 듣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비언어적 반응들

- 시선 돌리기 /하늘 쳐다보기/ 고개 숙이기/ 딴 일 보기/ 무표정 등
- 딴 아이 지도하기/ 고개 흔들기/ 눈 감기/ 머리 긁기/ 다른 노래 흥얼거리기 등

(4) 교사의 청자 반응이 평가 기능을 갖는 언어적 반응들

- 긍정적 청자 반응

학생: 학교가 끝나구요. 집에 오는데 배고파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교사: 오,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급식을 안 먹었나 보다. 그지? 우린 급식 먹고 가고……, 애는 급식을 안 먹었나 보다.

형석: 토요일인데…….

학생들: 토요일.

교사: 아, 맞아 맞아, 그래 토요일 같은 날은 좀 그렇겠다. 오늘 같은 날.



그지? 아 이 날이 토요일이구나. 선생님도 몰랐는데 형석이가 말하니까, 맞아요 생각났어요.

학생: 오늘 학교…….

교사: 맞아 맞아. 토요일인가 봐.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

▪ 부정적 청자 반응

교사: 꼬르륵. 이걸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다. 그지? 철수가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학생: 후르륵 쪽쪽.

학생: ↑아, 아.

교사: 후르륵 쪽쪽이야?

교사: 후루룩 ↑.

학생: 찹찹

교사: 찹찹. 어, 아, ‘후르륵 찹찹’하면 좀 이상하지? ‘후루룩 찹찹’ 해야지.

4.3. 효과적인 칭찬과 꾸중

4.3.1. 칭찬과 꾸중의 의미

칭찬과 꾸중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었지만, 이의 사용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칭찬은 바람직한 행동의 유발이라는 ‘증가의 원리’라면, 꾸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제거라는 ‘삭감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

4.3.2. 칭찬과 꾸중의 기술

(1) 칭찬의 기술

▪ 즉시성: 즉시 칭찬하자.

▪ 직접성(구체성): 스스로 한 일만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무조건적 칭찬은 ‘선생님은 내가 무얼 하든 좋아해.’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든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 한 일이나 얼마 아파를 뉘웠다는 의지에서 한 행동만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총체적 칭찬보다 구체적 칭찬을 하도록 한다. 아이의 그림을 보며 “잘 그렸다.”가 아니라 “기린 목을 길게 그리니 정말 기린 같다.”라고 칭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칭찬의 예를 더 들 수 있다.

<예> “적절한 예를 들어 주어 고맙구나.”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 좋다.”

“핵심을 말해 주니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잘 말했구나.”

“바른 자세로 발표를 잘하는구나”

- 포상성: 상을 주자.
- 준칙성: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칭찬하자.
- 긍정성: 착한 행동에는 열심히 칭찬해라.
- 개별성: 아이의 특성에 맞추어 칭찬해라.
- 진정성: 빈말로 하는 칭찬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 과정성: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오늘은 어제보다 블록을 더 높이 쌓았네, 노력 많이 했구나!” 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향상된 것을 칭찬한다.
- 적정성: 과분한 칭찬(예: “넌 역시 천재야.”, “귀신이 따로 없네, 매우 훌륭했어.” 등)이나 평가하는 칭찬(“넌 좋은 애구나.”, “넌 계속 훌륭한 일을 하려무나.” 등)은 오히려 칭찬을 듣는 학생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의외심 혹은 반항심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수용성: 학생을 평가하는 칭찬보다는 이해하는 칭찬을 한다.

<이해하는 칭찬의 예> “개미 모듬은 자기 분담대로 자료 정리를 잘하여 친구들이 알아보기 쉽게 발표했군요.”,
“○○는 자기가 맡은 조사 과제를 잘해 왔군요”

<평가하는 칭찬의 예> “개미 모듬은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는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2) 칭찬을 해야 할 경우와 칭찬 화법의 예

- 다른 학생들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내용을 찾아낼 때
“기막힌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은 아인슈타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 학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할 때
“그렇구나. 네 의견대로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많이 낼 때
“아주 좋은 방법들이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했구나.”
- 발전적인 학습 태도나 성취도를 보일 때
“정말 깊이 생각했구나.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나?”
- 좋은 사례나 보기를 들어 내용을 설명할 때
“누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었구나.”
- 여러 의견들을 모아 명료하게 결론을 내릴 때
“종합력이 뛰어나구나. 선생님도 그렇게 정리하기는 힘들었을 거야.”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평가·분석하여 정리할 때
“○○○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구나. 특히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가려내었구나.”

4.3.3. 꾸중의 원칙

학생에게 꾸중을 하는 방법, 특히 꾸짖을 때 현명하게 꾸짖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아이를 꾸짖되 ‘흥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꾸짖는다.(감정 배제)

둘째,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사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바람을 짧고 분명하게 덧붙이는 것이 좋다. 교사는 감정의 폭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가능한 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학생을 위해서 꾸중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 과정에서는 물론 그 외에도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고, 학습자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 잘못이 분명할 때만 야단치자.
- 일관성 있게 야단치자.
- “안 돼!”라는 말은 최대한 줄이자.
-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자.
- 한 번에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자.
-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꾸중이 지나치지 않게 하자.
-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꾸짖지 말자.
- 작은 목소리로 야단치자.

4.3.4. 꾸중을 해야 할 경우와 꾸중 화법의 예

○ 잘못된 행위 그 자체에 국한하여 꾸중하기:

“너는 왜 그러느냐?”라는 식의 질책보다는 “그런 행동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찾아봐.”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고치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다.

“너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겠더라. 대출 기간이 지났어.”(○)

“넌 참 무책임하다. 늘 꾸물대고 잊어버려. 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지 않았어.”(×)

“어이쿠, 물감을 쏟았구나. 걸레 가져오너라.”(○)

“저렇게 어설피다니까. 넌 왜 그렇게 덜렁대느냐? 얼른 걸레 갖고 와.”(×)

○ 행위가 일어난 즉시 꾸중하기

○ 꾸짖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시키고 꾸중하기: 왜 그런 행동이 나쁜지, 왜 틀렸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킨 다음에



그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여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내도록 한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 꾸짖는 행동 삼가기:
“○○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등의 꾸짖는 표현은 삼가기
- 간결하고 짧게 꾸짖기: 꾸중하는 까닭을 간결하고 짧게 말해서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 꾸중 후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 주기: “아까는 ~해서 꾸중을 들었는데 ~하게 하는 것을 보니 좀 전에 실수를 했었구나.”
-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냉정하게 꾸짖기
- 꾸중이나 질책을 할 때, 교사가 학생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학생을 나오게 해서 질책을 하거나 벌을 주기: 교사의 순간적인 감정 폭발을 막기 위해

4.3.5. 칭찬하지 않고 칭찬 효과 내기, 꾸중하지 않고 꾸중 효과 내기

(1) 간접 칭찬하기

- 칭찬 자체를 또 다른 질문 형태로 하여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욕도 자극할 수 있다. 칭찬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더욱 구체적인 반응(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 교사: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학생: 네.(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왜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더 좋은 대답이 있습니까?”)

- 학생의 대답을 교사가 있는 그대로 반복한다. 반복할 때 교사가 비언어적 요소를 가미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목소리에 기쁨이나 놀라움, 반가움 등을 담으면 효과적이다. ‘모방이 가장 효과적인 아부(칭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특히 선생님이 따라



할 때 학생의 마음에는 호뭇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긴다.

- 학생의 대답을 요약해서 칠판에 쓰는 것도 말없이 하는 효과적인 칭찬이 된다.

(2) 효과적으로 꾸중하기

- 아이의 인성이나 성격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고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말한다.

예)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하거나 장난을 할 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래?” 등의 표현보다는 “지금 수업 시간인데 왜 장난을 하고 있니?” 등의 행동을 말해서 꾸중한다.

- 담백하게 꾸중을 하고 나서, 화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아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의 기분을 전달한다.

- 학생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함께 말한다.

예) “~는 네가 ~하길 바라.”, “~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 등의 기대나 소망을 함께 말한다.

- 나 전달법(I-message 전달법)

예) “지저분한 놈들. 교실에 책을 어질러 놓을 거야?”(×)

“책들이 교실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니 무척 산만해 보인다. / 어질러진 교실을 보니 선생님이 화가 난다.”(○)

- 무패의 방법: 배려하기

예) (창문을 열라고 교사가 지시했지만 학생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

“창문 하나도 열지 못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 창문이 또 팔쌍이구나.”(○)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상한 두부를 사 온 경우)

“두부 하나도 제대로 못 사오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두붓집 아저씨가 날짜 지난 것을 몰랐나 보구나.”(○)

참고 문헌

- 구현정, 전영옥(2005), 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 박용익(2001), 대화분석론, 역락.
- 스와 고이치 편저/오근영 옮김(2004), 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대화의 기술, 양철북.
- 심우엽(1993), 교사의 부정적 언어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제7집, 한국초등교육학회.
- 이주행 외(2003), 교사 화법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최현섭 외(2007), 내 말에 상처 받았니, 커뮤니케이션북스.
- Cooper, P. J. & Simonds, C. J.(2007), Communication for the classroom teacher, Boston : Pearson/A&B.
- Ginott, H. G.(1993), Between teacher and child. 신흥민 역(2003), 교사와 학생 사이, 양철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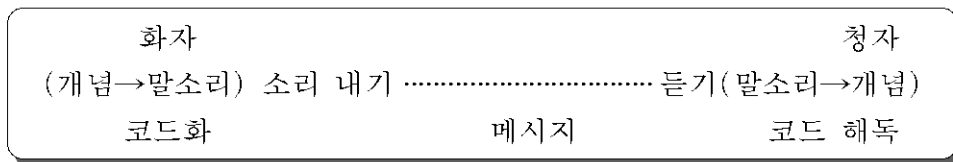


협력적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1.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1.2. 화자와 청자

대화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이야기되는 화제가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조음해서 발화해야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거기에 비해서 발화를 지각해야 하는 청자는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

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별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 심지어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듣기도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화는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3. 메시지와 메타-메시지

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음성 언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포괄적으로 ‘동작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동작 언어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언어 행위 안에도 많은 동작 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하고 동작 언어와 환경 요소까지를 포괄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메타-메시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타-메시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극단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는 7%, 목소리나 억양이 전달하는 정보가 38%, 몸동작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가 55%에 이른다(Mehrabian, 1972).

1.3.1.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개별성을 갖는다. 성문(聲紋, voice print)을 가지고 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질이 다르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노인인지 어린이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성격, 정서 상태 등



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를 바꾸는 요소인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말의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소리를 단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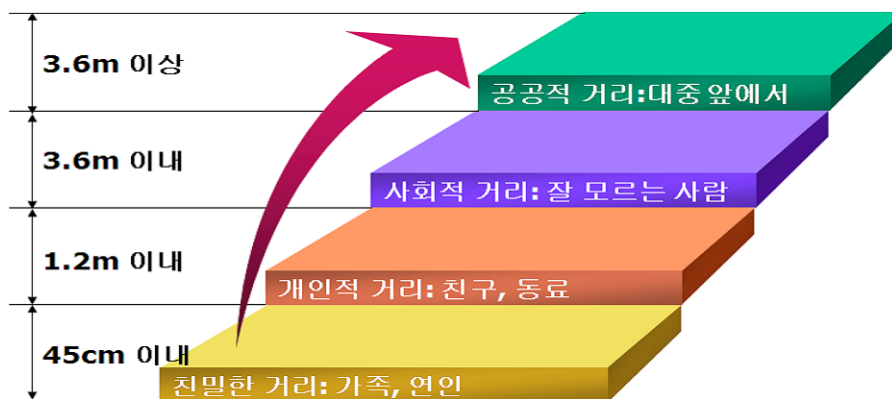
목소리는 온도도 가지고 있다. 차가운 목소리는 냉담함과 무관심을 나타내고, 따스한 목소리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화할 때 들리는 상대의 목소리는 상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판이다.

1.3.2. 근접 거리

대부분의 동물은 그들 신체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개별적) 공간으로 주장한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는 반경 50km 이상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감금되어 사육된 사자는 아주 좁은 공간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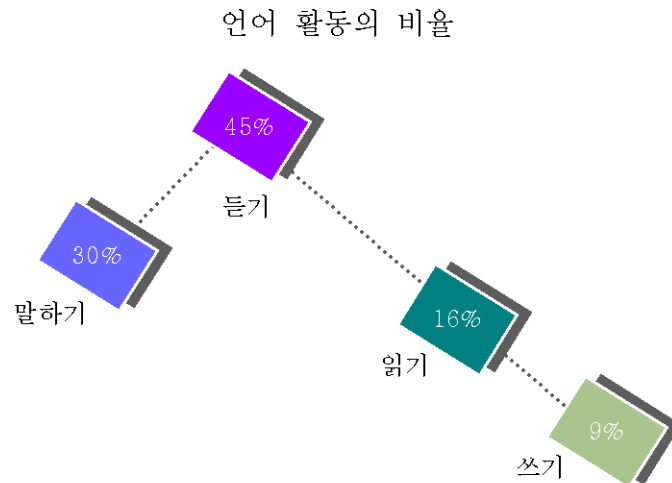
고슴도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추위를 느끼면 서로 접근하여 모여든다. 그러다가 서로의 가시에 찢리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추위를 느끼면 다가오기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거리, 즉 최적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근접 거리는 다음과 같은 4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ease, 1987).



2. 효과적으로 듣기

2.1. 듣기의 유형



2.1.1. 듣기 비속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통 장애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부정하면서 듣기 때문에 일어난다. 스스로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들은 것의 반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들은 지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2.1.2. 듣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 ① 듣기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 ② 소리를 듣는 것과 의미를 듣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 ③ 듣는 사람들이 가진 관심과 욕구와 동기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1.3. 의미 듣기와 의도 듣기

- ① 의미 듣기: 표현된 말의 단어나 문법을 통해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냥 지나간다.)



- ② 의도 듣기: 표현된 말을 넘어 숨겨진 메타-메시지를 찾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해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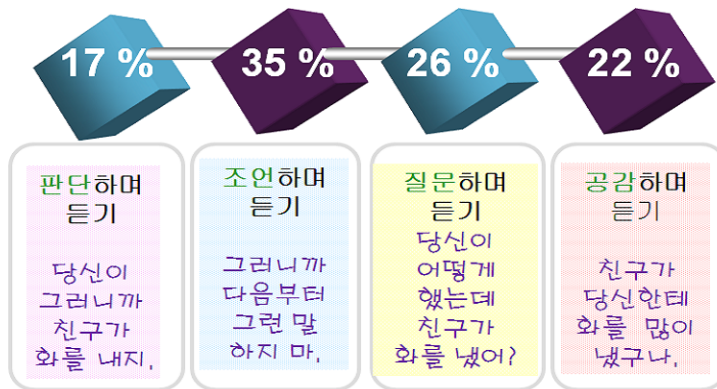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길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2.2. 공감적 경청

2.2.1. 듣기의 다섯 가지 수준

- 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②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③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④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⑤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2.2.2. 공감하며 듣기

- ①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②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 ③ 상대방이 생각하는 틀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을 한다.
- ⑤ 상대방의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되돌려 준다.

3. 효과적으로 말하기

3.1. 대화의 특징

3.1.1. 순서 교대

대화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듣는 사람인 청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역할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첫째, 대화에서는 반드시 순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자신의 대화가 문장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더 짧게 두어서 이어지는 대화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라도 너무 길게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자신의 말이 끝나갈 때는 다음 화자를 지목해 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시선, 억양 등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이 명시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는 이야기 되고 있던 화제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화제라고 판단되면 하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조금 더 부연하다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화제이거나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화제로 바꾸고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현재 화자가 다른 사람을 다음 화자로 지목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음 화자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현재 화자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를 자르거나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참여한다. 어떤 대화에도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서열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대화를 했는데도 적당한 순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특정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주는 등의 동작 언어를 다소 과장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3.1.2. 대화의 중복

현재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자가 말을 시작해서 둘 이상의 화자가 얼마간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가 대화의 중복이다. 대화의 중복이 일어나면 대체로 대화의 흐름이 깨지고 대화자들이 긴장하게 되지만 대화 방식에 따라서는 중복이 나타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대화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의적으로 남의 말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화의 중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중복인지, 고의적인 방해인지, 반응 발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우연한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아니라면 끼어든 사람이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다.

넷째, 고의적인 방해의 경우는 방해가 일어난 대화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

지 못하는 화제를 오래 붙잡고 있었거나, 혼자서 대화를 오래 독점한 경우는 끼어든 화자에게 대화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의 말은 자르거나 불필요하게 끼어든 경우라면 상대를 무시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도 무방하다.

다섯째,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고려해서 적극 관여형의 사람이 끼어든 경우는 반응 발화로 간주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 되지만, 중복 자체를 방해로 받아들이는 심사숙고형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가급적 끼어들거나 반응 발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3.2.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Paul Grice)이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어떤 묵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격률(maxi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Grice 1975, 1978).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2.1.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협동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이 된다.

3.2.2.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2.3.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3.2.4.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의 격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적합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3.2.5.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방법의 격률은 한마디로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방법의 격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라.

둘째, 중의성을 피하라.

셋째, 간결하게 말하라.

넷째,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

3.3. 나-전달법

3.3.1. 나-전달법의 개념

대화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 방법으로는 ‘나-전달법’(I-message)이 있다. 나-전달법이란 주어가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전달법’이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문제에 관해 상대방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너-전달법은 직접적이어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대화에서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고, 도덕적 훈계나 설교, 강의, 지시를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너-전달법은 강압 때문에 선택 기회가 없어지게 하고, 반발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직접성을 간접화하는 방법이 주어를 ‘나’로 바꾸는 나-전달법이다. 상대방인 ‘너’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도 않고, 화자의 심정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달 효과도 더 확실해져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된다.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전달 과정		
메시지	코드	코드 해독-과장
	과장님, 어쩔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화를 내세요?	‘과장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과장님이 제 사정을 묻지도 않고 화를 내셔서 서운했습니다.	‘윤계장은 서운하다’



3.3.2.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문제를 유발하는 상대의 행동은 무엇인가? 둘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 섞이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명백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는 그 행동이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는 영향을 밝혀야지만, 상대방은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소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밝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예를 들자면 실망, 분노, 슬픔, 당황, 걱정, 두려움 등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3.4. 대화의 내용: 인간관계 지능

3.4.1. 대화의 단계 (Powell, 1969)

1단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다.

Peak Communication / 필요(Needs)

2단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Gut-level Communication / 느낌(Feelings)

3단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Evaluative Communication / 견해(Opinions)

4단계: 사실 보고 수준의 대화이다.

Factual Communication / 사실(Facts)

5단계: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이다.

Phatic Communication / 상투어(Cliche)

3.4.2. 인간관계 지능

감성 지능, 다중 지능 등과 같이 인간관계 지능은 스테판 그로스(Stefan F. Gross, 1997)에서 제시되었다. 인간관계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화를 할 때 감사, 칭찬, 존중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 비난, 무시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관계 지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불평**이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비난**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무시**이다.

3.4.3. 정중어법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언어학자들은 ‘정중어법’ 또는 ‘공손법(Politeness Principle)’이라고 하였다.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Leech 1983). 정중어법이란 한 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중심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1) 요령의 격률

요령의 격률(Tact maxim)이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2)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3) 찬동의 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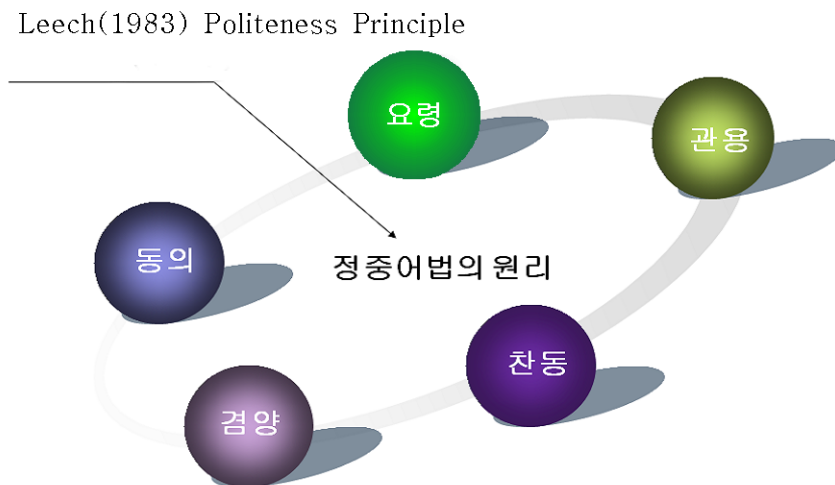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4) 겸양의 격률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5) 동의의 격률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이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한 유형이다.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쓰다듬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야가와’는 말의 이러한 두 측면을 으르렁거리는 말(snarl-words)과 가르랑거리는 말(purr-words)로 나누었다(Hayagawa 1978). 이런 점에서 한 마디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청자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말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그냥 듣고 흘릴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탁구와 같이 빈번한 움직임이 상호간에 오고 가는 행동이다.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고난도 게임인 것이다.

참고 문헌

- 구현정. 2009[1997].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113 - 128.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 F. Stefan. 1997. *Beziehungs intelligenz*, 박정미 역, 2000. 인간관계지능, 청년정신.
- Hayakawa, S. 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Four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Mehrabian, Albert.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Illinois: Aldine-Atherton.
- Pease, Allen. 1987[1981]. *Body language: How to read other's thoughts by their gestures*, London: Sheldon Press.
- Powell, John. 1969.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Niles, IL: Argus Communications.
- Satir, Virginia.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편집: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집필: <가나다순>

구원정(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협력적 의사소통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구별해야 할 말
김세중(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우리말 다듬기
김희진(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문장 바로 쓰기
유하라(국어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한글 맞춤법의 실제
이정우(김포시 석곶초등학교 교사): 청소년과의 대화법
전인숙(서울시 한천초등학교 교사): 학교 생활문 쓰기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글 맞춤법의 이해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외래어 표기법
정희창(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띄어쓰기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표준어 규정
최혜원(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표준 발음법

국립국어원 2010-03-29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

2010년 12월 10일 인쇄

2010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